

月刊

미사익

4294

8호

特
輯

主體意識의 確立과 行動

革命的 主體性을 確立하자
生産的 思考와 創意的 行動

自己 喪失의 終着點





한국공군은 지난 12월 8일 전천후 요격기 F-86D를 추가 도입하고 새로운 요격비행 대대를 창립함으로써 전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 동 전투기 인수 및 비행 대대 창설식에 참석한 김신 참모총장 및 한미고위장성.

○ 동 전투기 인수식에서 서명하는 김신 참모총장 및 미 314비행사단 및 허치슨 준장

○ 우리 공군이 인수한 정예 전천후요격기의 용자(勇姿)



→ 공분을 예방한 찬돌백사 대장에게 김신 참모총장은 동양화 한 폭을 증정했다.



→ 공분을 예방한 멜휘시씨와 환담하는 김신 참모총장.

← 태국공군총사령관 분·추, 찬돌백사 대장은 김신 참모총장의 공식초청으로 11월 25일 내한했다. 원내는 11월 27일 공분을 예방한 찬돌백사 대장을 영접하는 김신 참모총장.



← 언커크 호주대표 「어-서. J. 멜휘시」 씨가 귀국인사차 11월 1일 공분으로 김신 참모총장을 예방했다. 원내는 공분을 예방한 멜휘시씨를 영접하는 김신 참모총장.



→군무(軍務)의 여가를 틈틈이 이용해서 완성한 공군장병의 미술작품 전시회가 12월 6일~8일에 걸쳐 공본 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동(同)작품을 관람하는 김신 참모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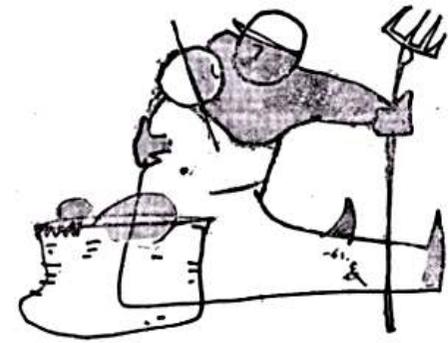


←불리한 입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임무수행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벽고지부대를 순방(巡訪)하고있는 참모부장 전 명섭 장군과 본부 참모 일행.

↓ 제1훈비단·초훈전대 이원용 병장은 진주시공관에서 개최된 제12회 개천예술제 변론대회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박(朴) 최고회의 의장상과 부산시장 상배(賞盃)를 수여받았다.



→공산 MiG 제트 전투기를 타고 자유를 찾아 의거 월남하여 현재 공군장교로 복무하고 있는 정낙현 공군대위는 지난 11월 25일 전(全) 자유민의 축복을 받으며 YMCA회관에서 화촉을 밝혔다. 신부는 당년 23세의 서미라양이다.



<목차(目次)>

<문 비> 농민이 뜻 있는 지난 1년의 보람을 환희한다……이 희 세	<표 지> 주체의식의 확립은 행동의 질서를 가져온다……민 철 홍
☆ 화 보	(표지 2·3면)

생(生)의 여정에서

★나와 철학	김 계 숙 (2)
★인생이란 것	김 재 준 (4)
★좌우명	이 상 로 (5)
★인내의 길	손 기 정 (7)
★철전팔기	김 학 서 (8)

◇왜 안 팔릴까? <군목수기> 이 영 열 (30)

특집

주체의식과 행동	혁명의 주체성을 확립하자	홍 승 면 (12)
	자기 상실의 종착점	신 일 철 (14)
	군인과 행동	김 중 문 (16)
	생산적 사고와 창의적 행동	유 철 중 (18)
	행동이란 무엇인가?	장 병 립 (21)

△현실논문
기다리는 마음 김 병 로 (40)
5·16 혁명의 역사적 의미 문 명 진 (43)

연재	미사일의 역사	⑥	외지(外誌)에서 (24)
	세계의 경이를 찾아서	④	외지(外誌)에서 (48)
	방공(防空)구국(救國) 3개월	③	하리바톤 (28)
	세계 신문 이야기	③	김기점 (35)

◇붉은 지역의 종점 <월간시사> 편집계 (54)

★취미	
<음악> 감상법 ABC	편집계 (56)
<영화> 로베레 장군	편집계 (57)
겨울철의 위생과 건강	한정수 (50)

수필	건 망 중	김성진 (60)
	이국(異國)의 한국소녀	이인석 (62)
	뒷길 풍경	오에영 (63)

시	독수리	양명문 (60)
	간주곡	김상화 (63)
	<소설> 후조(候鳥)	손소희 (64)
	<부록> 세계인권선언	(67)

나와 철학

김계숙



필자와 철학과의 관계를 돌이켜 생각하면 처음에는 기구한 인연에서 시작되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철학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행세하게까지 되었다.

최초의 기구한 인연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36·7년전으로 소급하게 된다. 농촌출생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려고 하던 때에 아버지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의학이나 법학을 하라고 하시는 것을 모두 개성에 맞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대학에과는서는 문과에 지원하였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대학 본과에 진학할 때의 전공과의 선택이었다. 선택한 것은 결국 「철학」이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고싶어서 택한 것은 아니고 다투는 마땅치 아니하여서 억지로 한 것이다.

그러고보니 기구한 인연이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그 당시의 젊은 생각에는 철학과에는 일본에서도 유명한 교수가 있었은즉 철학에 흥미를 가졌다기 보다는 아마도 그 교수들에게 매력을 느끼었다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철학과 인연을 맺게 될 운명은 결정되었다.

대학에서는 동양철학 강의도 들었으나 그러나 서양철학 강의가 많은 탓도 있겠지만 서양철학에 기울어졌다. 강의는 고대철학에서부터 현대철학에 이르기까지 있었으며, 현대철학으로서는 신 칸트학과 이후 후설(Edmund Husserl, 1859-1938)을 중심으로 한 현상학으로 마치었다. 그런데 특히 연습에는 칸트(Kant, 1724-1804)가 많았던 만큼 필자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며 따라서 신 칸트학파의 영향도 많았던 것이다. 아니 대학 후기에 있어서는 주로 신 칸트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의 저서를 많이 읽었던 것이다.

신 칸트 학파에는 마르부르크(Marburg) 학파와 바덴(Baden) 학파가 있는데, 마르부르크 학파는 과학비판을 중심과제로 삼았으며, 바덴 학파는 가치와 문화와 역사 등 문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동시에 칸트의 실천이성의 우위를 역설함으로써 가치철학, 문화철학, 역사철학을 발전시켰었다.

코헨(Hermann Cohen, 1842-1918), 나토르프(Paul Natorp, 1854-1924), 카시러(Ernst Cassirer, 1874-1945) 등은 마르부르크 학파의 중진이며, 빈델반트(Windelband, W. 1848-1915), 리케르트(H. Rickert, 1863-1936), 라스크(E. Lask, 1875-1915) 등은 바덴 학파의 대표자들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철학자들의 저서를 탐독하던 중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칸트에 있어서의 철학적 엄밀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동시에 역사적 문제와 체계적 입장을 결합시킴으로써 칸트의 비판주의 철학의 기초를 새로 세우려고 한 코헨이었다.

코헨은 학(學)으로서의 철학을 강조하는 동시에 칸트의 3대 비판서에 해당한다고 할 「순수인식의 논리학」, 「순수이성의 윤리학」 및 「순수감정의 미학」 등 저서를 발표하였다. 필자의 관심의 중심은 그 중에서도 「순수인식의 논리학」(1902)이었으며, 여기에서도 순수인식이 유발되는 근원의 논리였다. 코헨은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논리학과 형이상학(形而上學)을 분리시킨 것을 철학에 있어서의 위대한 출발이라고 찬양하는 동시에 이것은 예부터 위대한 창조적 사상가들이 밝은 지침이라고 함으로써 철학은 순수한 사고에 의하여 시작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근원은 어떠한 주어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사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코헨에 있어서는 논리학에 있어서의 사고는 자기생산의 사고이며, 따라서 논리학은 모든 순수인식이 유발되는 근원의 이론이다. 또 사고의 기본형식은 개념이 아니고 판단이라고 하는 동시에 그것을 사고법칙의 판단, 수학의 판단 수, 학적자연과학(學的自然科學)의 판단 및 방법론의 판단의 네 가지로 나누었으며, 논리학을 철학체계의 기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코헨의 순수인식의 논리학은 순수사고의 논리학이며, 그것은 수학적 기감(基監)위에서 확립되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코헨에 있어서의 칸트의 철학적 사색의 방법의 강조에 동감하였다고 할까 또는 학(學)으로서의 철학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었다고 할까 졸업논문에서는 코헨의 근원의 논리에 대하여 썼던 것이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1929년 이후를 돌이켜 생각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경제공황에 의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에 새로운 위기가 나타남으로써 자유사상이나 난삽한 학적 탐구보다도 절실한 현실문제 따라서 사회사상과 현실주의 사상이 한국에까지도 파급된 관계인지 그 이후의 필자의 관심은 코헨의 학(學)으로서의 철학보다도 나토르프의 실천철학 특히 인간도야는 사회적 공동체에 있어서만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사회윤리를 건설하려고 하는 데에 차차 기울어졌던 것이다. 즉 마르부르크 학파보다도 바덴 학파에 쏠리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돌이켜 생각하면 필자가 서양 철학사 특히 근세 철학사를 쓸 뿐 만아니라 헤겔의 청년시대의 연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모르긴 하여도 바덴 학파의 중진인 빈델반트나 리케르트의 영향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마르부르크 학파는 주로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칸트 철학을 발전시킨데 대하여 바덴 학파는 문화철학, 가치철학, 역사철학을 중심으로 칸트 철학을 발전시키었던 것이다. 빈델반트나 리케르트의 저서로서 널리 알려질 뿐만 아니라 필자도 탐독한 것으로서 빈델반트의 것으로서는

生の旅程에서

生の旅程에서

「근세철학사」를 비롯하여 「철학서곡」(푸레루디엔), 「철학사」 및 「철학개론」이 유명하였으며, 리케르트의 것으로서는 「철학의 대상」 「문화과학과 자연과학」, 「생의 철학」, 「철학의 근본문제」 등이 있었다.

1930년 이후의 세계에 다시 새로운 문제를 던진 것이 전체주의사상으로서의 파시즘과 나치스 사상이었으며, 여기에서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사상은 사상적 대립뿐만 아니라 두 진영으로 나뉘어 대항하였다. 이와 같은 대립의 세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적 입장에서 문제된 하나가 헤겔의 변증법이었으며, 또 헤겔의 100년기념제가 마침 1931년이었기 때문에 1932년을 전후하여서는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간에 헤겔에 대한 연구는 한때 세계를 흔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과 함께 일본에서도 전체주의사상의 팽창과 함께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침략이 시작되자 한국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항하여 1929년 11월의 광주학생사건을 비롯하여 민족적인 반일투쟁운동이 각지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때에 필자는 졸업 직후부터 철학연구를 계속하려고 하던 숙원을 이루기 위하여 졸업후 10년 되던 해인 1939년에 일본 동경으로 가서 철학연구를 다시 계속하였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기도하고 무모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것도 철학적이라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35세의 노학생은 자기의 나이도 잊어버리고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젊은 학도들 사이에서 새길을 찾아보려고 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확실히 인생의 참다운 맛을 본듯도 하다.

그 동안에 제2차 세계대전은 이미 전세계를 진동시켰으며, 전체주의진영에 가담한 일본도 동양에 있어서의 침략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공격을 준비한 때였다.

일본 유학시대의 철학연구에는 약간의 변동이 생겼다. 그러나 본래의 기반에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동경대학 대학원에서는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연습에 참가하였으며 특히 지도교수는 신 칸트 학파의 바덴 학파에 속하는 크로너(Kroner Richard)의 저서 「칸트에서 헤겔까지」(1921-24)의 2권을 읽을 것을 지시하였다. 여기에서 필자는 세계적인 경향과 함께 동경대학에서의 지도에 따라서 헤겔 연구에 집중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헤겔의 청년시대의 사상적발전이었다. 그 시대의 모든 철학사상을 비판하고 새 체계를 세움으로써 독일의 근대화를 위한 사상적 혁명을 의도한 그 철학적 사색의 탐구였다. 특히 여기에서 문제 삼은 것은 헤겔이 자유의 발전을 위하여 제창한 윤리와 생의 개념의 발전이었다. 또 필자는 칸트와 헤겔의 역사적 중요성과 함께 현대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였을뿐만 아니라 칸트 이후 헤겔에 이르는 독일관념론철학의 연구에 치중하였으며, 「근세 철학사」를 쓴 것도 그 산물이었다.

× ×

기구한 인연으로 전공하게 된 철학이 결국 일생사업의 전체를 점령하게 되었으니, 운명적이라고 하면 운명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대로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 운명이라고 하면 어떠한 과거의 더욱이 인가적인 것 이외의 쇠사슬과 같은 지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칸트 이후 헤겔에 이르는 독일관념론에 있어서는 아니 원체 철학이란 그런것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운명적인 것에 부딪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철학은 인생의 운명이나 우주의 장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지식 위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며, 인생의 올바른 길을 밟을 수 있는 행동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통 철학자라고 하면 구수한 이야기나 하고 인생의 운명을 점치며 현실을 초월한,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으로 서만 알고있으나, 그러나 참다운 철학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데에서 철학적 노력은 시작되는 것 같다. 필자도 그런 철학적 노력을 위하여 자신으로서서는 애써 왔다고도 하였으나, 철저히 못하며 더욱이 인생의 참다운 맛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라고 하여도 할수록 끝이 없으며, 더욱이 인생이나 사회나 역사나 문화 또는 민족이나 인류에 있어서의 올바른 길을 문제삼으며 해결할만한 뚜렷한 지식과 확고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옛 철인들의 대오미저(大悟徹底)라든지 무지의 자각 등의 철리(哲理)는 알길 조차 없다. 그러고 보니 철학책을 뒤적거리며 전공까지 한 연수(年數)만 하여도 30년이 넘으니 일생을 허송세월 한 느낌밖에 없다. 즉 회고하면 인생이나 우주의 철리의 해명이나 직통은커녕 무지속에서 지내온 느낌밖에 없다.

더욱이 현대는 과학시대라고 할 만치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남이 만든 문명의 이기를 쓰는 것을 자랑할 뿐이요, 실제로 있어서는 과학의 무지속에 있으며 참다운 과학적 생활과 과학적 사고를 못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과학시대에서 유리되어 있는 것이다. 철학은 경고한다. 좀더 과학의 장점을 발달시키는 동시에 그 단점(短點)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철학적 지식과 철학적 사색을 배우라고.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을 쉽게만 생각한다. 자기의 일조차 남의 일같이 생각하며, 남에게 맡긴다. 과학도 쉽게 발달되며, 철학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망상한다. 그러나 무지에 의한 판단과 같이 무서운 것은 없다.

칸트는 말한다. 인생이나 우주의 문제는 이론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아니 「실천이성의 우위」를 외쳤다. 「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당위(當爲)가

저절로 존재(存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실천적 행동을 통하여야만 구현된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행동과 유리(遊離)될 때에는 이중인격으로 나타난다. 아니 많은 사람이 이것을 자랑한다. 그러기 때문에 혼란은 가지지 아니한다. 어려운 현대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피상적 지식과 부정확한 많은 경험으로 모 든 것이 가능하다고 독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혼란은 심하여질 뿐이다.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도 빛나는 시대 는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잘 사는 다른 나라의 역사와 생활도 그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운명 과 기적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대 최선의 과학적 철학적 노력을 하는 민족과 국민 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하여야 한다. 그리고보면 철학은 난해의 학문으로 통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하며 귀찮은 학문이 기도 하며, 따라서 그 연구는 괴로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필자는 가끔 학생들에게 철학을 배워야하나 철 학자는 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철학자는 있어야하며, 또 귀중한 존재다. 왜? 철학자는 민족과 국민 아니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생각하며 행동하며 정의를 위하여 싸우도록 지도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철학은 어렵고 도 귀찮은 학문이다.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학간 을 꾸준히 탐구하는 민족에게 참다운 역사는 이루어지며, 자유가 구현되는 것이다. 철학은 위안의 도구가 아 니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성적이며 실천적인 도구다. 필자는 아직 철학자는 못되어도 이러한 중요한 철학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오로지 만족하고 있으나 그러나 철학자들은 무지의 자각에서 전진하라고 외친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과학의 과학으로서 어려운 이론적 학문인 동시에 실천적 행동의 철학이며, 진군의 학 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철학이 우리나라에도 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필자·철학박사·서울사대교수)



인생이란 것

김재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요세 유행하는 철학의 경향인 것 같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것을 대전제로 한 생각이니만치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즉자(卽自)니 대자(對自)니 대타(對他)니 하는 자 기의 존재 양식을 본대로 말해 주고 있다. 무던히 명철하게 또 진지하게 본 것이라고 감탄한다. 그러나 결국 은 자아의식이란 것이 자아의 여러 가지 존재 양식을 보는 것이어서 자기라는 권내를 떠난 것이 아니다. 내 가 내 표준에서 나를 본다는 것은 의례 그럴듯하면서도 사실 어려운 일이다. 제가 제 얼굴을 파악하기 어려 운 것이나 비슷하다. 그래서 나는 나를 볼 때도 극성의 대립 상태에서 나와 대립된 저쪽 편 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인생을 볼 때 인간과 대립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하여 인간을 보는 것으로 시 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 어떻게 있게 됐느냐? 물으면 그건 우연이요 온전히 부조리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실 존 이상을 추궁할 수 없다는 경우에 그럴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향수에 시달리고 본향(本郷)을 찾는 인 간 본성은 이런 우연이나 부조리에 오래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기가 자존자(自存者)요, 신이라는 신념이 확고해야 할 것인데 암만해도 자기가 자기의 존재근원이라고 믿어지지 않는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러기에 창조주 대 피조물 관계에서 인간을 본다.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솔직히 고백한다. 하나님이 어 디 있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한다는 것은 유치한 일이다. 하나님은 영이시 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인간 앞에 무슨 실험용 물건처럼 사용되실 리가 만무한 것이다. 하나님을 안 다는 것은 인간이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경우에 그가 자기를 계시하심으로에서만 알게 되는 것임으로 이것 은 신앙문제요 어디까지나 종교적이며 인격적인 지식인 것이다.

인간은 피조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다른 만물보다 다르다는 것 이 말씀이 일러주신 인간평가다. 인간은 자기를 초월하여 자기를 관조한다. 그리고 인간행동에는 자유가 선 행한다. 인간은 다른 짐승 따위처럼 기성품으로 완결된 존재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열린 예측 못할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 것이다. 그 열려진 가능성의 문에는 자유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여기에는 선택의 자 유와 창조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세계와 다른 주체들과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투기하고 또 그들과 교통하는 신비가 드나든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진실로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나 현실로서의 인간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취지 는 때, 이그러지고 하염없고 오물 투성이고 그리고 죽음의 종이어서 이 있는 그대로의 인간상은 일종의 타락 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 주어진 자유마저 현기증 일으키는 자기 저주가 되는 형편이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한다면 율법 없을 때에는 인간이란 의례 그런것인 줄 알고 덮어 놓고 좋아하며 살았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때 그 율법 이 죄를 드러내는 빛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들은

생의旅程에서

생의旅程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다. 그러나 율법은 인간을 그 죄에서 건져주지는 못 하는 것이어서 결국 인간은 율법 때문에 죄의 권세에 놀리어 죽게되었다 는 것이다. 하여튼 지금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진지한 사상가들이 불 안이니 절망이니 허무니 하는 용어로 그 고민을 보고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겠다.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 죄인으로 죽음의 선고 받고 있다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 절망으로 결론지어진다는 것과는 그 걸어온 길이 다르다면서도 같은 고장에 도달한 진실이라 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인간 역사 앞에 들어와 구원해주시는 사건이 없는 한, 인생은 스스로를 구원 못할 무 의미며 허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나는 인생을 삶과 죽음의 두 극성(極成)의 긴장상태 안에 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전제에서 삶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삶의 저쪽 극(極)인 죽음에서 삶을 보는 것 이며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동안 삶을 즐기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 온다면 오라고 해 두자! 죽음은 죽음으로하여금 스스로를 건사하게 하세! 하는태도는 명량하고 낙관적이고 달관인 것 같기는 하나 깊이가 없다. 그건 하나의 체념이지 해결은 아니다. 용이하게 퇴폐적인 삶으로 전락한다.

내가 죽으려면 죽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죽음을 택한다고해서 죽음이 인간의 가능성 권내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죽음은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인간 가능성의 한계다 그 점에서 자 기의 존재 전체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볼 때 무한히 허 무한 것, 무한히 부조리한 것에 나의 전 존재가 매달려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곧 불 안, 고독, 절망의 의식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은 죽을 것이니까!」하는 옛날부터의 속담은 천박한 실상이다. 내일 죽을 것 때문에 전적으로 절망적인 인간이 즐길 수 있는가가 문제기 때문이다. 그 삶이란 천박한 자기기만일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극복하는 길을 추구하는 삶 만이 참 삶이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 면 인간은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 문제의 해 결과 함께 해결을 보는 것이다.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학사였고 지성적인 인간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사람이라고 믿 는 그리스찬들을 무지한 광신자며 신을 모독하는 범죄자들이라고 단정하여 일방타진하려는 운동에 선봉으 로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산 경험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초월한 관념의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그리고 나와 문답하시는 하나 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시인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죄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죽음의 극복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율법 아래서 죄의 명예를 메고 죽음으로 전락하 는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더 높은 차원에서의 은총의 질서를 발견하고 거기서 구원을 찾 았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존재이므로 종당(從當)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죄와 죽음을 하나님 관계에서 보았고 또 해결하였 다. 하나님 없는 삶이 죽음이요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삶이라고 보았다. 사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인 십 자가를 바라보며 일생을 그 초점을 향하여 걸어간 사람이었다. 말하자면 의미있게 죽는 것이 삶의 충실이라 고 보았다. 죄와 죽음의 포로가 되어있는 인간의 모든 운명적인 문제를 스스로의 몸에 걸머지고, 그 전 존재 를 속죄 제물삼아 받치는 죽음의 숭고한 순간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었다. 영생이란, 삶의 시간 적 길이라기 보다도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삶의 바탕이라고 요한은 말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머물러 그 몸이 성전이며 의(義)의 병기로 사용되는 것을 감격하였다.

그는 날로 쇠퇴해가는 육(肉)의 장막이 가까운 장내에 허물어질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 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몸, 영광의 몸, 령(靈)의 몸이 주어져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그는 확 신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유신론, 무신론 등의 논제가 아니다. 이것은 있는 그 대로 의 새 실존이다. 거기서 출발한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다.



좌우명
-인생관의 한 편린(片鱗)-

이 상 로

특히 동양사람들은 좌우명적인 지혜의 말에 대하여 깊은 애착(愛着)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한다. 비근한 예를 우리들 간의 가정에서 엿볼 수 있다. 죽 벽에 걸고 즐기는 죽자라든가 현관 같은 것에 표현되는 명시(名詩), 명문장 등 일종의 잠언이 그것이다.

나도 서재 혹은 현관에서 글씨 써 준 사람과의 무언의 친근감은 물론,

글 지은 분에게 대한 존경과 글 내용이 주는 지혜의 꽃향(香)을 조석으로 그윽하게 느껴 마지않는다.

그러한 일은 나만의 남다른 취미가 아니라고 함은 먼저 말한바 동양 사람들의 깊은 애착으로, 그것은 일종의 아포리즘의 완미(玩味)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교양이라든가 사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아포리즘이 갖는 인생의 깊은 내면적인 음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나는 1년쯤 전에 모지(某紙)에서 나의 좌우명을 말하라는 글을 다음과 같이 쓴 일이 있다.

나는 전에 「불온상락(不愠常樂)」을 항상 마음 속의 좌우명 삼아온 일이 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한 일면을 가지고 있다. 또 나는 침류수석(枕流漱石)의 정신을 자궁하느라고 그것을 화가 일중(一中) 김충현 님에게 써 받아 횡액으로 꾸며 서재 안두(案頭)에 장식하여 놓고 나의 삶의 모토의 한 가지로 삼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나는 앞에 말한 불온상락 등속의 인성(人性), 선성(善性)의 소극적인 것이 싫고 메시꺼워졌다. 내가 세상에 처하여 살아가느라고 되도록 착하고 어질자는 따위는 나아가서는 비굴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중국의 주작인(周作人)은 그의 글(수필) 가운데 “동족을 후애(酷愛)하기 때문에 자기가 처하여 사는 사회를 진정으로 바르게 만들기 위하여 겨레의 온갖 병적인 열근성(劣根性)을 무자비하게 파라적결(爬羅剔抉)한다”고 하였다. 우리 사회에는 개개의 인간을 비롯하여 어떠한 대·소간의 집단에도 술한 열근성과 그러한 것이 바탕된 고투완미(固陋頑迷)와 아침의 군상(群像)이 활개를 치는 부패성이 미만(彌漫)하고 있다.

예수는 “이 뱀들이야, 독사의 새끼들이야!”하였다. 뱀과 독사의 새끼뿐만이 아니라, 구렁이, 곰의 새끼 여우 등속(等屬)의 추방을 위하여 나는 예수의 선전포고적인 정신이 더욱 치열하여 가고만 있다. 그리하여 나는 외람되지만 예수의 “이 뱀들이야, 독사의 새끼들이야!”(마태복음)를 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1960.11.23. 평화신문)

그것은 어느덧 1년 전의 일이다. 우리들의 나라와 사회 사정은 또다시 한 고비를 넘기고 있다. 나는 최근 현금(現今)의 사회상을 고찰하는 고현적인 수필 「포도(鋪道)의 상황 속에서」(10.19. 민국일보)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썼었다. 그 부분을 끌어 옮기(인용)면 다음과 같다.

“……도로공사고 그 어떠한 건설이고 간에 시민·국민이 고루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것임은 상식 이전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정의와 청렴결백의 기아 상태에 살아왔고 부정과 부패의 포만 속에 살아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북마전(伏魔殿)의 무리들은 제거된 줄로 안다.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고투완미(固陋頑迷)하거나 어느 공약의 색채(塞責) 또는 구호로 인한 실적 계상(計上)상의 수자(數字)이거가 취미적 경거(輕擧)의 행정 변경·실시이어서는 큰 일이다. 역사의 죄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가리켜(한창 망명 때) 누가 말하기를 사무장지(死無葬地)라고 하더니 말년에 저 꼴이 되고 있지만 그 일신만은 혈혈단신이고 물의 탐욕자는 아닌, 그만하면 애국, 애족을 하노라고 애를 썼다. 그는 언제인가 그를 에워싼 아부 군상(群像)들을 가리켜 “누굴 같이보아도 모두 도둑놈……”이라고 개탄하던 일이 새삼 메아리 같이 상기된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아부·아침의 군상들이 영도자를 망치고 나라를 쪼먹으며 국민을 해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나의 생각이 말발된 것이 되기를 바란다.

× ×

가을비 촉촉이 내린 밤의 포도(鋪道)나도 방의 도배랑 집의 보수를 하였으면 하고 버리기 한 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예축(預蓄) 없는 살림살이 그렇다곤 빛을 내서까지 그런 집치장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만두기로 하였다. 나는 오늘도 얼마 안되는 음탁(飲啄) 거리 때문에 영영신여혼(營營晨與昏)의 하루를 포도(從當)에서 포도(從當)로 돌아다니느라고 브레이크판을 세우듯이 밟았다. 그러는동안 나만의 고현의 이미지는 비분강개(悲憤慷慨)의 지향적인 것이기보다 우리의 풍토·환경학적인 체념과 서글픔이 서려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수주(樹州)선생의 시 「포도(鋪道)를 걸으며」의 끝 연을 읊조리면서 귀소(歸巢)하는 것이었다.

“저 난 고장 살면서도
나그넨양 서투를 뿐
먹고 자긴 제 집이나
울고 우네 아닌상 하여.”

이상에 있어서 나의 처음의 좌우명이 인성·선성이 있기 때문에 메스껍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뱀들이야, 독사들이야!”하는 예수의 분노적 경고의 말을 모토로 살았음은 나에게 있어서 나라와 겨레-내가 사는 주위 환경에 대한 좀더 지향적이며 고무적인 보람에서 있었다. 그러나 그 뒤에 인용된 포도의 상황 끝부분에 가서 나는 모든 것에만 그만 체념적이며 심지어는 서글퍼졌다고 하였다. 그러한 나의 사념과 자연의 일치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간에 나는 최근 새로운 명시를 찾아내어 그것을 원곡(原谷) 감기승님의 휘호(揮毫)로 나의 좌우명을 삼고 지내느라고 한결 자위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생여범(人生如汎) 표표수무근(飄飄殊無根) 음탁득기허(飲啄得幾許) 영영신여혼(營營晨與昏) 대차춘일호(對此春日好) 하서출남원(荷鋤出南原) 근관초색부(近觀草色敷) 정청조어번(靜聽鳥語繁) 제유롱화본(諸有弄化本) 잡담정진원(雜沓望眞元) 효연사공아(曠然似供我) 영불도청준(寧不倒淸樽) 유신귀적득(有身貴適得) 궁달안족론(窮達安足論)”

청 나라의 시인 왕사정(호는 어양산인(漁洋山人))의 저 「어양시화(漁洋詩話)」속에 있는 글로서 역시 청나라의 일 촌농(村農)인 왕청신(王淸臣)이란 사람의 시인 것이다. 그것을 의역하면 다음과 같은 뜻이다.

“인생이란 나무 등걸 같아 이리저리 떠 다니는 것이므로 뿌리가 없다. 사 람의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얼마나 되는 것이기에 이른

생의旅程에서

생의旅程에서

새벽부터 저물도록 분주하라. 어느 날씨 좋은 날을 당하여 호미를 둘러 메고 언덕 계로 나서니 눈 가까이 보이는 풀들의 초색(草色)이야 드르르하고 가만히 들을 양이면 새들의 소리 요란하구나.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 본연의 자태를 부리어 여러 가지로 천연 외 진원(眞元)을 보이고 있고나. 그 같이 인간(나)에게 분명히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니 어찌 술잔을 기울여 흥을 돋우지 않으랴. 사람이 몸이 있으면 적의(適意)한 것이 귀할 따름이니 어찌 궁달(窮達)을 논리(論難)할 것이랴”

유유자적하는 수본분(守本分)의 사(詞)다. 나도 되도록 그러한 경지에서 살고 싶어진다. 그러한 대로 자적(自適)한 자가 본분의 생이 그림거니와 오늘날같이 모든 일에 있었 그것이 그것인 판국이요, 거의 대부분의 구제 받을 수 없는 족속들 틈바구니에서 아무리 악착하여 본들 소용이 없음을 나는 만각(晩覺)한 셈이다. 나의 서글픔과 체념을 달래어 주는 청나라의 한 촌농의 시는 그러한 나의 일상을 위무(慰撫)하여주는 사색의 끝이기도 하다.

“잘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모양의 인생이라도 좋다.”는 쇼팡의 말로 끝을 맺는다. (60·10·31)

인내의 길

손기정(孫基禎)



명백락(名伯樂)이 있어야만 명마(名馬)도 발견된다고 하지만 한국의 산변(山邊) 신의주에서 자라난 필자의 소질을 발견해 주신분은 초등학교 담임선생이었던 이일성(李一成)씨였다.

중앙인 서울에서 도(道)대항 육상경기대회라도 있으면 5000·10000미(米) 등에 평복을 대표해서 출전했던 이선생은 필자가 5학년때 달리기 선수로서의 소질이 있다고 느끼셨던지 필자에게 운동장에 나오도록 권고하였다. 방과후면 필자를 거느리시고 이선생은 신의주시의 교외를 돌았는데 필자는 당시 이것이 마라톤인줄 알았다.

그 뒤 트랙 경기에 전념하면서 기록도 차츰 좋아졌고 1931년 서울 운동장서 거행된 소위 조선신궁대회에 평복대표로 나와 5000미(米)를 달려서는 17분대로 입상도 하였다. 이 대회에 출전한 것이 필자의 운동을 크게 지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필자는 양정보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이 대회에서 김은배(金恩培) 선배가 마라톤에 세계신기록을 세운 것을 보고 경기의 가열할 백여리 길을 자연과 싸우면서 전 정력을 기울이는 그 모습이 숭고하다고까지 느껴졌다. 필자는 마라톤 선수로서 대성해 보려고 꿈꾸었다.

마라톤이라고 하면 강인함과 투지를 요구하며 또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스피드를 요구한다. 필자는 체질에 대해서는 강인하다고 자신하고 있었으나 스피드에는 자신이 없어 스피드 연습을 중거리부터 시작하였으며 전 조선 중학대항 육상경기대회에는 1600미(米) 속주(速走)의 양정대표선수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800, 1500, 5000, 10000미(米)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리를 늘어왔는데 10000미(米)를 32분대로 달리게 되자 북구 분란(芬蘭)을 육상왕국이라고 까지 불리도록 만든 「누무미」에 동경(憧憬)하기 시작하여 그를 능가하고 싶은 야심이 생겼다.

그러했던 무렵에 다행히 학비를 돌보아 주셨다던 특지(特志)가 있어서 그 분택(宅)에 기숙하면서 학업과 연습생활을 양립시키려니 물질적인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시간 및 자유에 대한 구속이 많아 상당한 고통을 느꼈으며 이 고통은 현재의 선수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것일 것이다.

당시의 본인의 연습과정을 보면 거의 매일같이 청와대의 뒷 산 삼각산을 오르내렸다. 이 코스를 언덕으로 삼고 호흡작용을 조절하고 스피드 양성을 하기 위해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이 언덕에서의 연습이 필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것이었으며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선수의 연습과정과 비교해 볼 때 합리적인 연습이었다는 자신을 더욱 갖게 되는 것이다.

그 무렵 도로연습은 매일 평균 8리 정도를 달렸고 1주일에 한번쯤은 15리를 달렸다. 이 연습량은 현금의 선수들이 생각할 때 적다고 느낄지도 모르나 삼각산을 오르내렸기 때문에 연습량에 부족은 없었다고 느끼며 효과는 많았다고 생각한다. 비가 오면 지금은 불타 없어졌지만 당시 서울 종로 2가에 있던 중앙기독교청년회관(YMCA)체육관 2층 관람석을 30분 내시 1시간 동안이나 달렸다.

그 당시의 그 관람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그 구조는 경사진 것이며 달리기 힘들었던 것이나 실내체육관이 없었던 그 무렵으로서는 하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의 육상경기, 특히 마라톤은 선배가 적었기 때문에 필자는 필자 자신의 기록과 대조해가면서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요사이 선수들은 때로 경주에서 실패하면 음식물을 타하기도 하나 필자는 이에 특히 신경을 기울였으며 경기일을 앞두고 친구가 영양분 있는 것을 먹으라고 직접 권할지언정 그것이 먹고 싶더라도 스스로 거절하고 자제했던 것이었으며 평균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때의 필자의 좋은 컨디션 속에서의 체중은 15관(貫)이었으며 15관이 넘으면 연습량 부족을 자인하여 연습에 열중하고 부족하면 지나치게 피로했다고 느껴 휴양을 가졌다.

이리하여 1933년 서울 운동장과 오류동을 왕복하는 현 코스에서

2시간 25분 14초의 기록을 내었다. 그 때에 마라톤 선수로서 2시간 20분대에 달린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필자의 기록은 세계신기록이 되고 1935년 일본 동경에서 거행된 백림(伯林) 올림픽 파견선수 1차 선발대회에서 (양정고4학년) 2시간 26분 42초의 기록을 세워 필자의 기록은 인정을 받게 되었다.

백림오투대회 마라톤 경주가 있던 그날 1936년 8월 9일을 수일 앞두고 필자의 심경은 착잡하였다. 국권없는 민족으로서 국제경기에 출전할 기회는 적다. 만난행고(萬難幸苦) 끝에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후까지 선수 수명을 연장하여 4년이란 세월이 얼마나 긴 것이며 그동안의 고역이 얼마나 심한 것이냐? 이와 같은 상념에 잠혔을 때 우승에의 야욕은 대단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강호들이 모인 이 마당에서 승리만을 목표로 경솔한 작전에 정력을 소비해 버릴 수는 없다. 이래서 필자는 목표를 필자 자신의 기록만을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제 페이스대로 견실하게 페이스를 운영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4년전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서 김은배 선배가 6위를 차지하였으니 그 이상의 등위만 차지하면 만족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경주 전날이 되니 역시 긴장은 대단하여 잠처럼 잠을 이룰 수 없어 자다가는 깨고 잤다가는 자고 하여 불과 3시간의 수면밖에는 취하지 못하였다.

마라톤 출발의 피스틀이 울리고 그날 경주서 3위를 차지했던 남승룡씨와 나란히 달리고 보니 전참가 선수 50명 가운데 중간위에 있었으며 우승을 목표로 하지 않겠다는 안이한 심리로 달리니 마치 시골 운동회에 참가한 듯 즐겁기까지도 하였다. 평소의 스피드로 달려 8킬로 지점에 이르니 벌써 낙오자가 속출하고 10킬로 지점서는 영국의 하퍼 선수와 나란히 서게 되고 앞에는 2명의 외국선수 밖에 없었다. 이대로 가면 최악의 경우 4위이고 앞 선수를 잡아 쫓으면 우승이라는 안이감(安易感)을 갖게 되니 제 스피드를 밟을 수 있었다. 10킬로 지점서 흑인 선수가 기권하여 2위가 되고 25킬로 지점서 우승후보라고 선전되던 알젠틴의 자바라 선수가 기권하며 필자는 하퍼와 1위에 서게 되니 비로소 여기서 우승을 위한 야망이 생겨 20킬로까지 하퍼와 견제전을 벌린다음 8분이나 걸리는 윌헬름 언더의 초입에서 하퍼를 잡아채치고 독주하여 올림픽 대회에서 최초의 20분대 기록을 수립하면서 우승하였다.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표창대에 올라 썼을 때 일장기가 올라가고 일본국가가 울리자 나라 없는 민족의 실움은 한없이 필자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으며 어떤 애국자에게도 못지 않는 안타까운 심정이 가슴을 뒤덮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표창대에 서지 않으리라 이러한 표창대에 내 후진을 세워 그들에게 내가 느꼈던 바 애국심 끓는 조국애를 느끼게 하리라고 결심하였던 것이다.

이상이 필자가 마라톤 세계제패를 할 때까지의 경과와 심정이었으며 이것이 스포츠맨십과 공통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스포츠맨십이란 규정된 룰 밑에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되 공정히 싸워야 하며 전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야 하며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승리를 거둬야 함을 말한다. 이 가운데는 투지와 인내가 크게 작용해야 함은 물론이요 이와 같은 스포츠맨십에 투철할 때 그 스포츠맨은 훌륭한 사회인이 되고 훌륭한 애국자가 되는 것이다.

필자의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필자는 그 스포츠맨십을 신조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내가 달렸던 마라톤을 통하여 한국의 모든 청소년을 애국자로 만들고 싶다.

이러한 뜻에서 최근 한국 마라톤이 침체했다는 그 사실을 슬프게 여기며 후진양성을 위해 최대의 힘을 기울이려고 신계획을 작성하며 협의중이다.

끝으로 우리 공군장병들도 진정한 스포츠맨십의 발양으로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가짐으로써 하늘에 날으고 최소한 월의 하늘을 제패해 주기 바란다.

철전팔기

김학서(金鶴瑞)



평안도 태생이요 평양생장(平壤生長)이지만 수심가(愁心歌)도 읊주도 못하는 위인이다. 장점이란면 고집이라고나 할까? 연구와 실험으로 평생을 살았으니 구변(口辯)도 문장도 소용이 없었고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다만 일개의 기술인으로 만족하였다. 지금은 더욱이 나이를 먹었으니 붓 들기가 어색하지만은 모처럼의 요청임으로 붓 들어가는대로 나의 금석(今昔)을 적어볼까 한다.

한학자의 집에서 태어났고 증조부때에 동학교도가 되었다. 나 역시 동학의 교화가 많았고 친신자인 어머니의 교화가 컸던 모양이다. 선친께서도 술선 식발하고 신교육을 받으셨다. 당시는 국운이 쇠퇴하여 가는 때이라 사방에 애국풍조가 팽일(彭溢)하여 애국사상이 고취되었으니 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애국일색이 되어 교육이 그것이고 듣는 것이 모두 그것이었다. 서당이 학교로 구학문이 신학문으로 바뀌어 산술, 지리, 역사를 배우고 애국서책을 공부하였는데 지금도 유년 필독이라는 책을 공부한 기억이 있다. 나도 소시(少時)에 기조가 있었든가 싶다. 5, 6세에 천자문을 필(驅)하고 8, 9세에 대학을 읽었다. 그러나 첫 구절이 기억에 남았을 뿐이다. 국체는 점점 기울어져 급기야는 일본과 합병이 되었으니 언칭(言稱) 합병이 나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다. 애국운동은 지하로 들어가

생의旅程에서

생의旅程에서

동학은 천도교로 개칭하여 교세확장에 힘을 쓰니 교도의 수는 일가월증(日加月增)으로 수백만의 교도가 교주의 일명(一命)하에 움직이는 통일적 종교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항상 일제(日帝)의 주목은 심(甚)하였으니 모든

중요지시는 신도에게서 신도로 인전(人傳)식으로 비밀을 보장기로 되었다. 그 종지(宗旨)를 신봉하여 보국안민하고 지상천국 건설의 목표를 향하여 변함 없는 생활을 하여 온 것이 나의 일생이다.

20세때(평고(平高)제학시) 3·1운동이 일어났으니 혈기의 청년이요. 동학신도인 나로서 몰실호기(勿失好機)라고 하고 일제의 주목을 위하여 주의에 주의를 가하여 공작한 것이 형세의 운전으로 일시 투옥이 되어 정세를 관망하니 투옥자는 증가 일로(一路)되고 형세는 점점 불리하였다. 심사숙고한 나머지 정치적 독립의 불가능함을 짐작하고 먼저 경제독립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 나의 급일을 가져오게 한 동기이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생산공업이란 보잘것이 없었고 완전히 일본의 시장이었으나 누가 보아도 색심(塞心)하였을 것이다. 이에 재이(再二) 재삼(再三) 숙고하여 선택한 것이 방직공업이었다. 인간생활에는 의, 식, 주 3자가 절대 필요함으로 그중 나의 성격과 역량을 보아 택한 것이니 이에 나의 일생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 얼마 후에 나는 방면이 되었다. 학교성적이 좋았다는 점과 미성년이라는 점과 교섭도 유효한 것이다. 익년에 경성고등공업학교 방직학과에 입학하니 이 또한 내 천직의 제2보가 되었다. 사실로 열심히 공부도 하였고 방학기간은 각 공장에서 실습으로 보내었다. 연한이 차서 졸업을 하였으나 자신이 부족함으로 취직하여 경험을 얻으려 하였으나 한국인으로 일인(日人)회사에는 용이치 못하여 고향인 평양에서 교원생활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이용하여 기술인 생활의 입문이었다. 비로소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절실히 느끼고 만사에 경험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로부터 나에게는 시간의 여유라고는 없었고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었다.

이같이 하기를 수년 드디어 의(意)를 결하여 관서지방 최초의 방직기(機)의 시설을 하였다. 물론 그 규모는 말할나위도 없이 적어서 불과 4대였으나 공장이 아니고 실험실이었다. 주인이요 기사요 직원이요 판매원 등 1인 100역으로 기반개척에 죽을 고생을 하였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개업 1년에 경기의 대공황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니 고생의 결과와 실패였다. 어찌 낙심이 안되고 후회인들 무(無)하였으리요. 겸하여 가족의 책임도 유(有)하였으니 진퇴양난이요 사실로 절망의 지경이었다. 그러나 다시 곰곰이 생각하니 남아 일단 결심하여 일생을 걸고 맹세한 바를 일시의 고난으로 중도이폐(中道而廢)는 가치 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어 가재(家財)를 정리하여 사력을 다하여 또 1년의 시련을 받으니 신도 유심인지 노력의 소생인지 다소의 효과도 보이고 물가도 안정되어 수요도 늘어감으로 안심과 용기를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 천(天)의 시련인가 하여 무한히 감사하였다. 금석(今昔)을 막론하고 상인이란 습관이 괴악(怪惡)하여 품질이 좋아도 외래품이 아니면 낮은 것으로 알고 없는 흠도 골라서 탓을 하는 것이다. 부득이 염가(廉價)로 외상을 주었던 것이다.

어느 나라이고 외래품을 좋아하지 않겠는가만은 유독 우리나라 사람이 심한 것 같이 생각된다. 물론 생산이 없는 나라 국민이니 무리도 아닐 것이고 사대사상의 유물인지도 모르겠다. 부득이 상술을 고치었으니 즉 세로 세 물건을 만들어 수요가(需要家)의 인기를 끌어 보았다. 과연 적중하여 수요자의 요구이니 상인인들 별 도리가 없는 모양이어서 자신 요구하게 되었으니 나 역시 언제까지나 가격을 인상하여 일산(日産)을 지나치었으나 역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지(收支)의 균형을 얻게되어 매년 증설로 10년을 지나니 최신 직기(織機) 50대를 가지게 되고 공장도 규모가 잡히고 관서일대에 소문이 평강하여 민족자본의 활발한 활동으로 영변, 개천(价川), 안주, 진남포 등 각지에 공장이 진출(簇出)하여 일대 상황을 이루니 업계의 대발전을 보게 되었으니 사실 통쾌 무쌍한 일이었고 평생을 통한 유희사(愉快事)의 하나이었다.

사업이 이같이 발전을 하게 되니까 눈치빠른 은행에서는 대부도 잘 주어 불소(不少)한 용자를 하였고 신용도 잘 주어 불소한 용자를 하였고 신용도 착실하여졌다. 이같이 순조로히 나가든 차(次)에 중일사변(中日事變)이 터지니 국가재정이 곤란하여지고 긴축정책으로 인하여 경기는 악화되고 은행은 회수정책이라 특히 우리 민족에 대하여는 심하여서 부득이 정리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제1차 실패이다.

국내정세가 이같이 풀이 보기 싫고 머물러 있기조차 싫어져 중국을 시찰하기 수차에 드디어 도중(渡中)을 결(決)하고 소비도시 북경을 목표로 기허(幾許)의 기계를 준비하여 가지고 출발하니 이것이 북경시대의 대아직포공장(大亞織布工廠)의 발족인 것이다. 물론 외국이라 미리부터 고생을 각오한 바이었으니 1년간은 형언할 수 없는 고생을 겪었다. 언어 풍속이 판이하고 사고무친한 이역(異域)에다가 지금까지의 우리 사람들이 신용을 상실하였으므로 경원(敬遠)함을 받고 가족(家屬)의 대가가 여간 난사(難事)가 아니었다. 그리고 소위 '만만적'에는 기가 질리었다. 생산시설이 없는 곳에서 시설하기란 막대한 곤란이었다. 부속품을 한가지 구하려 하여도 만들어야되니 10일도 20일도 걸리는 것이다. 이야말로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격이고 언어가 부자유 한테다가 성미는 급하고 시설은 진진부진(進進不振)이니 기막힐 지경이었다. 더욱이 한정된 자금이니 시일이 갈수록 곤란할 것임으로 조금씩 서두르지만은 별도로리가 없는 것이다. 무리한 고역을 하면서도 겨우 안남미(安南米) 밥으로 연명을 하여야 되었으니 북경이 좋은 곳이라하나 무전(無錢)이면 비참하기 짝이 없는 곳이다. 그럭저럭 1년의 고역을 치르고 나니 시설이 완비되고 숙련공도 본국에서 초빙케 되어 서로 말도 하고 웃기도 하며 작업도 매일 조금씩 진섭(進涉)이 되어 제법 일하는

기본도 나고 사업의 형태도 잡히는 절차로 자신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중국 형편도 알아감으로 손짓 눈짓으로 상거래가 성립하고 영업의 기초가 서니 중국인 친구도 사귀게 되었다. 만사에 신용이 제1이라 신용을 지키고 성의를 다하면 반드시 되는 것이었다. 그 후 1년에 확고한 기반을 닦으니 어느덧 북경 유일의 신용공장으로 호칭하니 비로소 고생의 보람이 나고 고진감래란 고언을 생각해 되었으며 이래 7년에 사업은 순조로이 진전되어서 불편이 없는 생활을 하였고 중국인 친구도 생겼으니 사실로 평화롭고 자미(滋味)있는 생활이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며 이따금 그리워지기도 한다.

그러다가 8·15 해방을 만나 환희에 찬 마음으로 조국의 전도를 생각하고 장래의 계획을 하고 있을 즈음에 중경정부관리(重慶政府官吏)가 오고 군대가 진주하니 정세는 일변하여 전과는 정반대로 흥진비래(興振悲來)인 지 사회는 불안하여지고 일인(日人) 기업체는 물론이지만은 우리 민족의 시업제도 접수라는 명칭(名稱)하에 서로들 먹으려 드는 것이다. 독립 후 반환한다는 구실이나 물론 구약(口約)이니 알바 유(有)하리요 고생을 하고나니 하루 속히 해방된 조국이 그리웠으니 이것으로 섭섭한 마음을 다소 덜었든 것이다. 그리하여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용약(勇躍) 귀국한 것이다. 막상 귀국이 되고 보니 국토는 양단(兩斷)이요 정세는 복잡다단(複雜多端)하여 모두가 영웅이요 정치가요 사업가라 나 같은 순(純) 기술인으로서는 아연(啞然)치 않을 수가 무(無)하였다. 할 수 없이 사태를 정관(靜觀)키로 결정하고 시기를 기다리던 중 경방(京紡)의 요청으로 기술지도의 임(任)을 맡고 정세를 살피다가 1년 후 동임(同仁)을 사(辭)하고 의(意)를 결하여 본연의 목표를 향하여 출발한 것이 본 공사의 발족이다.

여러 친지의 요청도 있었고 상공부 미인(美人) 고문의 적산관리(敵產管理) 호의도 유하였으나 도시(都是) 나의 소원이 아니므로 당국의 후원을 얻어 유희폐기의 불하를 받아 공장건설에 착수하여 만 2년의 시일과 노력으로 완성을 보게 되어 작업을 시작하니 약 반년을 요(要)하여 거의 전운전(全運轉)을 할 무렵에 불의의 6·25 전변이 돌발하였으니 계획이 수포(水泡)화 됨은 물론 겨우 인명을 보전하고 있는 동안에 9·28 수복(收復)으로 다시 전력으로 수리(修理) 재건(再建)하여 작업개시단계에서 또다시 1·4후퇴의 비운으로 줄지에 남하하니 실패는 물론이요 속수무책이니 사실로 전도가 캄캄하였다. 그러나 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이라고 사람은 꼭 죽으라는 법은 없어서 요행히 각 방면의 후원으로 다시 부산에서 소규모의 막대소공장경영(莫大小工場經營)으로 4년의 시일을 경하여 정부환도와 동시에 복귀하니 가재와 시설일체가 오유(烏有)에 귀하였다. 이 도시 천운이라 누구를 원(怨)하리요 다시 금융기관의 호의로 재건에 착수하여 금일에 지(至)하니 이것이 나의 일생을 통한 4차의 재기가 되는 셈이다. 즉 3차 실패, 4차 재기라는 나의 역사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체로서는 언제나 성공하였다. 다만 국운에 따라 실패되었다고 본다.

아직 용기는 여전히 자신도 만만하다. 재부시(在釜時) 발주하였던 최신식기계의 도입으로 수복 후 아국(我國) 최초로 양단연구(洋緞研究)에 성공하여 일산(日産)을 구축하였고 다시 향항(香港) 양단(洋緞)을 연구하여 그를 방지함으로써 민족자본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하여 각 지방에 전직공장의 진출을 보아 현재에는 우수한 국산으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외화획득을 위하여 해외진출단계에 이르렀고 본 공사에서는 출신하여 미군에 납품하여 미군내의 일산(日産)을 구축(驅逐)중이며 미국에도 수출하여 성과를 올렸으나 원체 일본이란 강적과 대항하게 됨으로 당국의 적극보호책이 요청되는 바이다.

그 외에 사진기를 생산하여 외화를 얻었고 최근에는 신흥기업인 자수(刺繡)직물(일명 레이스)이 외화획득에 가장 적합함을 알게 되어 위선(爲先) 1대 도입으로 기술자 및 기술공의 양성을 필(畢)하고 그의 증강을 예의(銳意) 연구 중이나 외화난으로 목적미달이나 오직 노력과 인내로써 목적달성을 기하여 초지(初志)를 완성하는 동시에 국가민족에게 위헌하기를 맹서하는 바이다.

요컨대 나의 일생은 다난한 일생이었고 고난의 일생이라고 보겠으나 일면 생각하면 아직 미완성의 건이었기는 하지만 일제(日帝)시 일산품(日産品)을 대항하였고 독립 후 외래 양하를 구축하였으며 3차로 사진직과 자수직물로 외래품을 대항하였으니 노력과 고생의 대가를 얻었다고 자위되는 바이다. 그러나 아직 용기와 기력이 남았으니 최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결심이며 앞으로 완성되리라 자신함으로 기후(其後)의 한일월(閑日月)을 기다리고 국운의 융성을 빌 뿐이다.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은 고성(古聖)의 교훈이니 우리는 최선을 다한 후에 성공을 기다림이 정도인가 한다.

<나의 신조>

목표를 세웠거든 변치 말고 연구. 노력. 인내, 만난(萬難)을 극복하고 초지관철 한다. 낙망은 금물,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용왕(勇往) 매진(邁進)하며 국가민족을 본위로 성공을 기한다.

(필자·대아산업공사 사장)

높이고 높임받자
서로지닌 사람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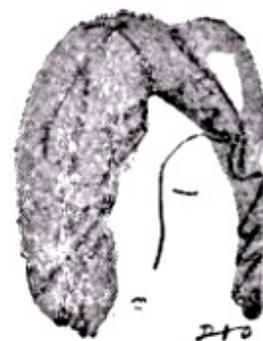
(인권옹호 표어)

生의旅程에서

특집

주체의식과 행동

- ◇혁명의 주체성을 확립하라,
- ◇자기 상실의 종착점
- ◇군인과 행동
- ◇생산적사고와 창의적행동
- ◇행동이란 무엇인가?





혁명의 주체성을 확립하자

-국민이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홍승면(洪承勉)

1. 국민혁명의 의의

정권의 전복이 반드시 혁명인 것은 아니다. 혁명의 중심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혁명에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으나 정치혁명을 기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 개혁이 실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혁명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참다운 혁명은 정치혁명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철저히 변혁하는 사회혁명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혁명은 경제적 기술적인 혁명이나 정신적 문화적인 혁명을 총괄한 전체적인 혁명이다. 혁명이 이러한 사회혁명으로서 성공한 경우에만 사회는 새로운 시대와 단계로 발전하여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사회혁명이 완전히 달성되려면 일정한 시간을 소요한다. 정치혁명뿐만 아니라 종래의 사회가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변혁되려면 구(舊)체제의 파괴를 목표로 삼는 격변기에 뒤이어 신(新)체제의 형식을 목표로 삼는 건설의 시기가 와야만 한다. 일시적이고 돌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정권변동만이 혁명인 것은 아니다.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신체제의 건설이 오히려 혁명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 이러한 혁명의 과정에서는 한편에는 구체제의 잔존물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신체제의 창조물이 있어서 서로 모순하고 대립하고 상극하면서 병존하는 과도기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 혁명의 성공은 구체제에게 부활의 힘이 없으며 신체제의 힘이 모든 면에서 구체제를 압도할 수 있도록 성숙하였을 때 보장된다.

그러나 왕왕 혁명의 일시 승리에 뒤이어 반동 또는 반혁명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혁명은 파괴의 시기보다는 건설의 시기에서 실패하기가 쉽다. 파괴가 지나치고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공상적 변혁이 실행되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제와 구체제인사들을 순시(瞬時)에 일소(一掃)한다는 것도 곤란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격의 힘이 남아있는 경우도 적지가 않다. 이러한 반격의 힘은 현실을 무시한 혁명 지도자의 과격한 변혁이 일반 대중의 불신을 사게 될 기회를 기다리고 엿보고 있다. 구체제의 힘이 아직 강하고 신체제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가 박약할 때는 혁명적 변혁의 달성을 방해하려는 반혁명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① 혁명이 단순한 정치혁명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사회의 모든 면을 재편성할 역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다시 말하면 사회혁명으로 성공하기에는 이르지 않았을 경우에 반혁명의 반격을 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② 혁명적 행동이 현실을 무시하고 공상적 과격주의에 흘려서 건설의 준비가 없는 경우에도 혁명은 반혁명의 반격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혁명의 힘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의 혁명과 내부로부터의 혁명과 또한 위로부터의 혁명과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혁명의 여러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현실적인 혁명 의욕이 혁명과 어떻게 결부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이것은 관건을 쥐고 있는 문제이다.

외부로부터의 혁명과 위로부터의 혁명은 말하자면 강요된 혁명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국민의 현실적인 혁명 의욕이 발휘되어 추진되는 혁명이 바로 내부로부터의 혁명이고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다. 내부로부터의 혁명이고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경우에 혁명의 힘은 강하다. 어떠한 혁명이라도 혁명의 힘이 강대해지고 혁명이 성공하려면 내부로부터의 혁명과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국민혁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혁명의 성패는 국민의 혁명 에너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혁명지도자와 국민과의 사이에 혁명 의욕에 있어서 단절이 있어서는 혁명의 성공을 기할 수 없다. 불란서(불란서(佛蘭西)[프랑스]혁명이나 미국혁명(독립)은 국민혁명이었다. 국민 전체에서 우리나라 오는 거대한 혁명 에너지가 구체제를 분쇄하였다. 그것은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변혁을 일으켰고 귀족적 문화를 시민적 문화로 대체하였고 봉건적 의식을 민주주의적 의식으로 대체하였고 중세적인 신분사회를 해체하고 자본주의경제와 시민정신을 확립하였다.

2. 혁명의 주인공

국민혁명에서 국민은 혁명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다. 상공을 나는 제트기 편대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국민이 혁명을 방관하고 있다면 국민혁명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혁명이 국민에서 유리(遊離)하여 국민을 뒤에 두고 독주하여서도 안될 것이며 혁명은 국민간에 침투하여 국민을 일으키고 국민으로 하여금 방관자가 아니라 혁명대열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자신임을 알게 하여야만 혁명은 든든하게 추진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후진국의 혁명의 경우는 국민의 의식수준이 문제가 된다. 인습과 인종(忍從)이 몸에 배인 국민의 대부분에게는 구체제를 배반하고 파괴하고 신체제를 창조하고 건설하는 의욕이나 지식이 결핍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촌사회에 있어서는 고정적이고 전통적인 생활양식속에서 공동체적 의식이 뿌리깊고 등질적(等質的)인 인간이 형식되어 있기에 사람이 몰주체적이며 배반과 회의(懷疑)를 가지기가 어렵다. 후진국의 혁명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국민의 몰주체성이며 여기에 후진국의 혁명이 위로부터의 혁명에 그치고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

따라서 후진국의 혁명에서는

① 혁명지도부가 지도체인 동시에 주체세력인 경향이 있다. 혁명의 주체가 수적으로는 극소수라는 사실은 혁명을 국민간에 침투시키는데 장애가 된다.

② 혁명이 국민간에 충분히 침투되지 않을 경우에는 혁명지도부와 국민과의 사이에 혁명을 추진하고 신체제를 건설하는 의욕에 있어서 단절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국민이 혁명의 방관자 또는 강요된 추종자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③ 혁명이 국민간에 침투되어 국민의 거대한 혁명 에너지가 동원되고 발휘되는 경우는 이러한 혁명 에너지가 반혁명을 압도할 수 있고 분쇄할 수 있고 때로는 동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혁명의 추진이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④ 혁명이 국민간에 침투되기 위해서는 선전과 계몽과 조직이 중요시된다. 선전과 계몽은 혁명의 필요성을 국민으로 하여금 충분히 인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물론이지만 구체제에 대한 비난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에게 신체제가 공급할 희망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 또한 아래로부터 위로 쌓아 올리는 조직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⑤ 그러나 선전과 계몽과 조직이 혁명을 국민간에 침투시킬 성패는 혁명 그 자체가 국민의 현실적 욕구에 어느 정도로 호소할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혁명의 기본이념과 프로그램이 문제가 된다. 이상은 혁명-특히 혁명의 주체라는 문제를 일반적으로 논한 것이나 5·16군사혁명을 맞은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5·16군사혁명도 혁명주체의 폭이 확대되어 국민간에 혁명정신이 침투되고 국민간에 혁명 의욕이 고양됨으로써 국민의 거대한 혁명 에너지가 발휘되는 진정한 국민혁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민이 스스로가 혁명의 주인공임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강요되는 혁명이 아니라 국민에 의하여 추진되는 혁명에서 우리는 거대한 혁명 에너지를 동원할 수가 있고 미래를 개척하고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은 혁명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부패와 구약의 일소(一掃)는 물론이고 경제건설이 국민의 참가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국민은 혁명의 협력자가 되어서도 안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혁명의 주인공되고 추진자되고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국민이 혁명에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될 때 국민의 거대한 혁명 에너지는 발휘될 것이며 5·16군사혁명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필자·한국일보편집국장)

-15면에서-

왔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기 본질을 찾는 일은 자기 상실의 인간이 자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해 온데는 자연과 거기에서 힘을 가해서 얻는 생산 때문일 것이다. 근로(勤勞)라는 것은 옛날에는 천한 것으로 여겨왔고 신분이 낮은 사람만이 하는 일이라고 여겨왔다. 우리 말에도 일한다고 할 때 일이란 그 뜻이 넓어서 육체노동에 국한되지 않으나 근로를 뜻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은 일이다. 일하는 사람-근로인이 현대인의 방향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상실에서 자기 회복을 기하려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는 폭력사회도 공산주의의 비인문적 사회와도 결코 같은 것일 수는 없다. 그러한 사회는 근로의 본질이 자유라는 것을 망각하고 강제노동 수용소화(化)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옛말에 '노동은 예술이다'라는 격언을 상기하고 그러한 경지에 이를 때 자기상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제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근면한 사람이야말로 새 시대의 인간상(人間像)이며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새 시대의 유토피아인 것이다.

오늘날 후진국들은 빈곤으로 허덕이고 있다. 이 경제적 빈곤에서 해방됨이 없이는 민주주의도 자유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적 인간이 게으르고 불로소득하려는 부정축재족과 대체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꾸준히 일하고 일할 때 비로소 인간의 자기 회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서독에 있어서의 라인강의 기적도 그 국민들의 재건의욕과 근로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생산하는 인간이 되어 후진성을 극복하고 재건 조국에 헌신할 때 자기 상실의 종착점에서 벗어나 파멸대신에 영광과 행복과 번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고대 강사>

자기상실의 종착점 -근로하는 생산적 인간의 휴머니즘-

신일철(申一澈)



1.

현대는 자기상실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말마저 뜻을 잃고 탈색되어 가는 느낌이다. 자기상실이란 나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어디로 가나? 하는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제츠와 맘보와 빈곤과 메커니즘에 휩쓸려 괴물과 같은 현대사회의 톱니바퀴에 끼워 '나라는 것이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삶의 지표를 영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다.

근대 정신사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한 데카르트 이래로 자아의 자각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제1차 제2차 대전을 겪는 동안에 현대인의 마음속에서 자아를 추방하고 취생몽사하는 무리, 사람떼로 타락시켜 버렸으나 역사는 확실히 전환기에 이르러 낡은 사회 질서가 이제는 현대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정치제도만을 받아들이면 그만이오 그 정신적 토대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정치형식도 그것을 영위하는 인간들의 정신적 기초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고 서구정신의 뿌리가 흔들리는 이 니히리즘의 암야(暗夜)에 새로운 질서를 위한 새로운 정신적 근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형식의 배후에는 인간이 있으며 그 인간들이 삶의 길잡이로 삼는 시대정신이 밀받침되어 있으므로 사상누각(沙上樓閣)식으로 아무리 찬란한 명주 보자기를 썩은 민주주의라는 박래품(舶來品)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에토스(ethos)를 아울러 유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여기에 서구 민주정치의 정신적 주주(主柱)가 되는 사상이 흔들리게 된 연유를 고찰하고 자기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실존철학의 대표자를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인간을 세계의 이방인으로 보고 고향을 상실했다는 것이 세계의 운명이 되고 있다고 했던 것이다. 이는 이른바 마음의 고향을 상실하고 자기를 잃고 좌왕우왕하는 정신적 방랑자, 혹은 성격파탄자, 정신병자가 곧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릴케(Rainer Maria Rilke)같은 시인은

지금 집을 짓지 않는 자에게는 집은 없을 것이다.

지금 고독한 자는 언제나 고독할 것이다.

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잃어버리면 세계를 잃은 것이오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통틀어 인간의 자기소외라고 한다. 즉 인간의 비인간화를 말하는 것이다. 자기소외란 '나라는 또렷한 자각이 없이 막연한 군중속에 자기를 해소시켜 버린 상태이며 장터에서 장꾼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상태인 것이다. 즉 인간이 자기자신임을 그만두고 자기를 제자신 속에서 빼버린 '나는 내버리고 태만 기른 아이' 같은 일간이가 된 것이 곧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카프카(Kafka)라는 소설가는 인간이 커다란 버려지가 되어 꿈틀거리다가 죽는 이야기를 변신에서 썼고 '심판'상의 주인공들은 완전히 인격성을 상실하고 단순한 가면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자아를 상실한 인간은 이름을 못가진 것이라고 해서 익명으로 마저 표시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인간의 위기이며 병든 현대사회의 종말을 알리는 윤리적 무질서일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과연 이 프로메테우스 같은 현대인의 정신을 무엇을 가지고 규율해야 할 것인가? 현대는 믿음을 상실한 시대라고 하며 그러므로 종교라는 낡은 도구를 가지고 인공위성시대의 과학인을 납득시킬 수 없으며 그들의 생활신조의 기초를 줄 수도 없을 것이다. 새로운 윤리를 밀받침해 줄 가치, 종교적 신념을 새로 창조해야 함을 절실히 요구하면서도 그것을 못가진 무질서의 시대가 오늘의 니히리즘인 것이다. 카뮈(Albert Camus)가 이미 부조리라는 용어를 통해서 오늘날의 인간들은 인생의 뜻을 찾을 수 없는 세계에서 그것을 찾으려는 배리(背理)이것이 부조리라고 했던 것이다. 인생이 부조리하다면 살만한 의미나 이유를 찾지 못했으므로 자살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헤매는 인간들은 자연히 데카당스에 떨어지게 되고 책임감도 희망도 이상도 없는 허수아비가 되어 버린다.

또한 현대인은 자유를 입에 많이들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사르트르(Jean-Paul Sartre)는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에 처형되어 있다'고 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은 자유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며 자유라는 것은

원래 자기가 제멋대로 결정해서 살아가는 자율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대개 사람들은 남이 하라는 대로 추종하며 사는 태도를 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자발성, 자기의 의욕을 못가진 인간은 곧 자유를 포기한 인간이며 노예화를 스스로가 택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책임이라는 중하를 가진 자유를 벗어버리고 노예의 길로 타락하고 있다고 한 것이 사르트르의 경고이다.

결국 자유의 포기는 자기상실에서 오는 것이다. 정치면에서 보더라도 정치라는 것은 원래가 권력과 무자비만을 유용한 수단으로 하는 영역임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 놓는 악마적인 힘과 계약을 맺는 터이다'라고 막스 베버(Max Weber)는 정치의 윤리적 비합리성을 간파한 것이다. 오늘날 정치는 인간의 위기와 아울러 윤리를 상실하고 권력정치로 화(化)했으며 이면에 있어서도 인간의 자기소외가 심해졌다고 하겠다. 윤리가 흔들렸다는 것은 곧 정치사회가 그 내적인 혈액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와 공공도덕에 대한 사람들의 진정한 관심은 살아지고 그 법적 질서에 대한 마음속으로부터의 존경심도 없어지는 것이다. 원래 정치란 민중과 지도자와의 이중주인 것이다. 그것을 오만한 독재적 지도자들은 민중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정을 요리하게 되어 민중은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현대인의 자기상실은 인간을 무관심한 동물로 타락시키며 자기가 가담한 사회나 집단속에서 스스로가 참여한 행위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2.

과연 현대인들 중에서 제 행위의 잡다운 의미를 알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 몇 명이나 되는가?

뉴욕타임스 기자 조지·바레트의 「한국전 중군군인의 초상」(George Barrett, "Portrait of the Korean Veteran" the New York Times Magazine Aug 9, 1953)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전에 중군하고 귀국한 미국인들의 태도를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보고를 했다. 즉 제대된 병사는 한국에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주위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군대내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전우들은 자기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친구라는 감정이 결(缺)해있고 분열된 상태를 폭로하고 있다. 병사는 전쟁을 이해할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왜 자기가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가를 모른다. 이 전쟁에 관여한 이유를 자문해본다면 '발길에 채운 뽕 신세지 뭐야' 정도라는 것이다. 그 후 한국서 51일간 야간 전투를 한 한 중위는 "아마도 전쟁이 이제까지 없었던 정도로 비정한 것이 되어 그런지도 모르고 또한 한국에서는 유럽의 상공에서 전투했을 때에는 도시도 보이고 빛도 보이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밤에 비행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지요, 갑자기 나도 고독하다는 느낌이 절박해움을 느끼고 나도 모르게 도대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중얼거렸지요"라고 말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전쟁하는 인간은 자기의 행동에 대한 목적과 의의를 또렷이 인식하고 총한방 놓는데도 내가 왜 싸우느냐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는다. 그러나 과연 전쟁의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진정으로 싸우는 병사는 얼마나 될 것인가?

현대에는 전쟁에도 자기소외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상실의 낯빠진 병사들을 모아 몇백만이 되어도 그 무슨 쓸모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상전이라는 말이 있으며 현대심리작전이라는 말이 있다. 허나 작전보다 이전에 전 사회의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심오한 문제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이렇게 말하면 옛날에는0애국청년들이 조국수호를 위해 자기를 고귀하게 희생한다고 생각했으나 오늘날에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므로 자유수호를 말해야 하며 민주주의의 수호를 제창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의 위기는 자기상실을 통한 비인간화를 조장하게 되어 공동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해체시키는 사회 또는 국가의 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들이 서로 무관심해지고 분리, 불화, 파괴, 폭력에 떨어지는 현상은 인간들이 한뜻으로 모이는 공동의 광장을 잃었기 때문일 것이며 공동체가 없는 사회에서 살기 때문인 것이다. 개개의 인간은 고귀한 것이나 공동체 속에서 살지 않으면 이기심의 성장을 통해서 홉스(Hobbes)의 이른바 이리떼로 화(化)해 버리면 만인(萬人)대 만인의 싸움으로 타락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게젤샤프트(Gesellschaft) 즉 이익사회가 가지는 병리이며 이기심만을 조장하는 이러한 사회내에서는 부정, 부패 등이 생기며 인간의 비인간화가 이룩되는 것이다.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개인만이 활개를 펴게 되고 따라서 황금만능의 사회풍조는 인간의 상품화를 통해서 인간을 돈으로 교환하는 이른바 인간의 비인간화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권력사회에서는 인간을 권력 행사수단으로 보며 폭력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거기서 황금과 폭력이 인간 이상의 것으로 숭배된 틈에 상실된 것은 인간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인간의 자기 상실은 현대사회의 인간상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다 뜻을 같이하고 살 수 있는 공동의 광장을 마련하고 그러한 사회화된 자유 위에서 공동체를 구성해야 하며 각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살 수 있는 자질과 습성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오늘날 막연하나마 휴머니즘이라고 한다. 우리는 모든 가치의 근원을 인간에 두며 모든 정치적 판단의 기초를 민중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다시 발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내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더불어 항상 문제되어

(13면에 계속)

군인과 행동

- 그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

김종문(金宗文)



군대는 인간의 집단임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수 없는 집단이 있고 집단마다 행동적 공간, 행동적 시간, 행동적 목표, 조직적 관계,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서 및 심리적 관계에 있어서 그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집단이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체로 여섯가지의 조건을 지니게 마련이다.

즉 집단이란 (1) 일정한 장소 또는 지역(행동적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2) 일정한 기간(행동적 시간), (3) 어떤 공통된 목표(행동적 목표)를 향하여, (4) 그 행동을 하나의 조직 (조직적 관계)으로서 편성하고 성원중에서는 그 역할에 적합한 지위를 부여하고, (5) 그 성원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상호간의 욕구 사상 감정을 교환하는 시스템(커뮤니케이션 관계)을 유지하며, (6) 성원간에서는 친밀의 심리적 관계가 생겨진다.

이 여섯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집단은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행동적 공간(장소 지역) 면에서 집단을 분류해 보면, (1) 가족집단 (2) 부락 또는 인근, (3) 학교, 사회직장, (4) 위에서 말한 집단을 포함한 면, 읍 또는 도시처럼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집단이 있다. 집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사회이며 사회는 제각기의 기능을 지닌 수 많은 집단관계를 맺고 전체로서 하나의 큰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라는 전체사회 중에서 제각기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도시, 읍, 면과 같은 지역사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둘째로 행동적 시간 면에서 집단을 분류해 보면 일시적 집단과 영구적 집단이 있다.

일시적 집단이란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재해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처럼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되는 집단을 말한다. 한편 영구적 집단이란 것은 학교라던가 국가처럼 원칙적으로 영속하는 집단을 말한다.

셋째로 행동적 목표면에서 집단을 분류해 보면 이익적 집단과 공동적 집단이 있다. 이익적 집단이란 것은 그 성원이(이윤의 취득의 차가 있을지언정)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말하며 공동적 집단이란 것은 그 성원이 이해를 떠나 일상생활과 생활감정이 공통되어 있는 집단을 말한다.

넷째로 조직적 관계면에서 집단을 분류해 보면 통제적 집단과 비통제적 집단이 있다. 학교, 사회, 국가와 같은 집단의 성원이 그 집단에서 결정된 규칙과 약속을 직접적으로 강제되던가 또는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그것을 통제적 집단이라고 말하며 그와는 반대로 규칙이나 약속이 전연 없는 군중과 같은 집단을 비통제 집단이라고 말한다.

조직적 관계를 좀 더 분명히 구분한다면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아메리카의 포멀(Formal) 오가니제이션(Organization)과 인포멀(Informal) 오가니제이션(Organization)에 해당한다. 어떤 직장에 열 사람의 종업원이 있는 경우 이 열사람의 집단은 그 직장의 공적인 규칙이 정한 지위와 역할의 조직적 관계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이는 공적 조직의 집단을 말한다. 그러나 그 열 사람이 그 직장 밖에서 리크레이션이나 유흥을 할 때는 사적 조직의 집단이 되어 버리며 공적 조직에 있어서와 같은 역할과 지위는 사라지고 만다. 아메리카의 증산운동에 있어서 공적 조직과 사적 조직의 거리를 좁히려는 의도가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친구나 동료간의 사적 조직은 공동적이며 서로 협조 협력할 수 있는 까닭에 증산에 있어서는 사적 조직의 모델을 그대로 공적인 직장에서 이루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생각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의 가족제도에 의한 사적 조직이 그대로 공적 조직, 예를 들면 과거의 관청, 사회의 인사에 옮겨짐으로써 가져왔던 사회적 영향이다. 이런 경향은 아직도 청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한국의 이런 상태는 아메리카의 경우와는 반대로 사적 조직과 공적 조직의 관련성을 어떻게 다를 것인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의 커뮤니케이션 관계면에서 집단을 분류해 보면 하나는 개인적인 회화나 전화를 통해서 결부되는 퍼스널 커뮤니케이션(Personal Communication)에 의한 집단이요 또 하나는 신문, 라디오, 영화와 같은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을 통해서 결부되는 집단, 예를들면 독자층, 관객층이 있다.

여섯째의 실리적 관계는 이상과 같은 조건을 띠고 있으면서 그 조건 하나 하나가 성원간의 심리적인 교섭에 반영해서 그 집단에 특유한 심리관계가 성원간에 생겨진다.

예를 들면 이익적인 요소가 강한 집단에서는 성원간의 심리적인 결합은 약해지며 타산의식이 강해진다. 한편 공동적인 요소가 강한 집단에서는 동의적, 연대적인 의식이 강해지며 배타적인 경향을 띄우기 쉽다.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성원의 행동은 반드시 그 소속 집단에서 통용되는 규준에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집단의 규준(規準)에 따르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회행동을 하는 경우 그 행동에 규준을 부여하는 규준집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불효자는 나쁜 놈이라 생각하는 사람의 규준집단은 친구 그룹이다. 하나의 인간은 하나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 규준집단을 가지고 있다. 봉건사회에 있어서는 규준집단은 권력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양반은 양반대로의, 상놈은 상놈대로의 그 신분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만 했었으며 그 외의 규준을 따라서는 아니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하나의 인간이 매우 모순된 상반된 규준집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가족·친구·그룹·학교는 같은 문제에 관해서 매우 판이한 규준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 어느 것을 따라야 할는지 당황 하는 일이 많다.

현대의 고민은 모순된 상반된 규준 집단이 증가하는 까닭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을 따를까에 대한 선택의 고민이요, 이는 커다란 심리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이 제공하는 문학작품 영화, 라디오, 드라마 속에서 전개되는 행동이나 모랄은 무명의 규준집단이라 말할 수 있을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간통에 취급되는 성행동의 규준은 가정이나 학교의 규준집단에 통용되는 규준과 교대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무명의 규준집단이 제공하는 언어나 관념이 기성의 규준집단과 교대하며 인간의 사회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군대는 어떤 조건을 띠고 있는 집단일까.

첫째로 군대는 행동적 공간에 있어서는 국가적 집단이며

둘째로 군대는 행동적 시간에 있어서는 영구적 집단이며

셋째로 군대는 행동적 목표에 있어서는 공동적 집단이며

넷째로 군대는 조직적 관계에 있어서는 통제적 집단이며

다섯째로 군대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는 퍼스널 커뮤니케이션과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집단이며,

여섯째로 군대는 심리적 관계에 있어서는 연대적 집단이다.

군대-군인은 그 행동에 있어서의 국가성, 영구성, 공동성, 통제성, 소통성, 연대성에서 그 가치성을 찾아야 함은 물론이다.

군대의 국가성이란 무엇일까.

국가없는 군대는 있을 수 없고 동시에 군대 없는 국가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국가 권위는 즉 군대 권위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군대의 특권이란 말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군대는 국가의 운명과 같이 한다는 명예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군인의 긍지와 이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군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있고 나서 국가가 있지 않고 국가가 있고 나서 자기가 있을 뿐이다. 군인은 절대로 월급쟁이나 장사꾼이 아니다. 국가의 명령 앞에 아무런 주저도 회피도 없이 자기의 생활 자기의 행복을 희생하는 거룩한 존재이다. 특히 군인의 일거일동이 국가의 운명이나 미래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척도이며 이는 유사시에 있어서 예민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 군대의 영구성이란 무엇일까.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국가 없는 군대는 있을 수 없고, 군대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영원하며 군대도 영원하다.

그리고 유명용사의 탑보다는 무명용사의 탑이 영원하다. 왜냐하면 무명용사는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밀사 봉공, 즉 자기를 희생시켜 국가에 이바지한 이롭없는 용사들이기 때문이다.

용사는 국가의 영원을 바라고 있으며 그런 용사를 선배로 삼는 전통 위에 서 있는 군대는 영구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 군대의 공동성이란 무엇일까.

군대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과는 달리 국가권위를 그 권위로 삼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 성원 간에 이해 관계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를 적으로부터 수호하는 공동목표 아래 단결된 동지적인 결합체이다.

그러므로 군대는 어떤 자본가나 어떤 정치인의 앞장을 설 수 없고 오로지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함은 물론이다. 이 말을 분명히 해본다면 과거의 몇몇 군인이 어떤 정당과 어떤 종류의 관련을 가졌을 때 이 사실은 군대내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일반 사회의 여론은 어떠한가.

다음, 군대의 통제성이란 무엇일까.

자칫하면 통제성이란 말을 오해하기 쉬울 것 같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통제성은 질서를 의미한다. 통제 없는 군중이 얼마나 난폭하며 통제없는 사회가 얼마나 난잡한가를 우리는 알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은 질서 없는 군중이나 사회가 얼마나 난폭난잡한가를 의미한다.

질서정연한 조직과 그 운영, 이 점에 있어서 군대는 일반 사회의 모델·케이스라야 함은 물론이다.

다음, 군대의 소통성이란 무엇일까.

이 말은 군대와 군인간의 의사소통과 아울러 군대의 전체 성원이 하나의 공동목표를 위한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두말할 것조차 없이 현대라는 시대성은 수 많은 개성을 만들고 있다. 이런 경향은 군대내에

생산적 사고와 창의적 행동 - 동작연구와 작업개선 -

유철중



미국에서는 어떤 회사에서든지 한가지 상품을 조금의 변화도 없이 3년동안 제조 판매 하면, 회사가 망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품질을 개량한다든가 디자인을 바꾸든가, 용도를 새롭게 매력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10년이 하루같이 같은 것만 팔고 있다가는 경쟁이 심한 미국산업계에서는 확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고쳐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들의 사무실내의 모든 업무처리방법·수단 등이 어제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무(無) 변화하게만 나아간다면, 현상유지는 고사하고 우리 근로자의 힘까지도 약화하게 될 결과를 빚어낼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현상유지를

유일의 목표로 삼고 매일의 부대사업에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까짓거, 내가 혼자 기를 쓴다고 누가 알아주지?” 이런 말씀을 당신은 하실테지요. 네, 옳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기를 기다리고만 하고있어서 과연 발전이 있을까요.

“나혼자 애써 봤자, 바로 취급이나되고, 비웃음만 사는데 뭘!”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이와 같은 생각아래 모든 창조적인 사고를 억누르고, 의욕을 상실한다면, 과연 나의 근무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니 우리 공군의 발전이라든가, 보다 나은 환경과 전투력의 증진이란 것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적 뒷받침만 있으면 불만이 해소되고 전투력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아닐테지” 네, 옳은 말씀입니다. 경제적 바탕이 필요한거야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왕성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현실 만족만 한다면 우리 몸은 이미 산송장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체념, 이것은 무서운 역리(疲痺)입니다. 우리와 같이 민도(民度)나 생활수준에 있어 후진성을 아직 면치못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듯 현실에 그냥 져버려 아무런 발전 향상의 의욕을 갖지 않는다면 어느 세월이나 가서 좀 어깨를 으쓱거리며 살 때가 오겠습니까?

필자는 여기에 자미(滋味)있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여 당신의 의욕을 북돋우는 자극으로 삼으려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것은 현대 경제학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동작연구(Motion study)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후보생 시절에 적지않은 기압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옷 갈아입기라는 기압의 일종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선착순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기압을 맞보게 마련이었습니다. 이때에도 가장 시간이

~~~~~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대는 국가권위와 통하며 국가의 운명과 같이 하는 본래의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성원 한 사람 한사람의 행동은 그것들과 일치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군인과 군인간의 퍼스널·커뮤니케이션이나 군대의 마스·커뮤니케이션은 오히려 개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개성을 박전시켜 군대의 공동성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지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 군대의 연대성이란 무엇일까.

군인·군대는 그 행동에 있어서 국가성, 영구성, 공동성, 통제성, 소통성을 지니게되면 자연히 연대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군대 용어로서 연대책임이란 말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군대의 성격을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사시에 있어서 군인 한 사람의 실수나 과오 때문에 그 부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나 나아가서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 연대성이 중요시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연대성은 국민과의 연대성, 국가와의 연대성이라 이해되어도 좋을 것 같다,

군대·군인은 행동에 있어서의 국가성, 영구성, 공동성, 통제성, 소통성, 연대성에서 그 가치를 재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우리 군대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믿어진다.

(필자·전국방부정훈국장)

흐르는 땀방울에  
국방은 굳어진다

<표1> THERBLIG 기호

| 번호 | 명칭         | 기호 | 기호의 설명            | 예: 직상위에 놓여있는 연필로 글을 쓴다  |
|----|------------|----|-------------------|-------------------------|
| 1  | 찾는다        | ☉  | 눈으로 찾는 형태         | 연필이 어디있나 하고 찾는다         |
| 2  | 만질한다       | ☉  | 찾아낸 형태            | 연필을 잡아낸다                |
| 3  | 고른다        | →  | 선택한 것을 지시하는 형태    | 어머계중에서 하나를 골라낸다         |
| 4  | 잡는다        | ☪  | 물건을 잡 형태          | 연필을 잡는다                 |
| 5  | 운반한다       | ☪  | 손에 물건을 운반하는 형태    | 연필을 쥐고 운반               |
| 6  | 고쳐잡는다      | 9  | 荷重이 손끝에 놓인 모양     | 연필을 쥐을 쓸 수 있게 고쳐 잡는다    |
| 7  | 조합한다       | ≡  | 조합한 형태            | 연필뚜껑을 씌운다               |
| 8  | 使用한다       | U  | 입을 놓은 모양          | 글을 쓰고있는 동안              |
| 9  | 分解한다       | ≡  | 조합에서 一部分除去한 모양    | 연필의 뚜껑을 벗긴다             |
| 10 | 調査한다       | 0  | 렌즈의 형태            | 글자를 검사한다                |
| 11 | 손바라한다      | ☉  | 당구공을 세우는 형태       | 다음에 쓰기준비 손바라한다          |
| 12 | 손에서 놓는다    | ☪  | 손에 있는 것을 떨어뜨리는 모양 | 연필을 손에서 놓는다             |
| 13 | 빈손으로 운반한다  | ☪  | 빈손의 모양            | 연필을 놓고 손을 갖어온다          |
| 14 | 保持한채 그대로있다 | ☪  | 磁石이 鐵片을 붙이고 있는 형태 | 연필을 견제모이다               |
| 15 | 선다         | ㄱ  | 사람이 의자에 걸터 앉는 모양  | 의견해서 선다                 |
| 15 | 불가리한 시연    | ☪  | 사람이 넘어진 모양        | 停電으로 글을 쓸 수 없게 된 경우     |
| 17 | 제한수 있는 시연  | ☪  | 사람이 자는 형태         | 한눈을 팔기 때문에 끝쓰는 것을 멈춘 경우 |
| 18 | 생각한다       | ☪  |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모양   | 글을 것을 생각하는 경우           |

걸리는 것은 단추를 끼우는 동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추를 아래서부터 위로 끼우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그 역으로 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네? 비슷할거라구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디 한번 해 보시진 않으시렵니까.

이 단추끼우는 동작을 Stop watch를 한손에 들고 제어보면서 연구한 사람이, 미국인 F·B·Gilbreth(1868생)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인 그의 부인협조하에 근대산업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해 준 능률학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자기이름을 역으로 철자해서 Therblig(써·브릭)이라는 이름을 붙인 18개의 동작부호를 만들어 냈습니다.(표1) 즉 모든 동작은 18개로 분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 또는 작업의 동작들을 이 부호로 표현해서 동작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위해 이용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서, 당신은 펜대를 책상 위에 놓을 때 펜촉이 당신 쪽을 향하게 놓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을 향하게 합니까? 어떤쪽으로 펜촉을 향하게 놓았을 때에 펜대를 잡고 글쓰는 데에 더 편리한가를 한번 실험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Gilbreth가 창안해낸 Therblig 부호로 이 두 동작을 분해해서 비교해 보면 어떤 쪽이 더 능률적인가를 알 수 있고, 동작연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윤곽만이라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표 2, 그림 1)

아무리 평범하고 변함없는 규칙적 일과라도 연구해 보면 쓸데없는 동작의 낭용, 시간의 낭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도 자극없이 살아왔고, 문제의식을 가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우선 손 가까운데서부터

보다 나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선의 손길을 뻗쳐 봅시다. 남이야 무엇이라고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연구하고 (연구라는 말이 너무 엄청나면,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발표도 합니다.

우리는 책상을 새로 만들어야 할 때 간단히 계획을 해서, 사업계획서로서 상부에 반영을 합니다. 터무니 없이 크게도 하고, 서랍도 많이 만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최대작업범위를 고려해서 설계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림2)

## 행동이란 무엇인가? - 인간의 행동과 그 동기에 관하여 -

장병립



동물이 식물이나 무기물질과 구별되는 속성의 하나로 자의적 장소이동 즉 운동이라는 현상이 있다. 너무나 풀이나 간에 일단 장소가 정해지면 타력에 의하지 아니하곤 한치라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동물은 하등동물로부터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필요에 따라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것 즉 행동을 한다는 것이 일견 간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복잡다단하여 행동에 관한 이론이나 학설도 실

로 구구한 바가 있다.

생체가 개체를 보존하고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 헤매야 되고 추우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집을 짓고 연료를 마련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적대상을 구하여 생식행위를 해야 되겠고 이리하여 자손이 출생하면 이들을 보호육성하는 행동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말하면 행동이 비교적 손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기도하다. 그러나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행동체계는 한결 복잡해 진다. 짐승은 단순하여 음식이 있으면 아무 때고 어느 곳에서고 먹고 마시면 되고 성적충동이 있고 대상자만 갖추어지면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성적행위를 감행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와 다르다. 배가 고프다고, 목이 마르다고 아무 음식이나 아무 때에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덮어놓고 탐색적행동이 식물이나 의류를 마련하지도 않는다. 인간은 식물이나 성적대상이 아무리 간절하게 요구된다하여도 직접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에게 다른 어떤 동물과 다름없이 신체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생명의 보존을 위해선 영양에 대한 욕구가 작용하고 있고 종족의 보존을 위해선 성욕의 발동이 없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인간의 행동은 어떠한가? 짐승과 같이 음식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적대상이 있다하여 직접 덤벼들지도 않는다. 표면상론 전혀 관계가 없는 행동이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다. 학자가 연구를 한다거나 예술가가 작품 활동을 한다거나 정치가가 정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느것도 기본적인 욕구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어느 행동도 일차적인 욕구나 충동과 관련성이 없는 것은 없다. 다만 그런것의 충족과정이나 방도가 보다 교묘하고 우회적이라는 것 뿐이다.

가령 짐승이 음식을 먹은지 한참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 짐승은 행동량이 점점 더 증가될 것이다. 그리하여 음식의 냄새를 맡는다거나 음식과 유사한 시(視) 자극이 생기면 그쪽을 향하여 쏘살같이 달려 간다. 그리하여 자기가 쫓아온 대상들이 음식일 경우에는 즉석에서 코를 별름거리고 침을 흘리며 다급히 그 음식을 입에 넣는다. 그리하여 배가 부르면 아무대고 자빠지면 된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도 역시 밥먹은지가 오래되면 배가 고파진다. 좀더 행동량이 증가될 것이다. 설령 외부적으로 흔히 말하는 행동이라 이름 붙일만한 징조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행동의 대상 행위라 볼 수 있는 사고만이라도 활발해졌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리하여 그 인간은 거리로 나왔다 하자, 거리로 나오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곰탕 냄새가 우선 코를 찌를 것이고 다과점에 진열된 각종의 케이크가 눈에 띄일 것이다. 이 때에 인간은 먹고 싶다는 욕구가 강렬해질 것이다. 그러나 직접 곰탕집으로 뛰어든다거나 다과점의 진열장을 부수거나 하진 않는다. 우선 그는 주머니에 든 돈을 생각할게다. 그리곤 시계를 훑어보고 난 다음에 점잖게 음식집문에 들어설 것이다. 들어서서는 뭐라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말하면 곰탕이 나오고 설농탕이 나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과정은 동물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다. 돈을 생각한 다든가 시계를 본다든가 뭐라고 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기(飢)를 충족시킨다는 면에서 보면 동물의 행동과정과 대단히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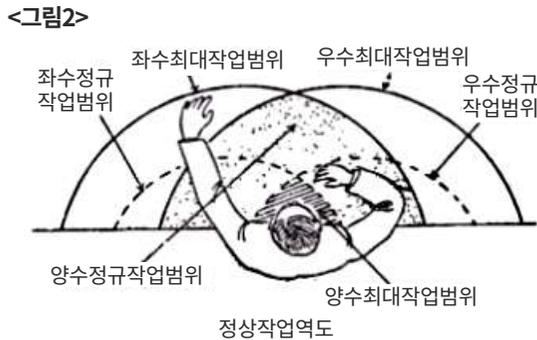
하여튼 행동에는 욕구나 동기가 대단히 주요한 역할을 한다. 물론 기본적인 동기를 고려치 않고도 특수한 행동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능력이나 동기가 어느 행위에 있어서나 두 개의 필수적 요인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가령 어떤 아이가 우연히 과수원 앞에 있었다 하자. 그때의 그의 앞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사과나무가 눈에 띄인다. 이 때에 그는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과가 먹음직스럽게 나무에 매달려 있어도 아이에게 먹고 싶다는 욕구나 따보겠다는 동기가 없으면 딸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설사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나무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 <표2> 펜을 책상위로부터 집는다는 동작의 분해

- |            |            |
|------------|------------|
| 1.  찾는다    | 1.  찾는다    |
| 2.  발견한다   | 2.  발견한다   |
| 3.  선택한다   |            |
| 4.  손을 뻗는다 | 3.  손을 뻗는다 |
| 5.  잡는다    | 4.  잡는다    |
| 6.  고쳐잡는다  |            |
| 7.  운반한다   | 5.  운반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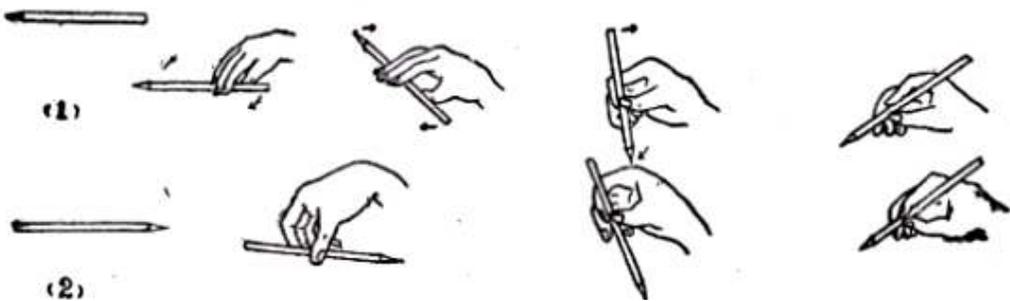
(펜이 여러개 있고 펜촉이 앞을 향하고 있을 때) (펜을 하나만 놔두고 펜촉이 나를 향하게 놓았을 때)

### 2개의 동작을 주릴 수 있다



번거로운 공문서처리, 작업순서, 절차들, 불평이 절로 나오는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만을 늘어놓으면 어쩡니까? 불평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상급자에게 상세히 고찰한 결과를 말하고 개선책을 상신(上申)하십시오. 좀더 우리의 직장에 애착심을 가지고, 부단한 향상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 적극성이야말로 바로 민족성 개조의 근본목표일 것이며, 우리들 젊은 군인의 사명이 또한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를 찾으십시오. 공문의 휘일 방법은 능률적입니까? 칸막이의 위치는 책장, 서류함의 규격·방식등은? 우선 중이를 한 장 책상위에 펼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불러 일으키는 마법의 지팡이라는 별명을 가진 필기구를 손에 드십시오. 그리고, 연구할 제목을 쓰시고, 연구대상을 Therblig 부호로 풀이해서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개선책을 생각하십시오. 혼자 하기가 힘들다구요? 그럼 동료나 상급자, 또는 하급자하고도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보다도,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행동입니다. 자, 행동에 옮겨보십시오. 내일의 비약을 위해서.

(필자·공군대위 공사훈육관)



## 내가 사랑하는 부하

소령 이주용

“To err is human”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이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고 여러 가지 결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무릇 상관으로서 부하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 어찌 결점이 없는 자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나는 주어진 제목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의 한계에 붙어 있는 모호한 점부터 털어버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사랑이란 그것이 인간에 대한 것이건 물질에 대한 것이건 또는 내가 속하는 사회적 집단에 대한 것이건 간에 모두 맹목적인 것이며 철두철미하게 인간의 가장 불안정한 점인 감정에 그 뿌리를 깊숙이 박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의 가족을 사랑함이 나의 가족이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며 내가 나의 조국을 사랑함이 나의 조국이 미국보다 부자고 영국보다 점잖으며 일본보다 약빠르고 서서(瑞西)보다 산수가 좋아서가 아닌 것처럼 여행시에 주워온 조약돌이 거리에 뒹구는 돌보다 값이 비싸서 나의 테이블위에 신주모시듯 하는 것은 아니다. 남보다 많이 접촉을 하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 지닌 결함을 보다 많이 알고 있으며 내 일찍이 조국 밖을 나가 본적이 없기에 남의 나라의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결함을 보다 자세하게 인지하고 나의 테이블에 놓은 돌이 하도 오래 보아왔기에 남의 집 화단에 놓인 돌보다 그 생긴 모습이 추물임을 나는 더욱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남의 나라보다 내 나라를 사랑하고(내가 남보다 강한 애국심의 소유자임을 주장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 남의 가족보다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남의 돌보다 나의 돌을 사랑한다. 이와 조금도 다름없는 이유 때문에 나는 나의 부하를 사랑한다. 내가 나의 부하를 사랑함은 그들이 남보다 규정을 더욱 잘 준수하거나 남보다 두뇌가 우수하고 또는 인간성이 좋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다. 다만 나의 부하이기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판다는 행위는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여기서는 간단히 생각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고려치 않았다. 즉 그 과일나무가 자기집 소유이거나 또는 타인의 소유라도 그런 행동이 허용되었을 경우에만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동기가 수반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으로는 우선 McDougall을 들지않을 수 없다. 그는 사회심리학 입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본능은 모든 인간활동의 원동력이다. 본능적 충동이 모든 활동의 목적을 결정하고 추동력을 공급한다. 강력한 추동력을 지닌 이러한 본능적인 경성(傾性)을 제거해 버린다면 생체는 어떤 종류의 활동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흡사 태엽이 없는 시계와 같이 움직도 안 할 것이다.”

인간행동의 추동력을 공급하는 선천적인 경성으로 기(飢), 성욕, 공포, 분노 및 호기심을 예로 들었다. 그는 광의의 행동을 생각했고 행동을 유발하는 특수한 동기를 생명의 막중한 추동력에 귀착시켰던 것이다.

Woodworth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취했다. 그는 행동의 작용양식과 인과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비록 인간의 모든 동기를 McDougall이 말하는 본능으로 소급해 갈 수는 없지만 행동에는 반드시 동기가 수반된다는데 동의하였다.

야구시합을 할 때 피치의 경우를 예로 들자. 그 선수는 방향을 겨누고 거리를 조절하고 자기가 바라는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신체적 균형을 잡는다. 이러한 행동의 제 양상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 양상을 시현(示顯)하는 행동이 어째서 나타났으며 또 그 행동도 일정치 않아서 어떤 때는 능숙하게 어떤 때는 서투르게 되는 것은 어쩐일인가? 이런 것은 모두 동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다.

생체는 출생직후부터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유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은 일차적으로 환경내의 어떤 대상을 향하게 된다. 그 대상이란 음식을 구득(求得)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그런데 인간의 많은 행동은 궁극적으로 생체내의 유기적 목적과는 관계없이 단순한 환경적인 결과의 달성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그런 예를 탐색적행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탐색이라고하면 콜럼버스나 당시의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는 따위에 대규모의 기업을 생각하기 쉽다. 우리가 탐험가라고 하면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발견한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탐험가나 이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의 최종적 동기는 국가를 부강하게 한다거나 종교를 널리 전파시키는데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들이 매일 매일 부딪치고 있는 것은 미지의 대상을 발견해 가는 데 있다. 그가 받는 직각(直刻)적인 동기도 없는 탐색적 행동은 아동들의 유희적 활동에서 그중 잘 나타난다. 아동의 한 집단을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갖다 놓으면 그들의 일부는 왔다갔다하면서 뒹이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애쓴다. 그들은 소규모의 탐험가가 된 것이다. 새로운 물건을 발견하면 그것을 요리조리 만지작거리다. 그래야만 그 물건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서 처음에 주의를 끌든 사소한 대상에 점차 속달되어가면 탐색적행동은 그리 생기지 않는다. 성장한 아동이나 성인에게도 호기심은 무시할 수 없고 탐색적 행동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하여튼 인간이란 생체는 그가 살고 있는 세상에 관계되는 지식을 얻으려고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에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얼마라도 발견할 수 있다. Harlow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원숭이의 행동을 광범위하게 연구한 사람이다. 그는 원숭이가 탐색자체외에 아무런 보수(報酬)도 없는데는 탐색활동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음에는 사회적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인간은 사회적동물이다. 그들에게는 집단을 이루려는 경향이 뚜렷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생물학적구조에 의한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타동물에 비해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까지에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 그 동안에 유아는 완전히 외부인간에게 일체를 의뢰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배가 고프면 젖을 먹여주는 유모가 있어야 하고 추우면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인간의 사회적행동은 간단하고 우연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사회적 행동이 단순한 개체의 집합으로 본다면 조건화이론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을 법도하다. 그러나 아동에 있어서도 사회적 행동은 그런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아동이 사회적유희를 할 때에 즐겨노는 사회적 대상은 성인 아닌 아동들이다. 따라서 그 아동들이 결코 문제되는 아동의 유기적 욕구를 충족시켜서 애정을 갖게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그들은 환경내에서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데 있다. 아동은 맨처음에 나무조각이나 기타 주변에 있는 어떤 대상과 개별적 유희에서 집단적 유희의 시발점을 갖는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유희에 가담하는 인원의 수도 늘게되고 유희방식도 한결 복잡해진다. 사회적 유희는 분명히 외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보수는 집단과정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재미를 보면 족한 것이다.

어떻든 이렇게해서 생긴 사회적 행동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그중의 하나는 경쟁행위이다. 이 경쟁행위란 문화적 환경에 따라 유무가 결정되고 양상을 달리한다. 어떤 경쟁이란 말은 개체간 또는 집단간에 어떤 대상에서의 승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문화권내에 인간들은 경쟁이라는 말을 잠시도 듣지않고 살 수 없다. 학교입학에는 시험이란 경쟁을 치러야 하고 운동장에서선 월계관을 쓰도록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사일 경쟁이니 우주경쟁이니 하는 것도 전부 이런따위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경쟁이란 어느곳에서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미개민족에 있어선 전혀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이해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47면에 계속)

## 내가 존경하는 상관

병장 김상운

군인으로서 상관을 존경치 않는 자 있을까 싶지 않다. 그러나 군인도 인간이기에 감정이 있으며 그러기에 뛰어난 훌륭한 상관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한 존경의 념(念)을 품게 됨은 어쩔수 없는 일인가 보다. 나도 어어간 3년이 되어가는 군대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관으로서 뿐만아니라 인간으로서 존경할만한 분도 여러분 계셨다.

그중 한 분에 대한 추억을 엮어 주어진 제목인 「나의 존경하는 상관」에 대(代)해 보련다. 그러나 현재도 공군에 복무중이신 상관에 대한 추억을 더듬음에 있어서 독자앞에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상관에 대한 예의가 아닐 듯 하기에 그 분의 성명을 밝히는 것만은 보류하고자 한다.

그분은 언제나 명령을 할 때는 피명령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하므로 명령에 무리가 없고 부하도 인간임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평소의 언동에도 인간미가 있었고 유모어를 이해하는 기지(奇智)가 있었으며 부하의 과오는 언제나 너그럽게 시정했다. 간혹 가정에서의 불안이 있어도 근무처에서 이를 내색치 않고 항상 명랑쾌활하며 근무처의 분위기를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였다. 모든 것에 항상 솔선수범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부하에게 그 이행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고 요점을 상실한 잔소리를 불필요하게 늘어놓지 아니했다. 자신의 과오가 발견되면 솔직하게 이를 시인하고 주저없이 시정했으며 부하의 과오를 지적할 때는 먼저 좋은 점을 지적하고 나서 과오를 지적하기를 잊지 않았으므로 부하도 자기들의 과오를 시정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했다. 한 부하에 대한 여하한 비난도 본인이 부계중 다른 부하 앞에서 하는 일이 없었으며 자기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졌다. 부하가 상신하는 건에 대해서는 언제나 신속명확하게 판단을 내렸으며 부하의 심적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하의 행(幸) 불행(不幸)을 함께 느껴 주었다. 두서없이 과거에 모시고 있던 상관에 대한 토막토막의 추억을 늘어 놓았다. 이것을 읽는 독자는 아마도 과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았던 것처럼 생각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나도 구관이 명관이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결점을 지니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앞서말한 그분이 지닌 훌륭한 점을 때문에 그분의 많은 결점은 인간으로서의 분의 매력을 한결 돋을 뿐인 것이다.



## 미사일의 역사 ⑥

- 우주시대로 돌입 -

외지(外誌)에서

우주개발이 정식으로 일정에 오르기는 1955년 7월 29일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인공위성 발사를 성명(聲明)한 날부터다. 이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공보비서 해거티씨가 내외기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성명한다. 대통령은 지구를 도는 소형의 무인위성을 1959년 7월부터 1958년 말까지 사이에 발사할 계획을 승인하였다. 그것은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의 대기 중에서 지속적인 관측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 최초의 미국 위성은 오직 평화를 위한 계획이며 전쟁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지구 관측년에 미국이 공헌하는 것의 하나이다. 그리고 태양, 달, 유성, 공간도 탐측(探測)되어 텔레메타에 의해서 인류에 전해진 결과는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국제지구관측년에 발사를 계획한 인공위성 뱅가드에 관한 공식적이며 최초의 발표였다.

뱅가드 계획은 발사시의 중량이 약 10톤 추력(推力) 22톤의 뱅가드 로켓(3단식)로서 약 9kg의 구(球)형 인공위성을 지상 300-500km의 궤도 위로 진입시킬 계획이었다. 담당은 해군이 하였는데 이 계획담당을 육군과 해군 양방에서 서로 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해군의 계획만이 남았다.

그 당시 육군은 폰 브라운(Werner von Braun)이 중심이 되어 V2호로부터 발전시킨 레드 스톤의 개발을 촉진시켜 겨우 윤곽은 잡을만한 때였다. 레드 스톤은 1953년 8월 20일에 최초의 시험 발사가 있었고 다음해

1954년 1월 27일에 제2회 시험발사가 있었다. 이와 같이 겨우 실용성이 확인된 상태의 레드 스톤을 육군은 인공위성 발사용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뱅가드 계획이 결정된 뒤에도 육군은 레드 스톤의 사용을 단념치 않고 1956년 9월 20일에 레드 스톤 위에 고체 로켓을 2단으로 부착시킨 로켓 발사를 실시하였다. 이 로켓은 38kg의 탑재물을 달고 5,600km를 날았다. 만약 또 한 단(段)을 더 달아서 4단으로 하면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수가 있다고 육군 담당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허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이와 같은 비행시험은 그 이상하지 않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 ☆ 레드 스톤 부활

그때로부터 거의 1년쯤 지난 1957년 10월 4일 소련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11월 3일 라이카견(犬)을 태운 스푸트닉 2호가 궤도에 올랐다. 그 중량도 508키로 그램이나 되는 것이었다.

소련이 인공위성 발사에 관해서 발표한 것은 미국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개수로 말하더라도 국제지구관측년 기간 상 1개 정도 발사한다고 하는 표현으로 막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 발사되고 보니 불과 10kg밖에 안 되는 미국 뱅가드 위성에 비해서 스푸트닉 1호만 하더라도 83.6kg이나 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였다.

결국 레드 스톤이 다시금 빛을 보게 되었다. 레드 스톤을 사용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하도록 하라는 지령이 내렸다. 1957년 12월 6일 시험용 뱅가드의 발사가 케이프캐나베랄에서 행해졌다. 뱅가드는 지상 몇 피트까지 상승하자 그대로 낙하하여 검은 연기만 내뿜었다.

계속해서 1959년 1월 31일 레드 스톤을 제1단으로 한 4단 로켓, 주피터-C형 로켓을 사용해서 엑스포라 1호가 발사되었다. 그 중량은 14kg이었는데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은 이렇게 보조적 역할의 레드 스톤에 의해서 발사되었다.

실은 그 뒤에도 레드 스톤은 또 새로운 구실을 제시하였다. 즉 그 직후에 폰 브라운과 육군은 인간 로켓을 레드 스톤을 사용해서 발사하겠다고 요청한 것이다.

1958년 봄 의회에서 폰 브라운이 증언하기를 레드 스톤을 사용해서 실시명령이 떨어진 지 1년 이내에 인간을 우주공간에 발사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NACA 즉 현재 NASA의 차관 휴드라이엔 박사는 “그것은 대포로 여성을 발사하는 이상의 가치도 없다.”는 말로서 이것에 반대하였다.

폰 브라운은 여기에 대해서 “혹자는 이것을 곡예비행 정도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1954년 우리들이 작은 인공위성을 레드 스톤을 사용해서 발사한다고 할 때도 그런 말들이 있지 않았는가?”라고만 말하였다.

### ☆ 폰 브라운 박사의 역할

생각해보면 미국의 우주 개발면에서는 브라운 박사는 언제나 미국의 궁지(窮地)를 구하는 역할만 담당해 온 것 같다.

그 첫 번은 인공위성 발사이며 둘째 번은 인간 로켓의 발사였다. 결국 인간 로켓도 레드 스톤을 사용하였으며 레드 스톤 로켓의 62번째 것이 그 위에 프리덤 7호 캡슐을 달고 아란 셰퍼드 중령을 우주공간으로 보내고 무사히 귀환시킨 것이다.

세 번째도 이미 다가온 것이다. 그것은 폰 브라운이 연구하고 있는 새틴 로켓이 미국의 금후(今後) 우주개발의 주역을 맡을 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아트라스라던가 주피터, 쏘어 등의 로켓은 군용으로 계획된 것이다. 지구의 크기는 반경 약 6,400km 이고 뉴욕과 모스크바 간은 8,000km 여(余)에 불과하다. 그러니 10,000km 이상의 사정을 갖는 로켓은 불필요한 것이며 그 탑재량도 최대한 3톤까지도 필요가 없다. 즉 지구적 규모에서 생각하는 한 그 이상도 크기의 로켓은 불필요한 것인데 이 로켓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우주개발에는 한도가 있는 것이다.

현재 발사되고 있는 인공위성 가운데 가장 큰 것은 1961년 1월 31일 발사된 사모스 위성으로 약 1.8톤, 그 다음이 1960년 5월 24일 발사된 미다스 위성으로 1.6톤인데 이것은 쌍방이 아트라스를 발사 로켓으로 사용한 것이다. 즉 아트라스를 발사 로켓으로서 사용하였을 경우의 최대한의 인공위성 중량은 커서 2톤 정도로 머문다는 결과가 된다.

지구상공을 도는 인공위성의 경우는 그것으로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으로 달 주변에 달 로켓을 도입시키려고 한다면 탑재량은 기껏해서 200kg 정도로 되어 버린다. 달에 도착할만한 로켓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되며 우주개발 장애에 어떤 한계가 생겨 버린다.

장애의 우주개발의 가능성을 풍부히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형 우주 로켓의 개발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기대를 걸고 개발하고 있는 대형 로켓은 새틴 즉 추력 80톤의 로켓 여덟 개를 묶음으로 해서 제1단 로켓으로서 사용하는 것인데 여기에 또한 폰 브라운 박사가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 ☆ 인공위성의 성과

전술한 바와 같은 까닭으로 우주개발에는 대형 로켓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는데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의 일로서 지금까지는 군용 로켓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그러면 먼저 1957년 10월 4일 이래 미소 양국이 어떤 인공위성을 발사하였으며 어떠한 성과를 올렸는가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

1961년 5월 21일 현재로 미국과 소련에서 발사한 인공위성과 우주 로켓의 총수는 55개이다. 그 중에서 인공위성이 50개 인공혹성(惑星)이 4개, 달에 도달한 로켓이 하나이다.

국가별로 보면 인공위성은 미국이 38개, 소련이 12개, 인공혹성(惑星)은 두 나라가 똑같이 2개씩이고 달에 도달한 것은 소련이다.

현재 아직도 상공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미국이 22개, 소련이 1개, 오늘날 아직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미국이 10개, 소련이 1개이다. (이상의 숫자는 1960년 6월 22일에 미국이 발사한 쌍둥위성(雙童衛星)과 트란시트 2A와 NRL 위성을 1조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분리해서 2개로 친다면 미국 측의 개수는 각기 한 개씩 증가한다. 또한 이 두 개는 다 현재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

발사된 인공위성 가운데서 가장 중량이 큰 것은 소련이 지난 2월4일에 발사한 소위 거인위성으로 중량은 6.483kg 즉 약 6.5톤이며 위성본체로서 가장 가벼운 것은 1958년 3월17일 발사된 뱃가드1호로 약 1.5kg이다.

지상에서 볼 때 잘 보이는 것은 중량에는 관계없이 표면적이 큰 것이 좋은데 그 필두는 미국의 에코라고 하겠다. 1960년 8월 12일 발사된 것으로 직경이 20m나 되기 때문에 밝기도 마이너스 2등이어서 육안으로 잘 보인다. 그러나 중량은 불과 62.3kg 즉 기구(氣球)위성이기 때문에 안은 텅텅 비어서 표면의 알미늄 판 플라 스틱 구의 무게가 62.3kg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잘 보이는 것은 엑스포로러 9호인데 1961년 2월 16일에 와토푸스섬에서 발사되었는데 이것의 발사에는 스키타이라는 4단고체 로케트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것도 기구위성으로서 직경이 6m 무게는 불과 6.8kg밖에 안 되는 것이다.

#### ☆군사용 인공위성

발사된 인공위성을 용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57년에서 1958년에 걸친 1년 반가량은 국제지구관측년의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두 나라가 다 국제 지구 관측년다운 연구용 인공위성을 발사한 바 있다. 그 가운데서 1958년 12월 18일에 발사된 아트라스-스코아 위성만이 통신을 목적으로 한 군용위성이었다.

1959년에 들어서 국제 지구 관측년이 끝남과 더불어 미국에서는 군사용 위성수가 점차로 불어갔다. 1959년 중에 미국은 1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는데 그중에 6개는 디스커버리 인공위성 즉 공군이 태평양 연안의 반덴버그(Vandenberg) 기지에서 정남을 향해서 발사한 군사목적의 인공위성이었다.

1960년에 들어서서 군사위성은 그 종류가 많아졌다. 보기에 따라서는 실용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구름을 촬영하는 기상관측용의 타이로스(1호는 1960년 4월 1일, 2호는 11월 23일 발사) 항해용의 트란시트는 (1B는 1960년 4월 13일 2A는 6월 22일 발사) ICBM발사 탐지용의 미다스 2호, 그리고 아트라스-스코아와 같은 방식으로 성능을 향상시킨 통신위성 쿠리에 1B(1960년 10월 4일 발사)등이 발사 되었다.

1960년에 미국이 발사한 인공위성 총수 15개 가운데서 순수한 평화목적을 위한 것은 에코1호와 전리층(電離層)을 조사하는 엑스포로러 8호 두 개다.

1961년에 들어서 5월 21일까지 미국은 8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연구용 인공위성이 증가하여 엑스포로러 9, 10, 11호의 세 개가 연구용으로서 발사되었다.

즉 1959년 이래 우주의 군사 개발면이 상당히 농도가 깊어져 1960년에는 태반이 군사위성이었는데 1961년에 이르러 약간 그 비중이 감소되었다.

우주공간의 군사이용에서 생각되는 것은 우선 첫째로 비밀통신용이다. 이것에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극궤도를 도는 것, 적도상에서 상대적으로 지구의 일정 지점 상공에서 정지하여 있는 것, 쿠리에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일정한 지점에서 정보를 받아서 일정지점에서 정보를 발하면서 가는 것 같은 여러 가지고 있다. 그것들 가운데 지금 상공을 날고 있는 것은 쿠리에 뿐인데 그 밖에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는 스테이아, 데쿠리, 아드벤 같은 것이 있다.

항해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나는 전파의 등대역할을 해서 폴라리스 잠수함이나 ALBM탑재 폭격기가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도록 계획된 것인데 예정대로 간다면 0.2 mile 가량의 오차로 자기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한다. ICBM을 탐지하는 미다스 혹은 지상정찰용의 사모스는 군사용 위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일 것이다. 사모스의 지구촬영 성능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상의 10m 가량의 크기의 물체는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 인공위성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게 된다면 보다 더 세세한 것까지 분별할 수 있어 정찰위성으로서 U2기와 바꿀만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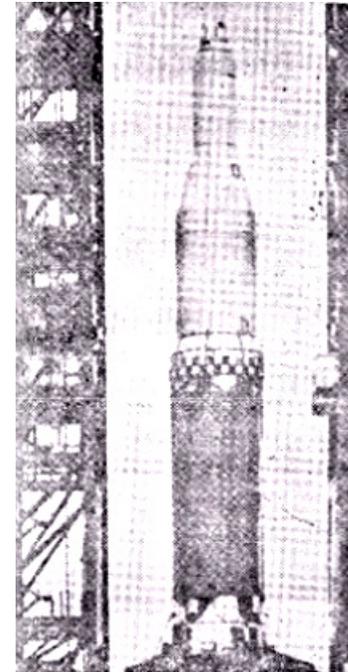
실은 디스커버리 위성이 되풀이해서 회수실험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모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디스커버리 위성은 1960년 8월 10일 최초로 양상(洋上) 회수에 성공하였는데 이것은 소련 우주선 위성회수에 앞서서 8일이며 1일간 상공을 돌린 다음 회수 한 것인데 11월 12일에는 디스커버리 17호인데 2일간 상공을 돌린뒤 회수하고 12월 7일에는 디스커버리 18호를 발사해서 3일간 상공을 돌린 뒤 회수에 성공하였다. 기상위성은 문자 그대로 기상을 조사하는 것인데 평화목적으로도 군사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 ☆인공위성의 비교

이러한 군사목적에 우주를 개발하고 있는 한 그렇게 큰 로케트는 필요가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모스나 미다스 정도의 군용위성이 커다란 편의 한도이기 때문에 아트라스 정도의 로케트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그 이상의 우주개발이라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이제까지 발사된 미국과 소련의 인공위성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최초로 인공혹성을 발사한 것은 소련이었다. 1959년 1월 2일 소련의 우주 로케트 1호가 발사되어 달 근처를 통과해서 지구와 화성과의 사이의



발사대에서 있는 새턴 로케트

궤도를 달리는 인공혹성이 되었다. 그 무게는 1,472kg인데 그 중에서 계기부분의 중량은 361.3kg이었다.

그것에 2개월 늦게 미국 최초의 인공혹성이 발사되었다. 이름은 파이오니어 4호이고 무게는 6.1kg이었다.

문제는 성능이기 때문에 중량의 대소는 비교 기준이 되지 않을지 모르나 만약 통신기 같은 거의 기술수준이 같다고 하면 중량의 차는 그대로 성능의 차가 되기 때문에 역시 중량의 차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에 인공혹성은 아니지만 소련은 1959년 9월 12일 달 로케트 2호를 발사하였다. 그 중량은 1,511kg으로 그 가운데 계측기부분의 중량은 390.2kg이었다.

10월 4일에는 월표면 촬영에 성공한 우주 로케트 3호 즉 자동 혹성간 스테이션이 발사되었다. 궤도에 오른 총중량은 1,553kg이고 스테이션 자체의 중량은 278.5kg이며 그 밖에 로케트 최종단에도 156.5kg의 계측 기계가 실려져있었다.

1961년에 들어서서 3월 11일에 미국인 파이오니어 5호를 발사하였다. 그 무게는 43kg이고 태양전지를 실은 이 인공혹성은 3,600km의 원거리에서의 통신에 성공하였다. 이것은 지구와 금성의 궤도중간을 지나가는 인공혹성이 되었다.

약1년 뒤에 소련이 금성 로케트를 발사하였다. 즉 1961년 2월 12일의 일이다.

이 금성 로케트는 그 중량이 643.5kg으로 이것은 1959년 1월 2일에 발사된 우주 로케트 1호의 계기 부분 중량 361.3kg에 필적하는 것이니 2년 동안에 소련의 우주개발용 로케트는 대형이 된 셈이다.

금성 로케트는 2월 27일 이후 신호를 포착할 수 없게 되었는데 금성에 접근하리라는 5월 20일 전후에는 영국의 조드레로방크에 있는 전

파망원경이 금성 로케트로부터의 발신을 같은 전파를 포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어쨌든 이들 우주 로케트나 금성 로케트를 보면 우주개발을 위해서는 군사용 로케트를 실용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대형 로케트 개발

인간위성(人間衛星)의 경우도 그러하다. 소련이 4월 12일에 인간위성에 성공한데 대해서 미국은 5월5일에 인간 로케트에 성공하였다. 공개면에 있어서 미국이 조금 뒤졌다고 하는 것이 전체의 역량을 평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거니와 미국도 본격적인 대형 로케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 10년간은 대형 로케트를 사용한 우주개발의 장대한 성과가 착착 결실될 것이며 이제까지 군용 로케트의 부산물처럼 우주공간의 문턱에 발을 들여놓은 인류가 본격적으로 우주개발에 힘을 쓸 시기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로케트의 역사도 이제까지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 틀림없다. 그와 같은 기대를 현 단계의 연구개발 양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이 대형 로케트 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공이 지난 10월 27일에 케이프 케나베탈에서 이루어졌다.

즉 이날 8개의 엔진으로 추진되는 162ft 높이의 거대한 새턴 로케트는 최고시속 3천9백리, 고도 90리로 대서양 상공을 220리이나 비행한 것이다.

이 새턴 로케트의 엔진은 14초간에 3천 마력에 상당하는 추진력을 발휘하였다.

이와 같은 추진력은 지금까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로케트인 아트라스의 약 4배가 되며 소련이 최근까지 사용한 최대 로케트의 추진력보다 2배나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다.

462톤은 중량을 가진 새턴 로케트는 처음에는 대단히 천천히 상승하였고 다음에 300톤의 연료가 내연실로 통과하자 연도(鍊度)를 내었다. 동 로케트는 처음에는 직상(直上)하였다가 다음에 고형(弧形)을 그리며 대서양 위를 날아 8분후에 해상에 낙하하였다.

동 로케트는 비행 중 150중에 달하는 비행정보를 케이프 케나베탈의 통제실로 무선 송신하였다.

미국 항공우주국장 제임스 E 웨브씨는 새턴 로케트의 비행을 일컬어서 미국의 우주계획을 과시하는 훌륭한 시위이며 동시에 지난 5월 25일 케네디 대통령이 수립한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중(重)적재물을 발사하는데 있어서의 우리들의 실력증강에 대한 이정표라고 말하였다.

동 계획은 1970년까지 많은 미국 사람을 달에 보냈다가 귀환시키기로 되어있는 것이다.

1964년까지 미국은 9개의 새턴 로케트를 더 실험발사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는 3인승 아폴로 우주비행체를 장기간 지구궤도에 올려놓기 위하여 실용적인 2단계 식 로케트를 발사한 것이다. 1966-7년경에는 아폴로 비행체를 달 주위의 궤도에 올린 후 다시 지구로 회수하기 위한 개량형 새턴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끝)



# 방공포격을 3개월

## ☆ 독일공군의 실수

8월 12일 포츠담스 군항을 휩쓴 독일공군의 급강하 폭격기대의 공격은 맹렬을 극했다. 융카스 87형, 융카스 88형은 저색(沮塞)기구의 맹점을 교묘히 찾아서 만구(灣口)로부터 침입하여 반복 급강하폭격을 되풀이하였다. 문자 그대로 정박함대의 머리 위를 독일기가 난무하였다. “전투조종사들이 꿈에 그리던 모든 것이 우리들 안전(眼前)에 있었다. 영국함대의 전함, 순양함, 구축함들이 항구 안에서 꼼짝 못하고 우리들의 밥이 되었다. 공격 목표 수에 부족이 없고 공격거리도 알맞아 실수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기지에 돌아온 한 독일공군 중위가 전장의 흥분도 가시지 않은 목소리로 백림(伯林)[베를린]방송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독일공군은 실수할 리 없는 공격이었지만 실제 전과(戰果)는 별것이 아니었다. 즉 영국해군의 손해는 경미한 것이어서 기지의 술 창고가 날아가 병사들 사기에 영향을 것이 최대의 피해라고나 할 정도였다. 그렇지만 영국공군 수뇌부는 이날 공습에 실은 간담이 서늘했던 것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적기가 함정이나 육상기지의 공격과 병행해서 레이더 사이트에도 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이다.

급강하폭격기는 도바와 화이트도 사이에 있는 여섯 개의 사이트에 공격을 가하여 그중에 다섯 개는 복구하기에 한 시간에서 여섯 시간이 걸렸고 나머지 한 사이트는 복구불능의 손해를 입었다.

레이더 사이트는 무방비상태였기 때문에 곧 바로 공격을 받으면 견딜 도리가 없었다. 물론 사이트의 작전실은 견고하게 되어 있었지만 레이더의 급소인 안테나는 별거 벗은채로 었다.

영국공군은 레이더와 대공감시소의 보고로 독일공군의 공격 기도(企圖)를 찰지(察知)해서 수적으로 열세한 영국공군의 불리를 카바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공군이 본격적으로 레이더 사이트 공격으로 나온다면 그 피해는 사이트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공군의 전반적 활동이 순해져서 반신불수에 함입(陷入)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독일공군은 3일후인 8월15일, 드리펠드에 있는 폭격기인 기지에 공격을 가해왔다. 이 공격은 포츠미스 강습에 못지 않은 치열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때는 물론 그 후에도 레이더·사이트에 대해서는 공격이 없었다. 전후 독일공군의 전술적 과오를 지적한 독일의 어느 전사연구가는 “독일공군은 레이더 사이트를 폭격하면 사이트 자체는 파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레이더망 전체에 걸쳐 치명상이 될지 어떨지 의문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격목표의 우선순위도 경시하여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

확실히 하나 하나의 레이더 사이트에 가해지는 공격으로 전체 레이더망이 마비될 가능성은 적었다. 그렇지만 레이더 사이트만을 어느 기간동안 공격을 집중하여 이잡듯이 해나갔다면 레이더망의 기능 상실로 영국공군의 활동도 마비되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레이더 사이트를 공격목표에서 제외한 독일공군으로서의 되살릴 수 없는 큰 실수였으며 영국으로서는 천우신조였다.

## ☆ 악천후의 계절

독일공군의 공격은 8월 8일 이래 압력의 도를 더 해갔으나 전면공격일-이글·데이-은 악천후로 해서 드디어 나갔다. 이것이 영국으로서는 둘째번의 천우신조였다. 제공권(制空權)을 잡거나 못잡거나 겨울철의 영불해협은 대규모적 상륙작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영국으로서는 가을이 가까워 오면 그만큼 동절(冬節)의 악천후로 접어들게 되어 그것만큼 싸워 이길 기회도 많아지는 것이었다.

한편 독일공군의 조종사들도 영본토상공을 비행하는 횟수가 많이 거듭될수록 영국의 기행이 번덕스러워 전연 중잡을 수 없음을 체험으로 알았다.

출격하기 좋은 날씨라고 앞장서 간 정찰기의 보고로 공격대가 출격하면 느닷없이 폭풍을 만나 어쩔수 없이 도중에서 되돌아 오는 예가 허다하였다.

변신이 빨라서 다루기 힘든 적 - 바로 그것이 잉글랜드 상공의 천기였다. 그래서 독일군은 영국의 기상을 암호로서 4B라고 부를 정도였다. 즉 상대방에게 있어 4배나 다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8월 13일은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다. 도바 해협에 연한 독일공군기지에서는 시계불량일뿐 아니라 해협 건너 남잉글랜드에서는 비를 실은 검정구름이 알게 하늘을 덮고 있었다.

독일군은 좋은 일기 아래 작전을 수행할 기회가 적었다. 그러나 히틀러로서는 이 이상 영국이 독일측이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 때문에 시간을 함부로 소비할 수 없었다.

제공권을 획득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면공격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독일군은 기상정찰기의 보고, U-보트의 관측보고, 거기다 영국의 암호기상정보를 해독하여 기상을 판단하고 있었다. 독일 제2차공군과 제3공군의 참모들은 영본토 상공의 기상 판단으로 의견이 대립되어 있었다.

그래도 대부분은 작전발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나 시계불량을 이유로 강경하게 작전중지를 주장하는 일파도 있었다.

그 때문에 작전발동이 발령된 뒤 급방 중지명령이 내렸다. 그러나 이때 중지명령이 제1선부대의 각 기지에 하달되었을 때는 공격부대가 이미 발진한 뒤였다.

이날의 공격목표는 잉글랜드의 남부지구로서 독일의 급강하폭격기대는 하늘을 뒤덮을 만큼 대편대를 지어 침입하였다. 이를 폭격하는 영국공군은 옥스부릿에 사령부를 둔 제11사단이었는데 스피드 화이어 전투기 6개 중대에 허리케인 전투기 13개중대로 편성되어 지휘관은 뉴질랜드 출신의 키스·파크 소장이었다.

독일공군이 즐겨 사용한 전법에 원형진(圓型陣)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제1차대전중 서부전선에서 쓰여진 전법에서 발단을 본 것이다. 즉 적을 아방(我方)의 원형진에 끄집어 들여 녹초가 되도록 지치게 만드는 전법인 것이다. 독일공군기는 고공에서 아침안개를 연포삼아서 해도 뜨기전에 템스(Thames) 강구에 그 모습을 나타냈다. 그것들은 제2공군 휘하의 80대를 넘는 기수였는데 전투기의 엄호는 없었다.

윌트스태블에 있는 굴 양수장 상공에서 혼쳐치 기지를 발진한 스피드·화이어 1개중대가 추격하였으나 약간의 차질로 전기를 일실(逸失)하였다. 2개편대의 한쪽을 옆구리에서 돌진하였으나 선두를 놀릴 수는 없어 간신히 쫓무니 비행기를 때릴 뿐이었다.

독일기들은 항방을 똑바로 잡은채 목표로 직진하였다. 이리하여 집중공격을 받은 이스트·처치의 연안사령부는 제(諸)시설에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

한편 제2의 독일편대는 이보다는 훨씬 강한 영국 전투기대의 요격을 받았다. 즉 테머스 강구 앞에서 마침 선단호술(船團護術)에 임하고 있던 노스·윌드 기지의 1개중대가 급보를 받고 달려왔으며 쿠로이든 기지의 허리케인 1개중대가 시간을 대서 달려 들었다. 이렇게 해서 한참 공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장 서쪽을 독일 제3공군의 별동대가 침입해 왔다. 그것은 전폭연함으로 된 2개편대로서 각기 팬볼의 비행기 공장과 오디함의 공군기지를 공격하려는 것이었다. 이들 적편

## 왜 안팔릴까?

이영렬

### 왜 안팔릴까?

상품은 진짜이고 포장도 근사하고 선전도 어지간 한데  
도대체 왜 안팔릴까?



군방수기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중  
열을 불러 은(銀) 열「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와 가로  
되 “주여 주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  
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  
으니 열고를 권세를 차지하라.”……하였느니라.  
<누가 19:12-18>

언젠가 나는 ‘개점휴업’이란 제목으로 그려는 신문만화를 본 적이 기억난다. 어떤 장사가 노점을 벌려 놓기는 했는데 손님이 들지 않아서 파리만 날리고 있는 그림이었다. 점포를 차렸어도 고객이 없으니 사실상 휴업이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남을 두고 풍자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그려진 것이라 생각하고 적이 고소를 금치 못한다.

나는 진리(?)라고도 하고 흔히 인격(?)이라고도 하는 장사(?)를 시작한 이래 정말 사고 파는 거래없이 개점휴업의 불경기를 겪어 왔다. 나는 그것을 팔 때에 성스런 음악과 장엄한 분위기로

대에는 사색스 상공에서 스피드 화이어 1개중대가 뚫고 들어 갔다.

독일공군이 이날 목표로 삼은 것은 잉글랜드 남부지구의 방위선을 테스트하려는 데 있었던 모양이다.

남부지구의 방위선다시 말하면 파크 소장이 지휘하는 제2사단의 방위선이 얼마나 견고하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일까를 탐사하고 평가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독일 제2공군과 제3공군의 편대들은 기묘하리만큼 깊이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깨끗이 물러가 버렸다.

그래서 영국군의 피해도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방위선을 탐색 당한다는 면에서 볼 때는 이날 영국 전투기들의 요격상(邀擊相)은 그다시 칭찬할만한 것이 못 되었다.

### ☆ 미국인 조종사의 공훈(功勳)

8월 13일 아침 독일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떠오른 영국전투기대 가운데는 미국인의 특지(特志) 조종사 한사람 섞여 있었다. 제601전투기중대의 휘스크 중위가 그 사람이다. 적습경보로 애기(愛機)에 몸을 싣고 출격한 휘스크 중위는 곧바로 소정 고도에 이르러 동료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편대를 짰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부호(富豪)의 은행가 아들이며 미국 청년인 그가 조반도 안 먹은 공복으로 독일공군과 겨룰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다. 그의 조국인 미국은 아직 참전도 안했고 미국인 의용 조종사로 편성한 이글 중대는 아직 제1선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글 중대가 실전배치가 된 것은 영국전쟁이 끝난 뒤 였다.

조심성 있게 포장할 뿐 아니라 매주 정성스런 원고를 써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외쳐오곤 했지만 저들은 내 상업술과 그 물건의 포장은 구경하여도 그것을 사가지는 않았다. 어떤 이는 그것에다 전통, 도덕, 관습 같은 것으로 착색 가공하면 잘 팔릴 것이라 하지만 그것은 아예 내 성미에 맞지 않을뿐더러 내 능력 밖의 일이므로 기대할 수도 없고 이 이상 개점휴업의 불경기를 참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한동안 골치를 앓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언젠가 친구 하나가 점포를 옮겨 불 의향이 없느냐 하기에 나는 그렇게 해 보자고 한 것이, 지금 노병(老兵)으로서 군복에 봉사하게끔 된 것이다.

내가 새로 개점한 장소의 입지적 조건은 극히 좋았다. 적의 포문이 눈 앞에 보이는가 하면, 반면 우리 병참로는 지극히 멀어서 일단 유사시엔 난경에 처할 도리밖에 없는 기지였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죽음」이란 문제가 등장하면 「심각」해지는 법이고 「심각」해지면 「참」을 더듬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진리」와 「인격」의 상품은 분명히 대량으로 거래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더욱이 그곳은 섬이어서 사면이 바다로 둘러있고 주민은 거의 만명을 헤이지만 말 배를 찾기는 너무나 힘든 처지여서 고적, 향수, 우울로 말미암아 내 장사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만 그 기대는 거기 도착한 다음날부터 어긋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내방에 걸어들 옷옷 주머니에서 약간의 비상금이 깨끗이 행방을 감추어 버렸고 그 다음날, 내 약복 한 벌이 비상금과 그 운명을 같이 하려는 듯이 자취를 감춘 일이 생겼었던 때문이다.

“엣그제 환영회 때 나를 맞아준 사람이겠지”

“우리 사무실을 무난히 드나드는 낯익은 위인이겠지”

“앞으로도 계속 나에게 친화의 모습을 보일 사람이겠지”

하고 생각해 보니, 물건을 잃었다는 섭섭한 것보다 내 주위에 그런 인물이 접근하고 있음이 서글프기도 했고 불쾌하기도 했고 정신 차려지기도 했었다.

속담에 ‘지키는 열 사람이 한 놈 도둑을 못 당한다’는 말이 있듯이 개점 초부터 밀진 장사를 만회하려고 나는 정신을 바짝 차렸으나 또 밀진 장사를 하고 말았다. 내 장사가 소위 인격을 상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자세하게 쓸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요령보다 진실이 더 귀하다고 하루는 내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알만한 친구가 전화를 빌려 통화를 했다.

“○○님입니까? 나 ○○○올시다. 지금 ○○를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 ○○○해서 ○○○하고 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나를 보고 픽 웃었다. 영문을 모르는 나에게 그는 다시 전화의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가긴 누가 개 갔다 온 것 같이 요령을 부리는 거지”

“그렇지만 가라는 데를 안가고 갔다 왔다면 어떻게 되나?”고 물었더니

“가라긴 누가 가랬나? 나혼자 꾸며내서 그렇게 한게지 뭐!”

“왜 일부터 불필요한 일을 꾸미면서까지 거짓을 하나?”고 물었더니

“그게 다 요령이야! 군대는 요령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 사람은 그 요령 때문에 지휘관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날로부터 그는 나에게서 최대의 불신임을 받게끔 됐다. 허기야 군복 한테쯤 불신임받아도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일이 있던 바로 다음날 나는 꼭 그와 같은 케이스의 기만을 당한 바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가 따르는 일도 아닌데 불필요한 일을 꾸면서까지 요령을 부리는 것을 알자 나는 지극히 마음이 아팠다. 아까 말한대로 그곳은 외로운 곳이었다. 뜻이 맞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어느 곳에서도 필요하지만 이곳 만은 더 아쉬운 곳이었다. 나는 그와 더불어 모든 일을 의논하고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지냈다. 그곳에선 이제 둘도 없는 친구로써 사귀어 왔었다. 그런데 그만 그가 나에게 불진실한 요령을 부렸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몹시 마음 아팠다. 또 장사에 밀진 셈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스크중위는 이날 전투에 참가하여 베테란으로 활약하였다. 그는 거뜬히 전투에서 유카스 88형 한대를 격추하고 한대를 격파하였다. 이 전과는 당시 영국공군으로서의 대서특필할만한 것이었다. 예나하면 수적으로 열세한 영국조종사들은 한번 출격에서 두 대씩이나 떨어뜨릴만한 행운을 맞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와같은 사정은 이날 날을 경계로 해서 일변하였다.

독일공군은 12시에 포틀랜드군항을 공습하였는데 이 싸움이 전기(轉機)가 되었다. 이 독일공군의 공습이 영국공군에게는 하늘이 도운 공습으로 되었던 것이다.

독일공군은 폭격기를 호송시키기 위해서 제3공군에서 쌍발 중전투기 메사슈미트 110 30대를 출동시켰다. 그러나 이 중전투기들은 폭격기 본대와 합류하지 못하고 어찌된 셈인지 단독으로 포틀랜드에 침입해 왔다. 한편 역공공군은 레이더로 이 편대를 포착하여 사전에 공격기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열세의 영국공군으로서 처음으로 독일공군기를 제압할 수 있는 병력집중을 할 수가 있었다. 이리하여 제2사단에서는 2개중대, 제11사단에서 1개중대의 전투기가 출동명령을 받았다. 제11사단의 1개중대는 조금 늦게 전장에 도착하였으나 전투의 대세는 그전에 이미 결정된 셈이었다. 영국공군 전투기대는 최초의 접촉에서 벌써 메사슈미트 5대를 격추하였던 것이다.

수적 열세라는 악조건 밑에서만

생각하니 이 장사에도 일종의 환멸마저 느꼈던 것이다. 고도에서 영화라면 다시 없는 위안이었다. 나는 그 낯밤 극장엘 가지 않았다. 술이라도 실컷 마시고 한바탕 떠들어 대는 술꾼의 심리를 이날 밤만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왜 안팔릴까?

상품은 진짜이고, 포장도 근사하고 선전도 어지간 한데 도대체 왜 안팔릴까?

그것은 상술의 잘못이었다. 내 장사는 상품을 진열해 놓고 손님을 부르는 따위의 방법에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매주일 3회에 걸쳐 행하는 선전에 모여드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지만 적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중에서 내 상품을 쥐어 들고

“이거 얼마요?”

하고 덤벼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다 와서 구경하고 듣고 돌아갈 뿐이었다. 사실상 그들은 그 물건이 필수적인 절박한 처지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만 거기오는 사람은 자기의 기능이 보고 듣고 걷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경으로써 만족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분명히 수요자를 잘못 판단한데서 실패의 원인이 있지 않았는가?

나는 진열한 먼지물은 상품을 털고 보에 썼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나는 행상으로 상술을 전환하여 손님을 부르는대신 손님을 찾아 다니기로 했던 것이다.

어느날 내무반을 순회하는 중 수요자 하나를 발견했다.

항상 말이없고-

우울하고-

편지 쓰는 법이 없고-

나는 그의 신상을 서류에서 살펴보았다.

가족 : 동생 하나

주소 : 어느 보육원

출신교 : 모 고등학교 중퇴

그는 내 접근을 싫어 했다. 나를 만나면 과거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오는 것 모양 두려워 하였다.

그가 겪은 생은 실로 형언할 수 없을 만치 가시밭이었다. 6·25동란은 아직도 나 어린 두 형제를 폭풍에 내어 던졌으며 그 날로부터 하루 하루, 아니 한시간 한시간 그들의 몸과 마음은 찢기우고 할퀴이며 연명해 왔던 것이었다. 어느 보육원의 신세를 지고 어느 외국인의 도움을 받았으나 그런 경로로 자란 그의 심리는 배타적인 사상으로 비뚤어지고 인생관은 극히 허무의 심연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나는 장엄한 분위기라든지 성스런 음악이라든지 미문여구(美文麗句)의 설교를 그에게 만큼은 보류하였다. 다만 그가 홀로 마음속에서 끓어 폭발하려는 울적함을 이해해주고 그 심정이 가라 앉도록 조심성있게 사정을 들어주는 일 외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 생 이별과 죽음의 작별을 보기 시작한 이래 갖가지의 저주와 천대와 공포와 주립과 곤비를 경험한 그는 그것 때문에 정신은 착란해지고 짓궂어져서 이젠 어딘지 한없이 뛰고 달리다가 포라도 쏘아 부쳐 폭발시켜 보고 싶은 충동의 도를 높여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사정과 심정을 다 쏟아버린 그는 그 무겁고 피로웠던 마음의 긴장이 온전히 풀려 버리고 그 공허한 마음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까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비로소 나는 그에게 처음으로 내 상품을 팔게 되었다는 것은 더 기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날 나를 찾는 사병 하나가 있었다. 일과 중인데 내무반에서 나를 만나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무반 선입하사에게 두들겨 맞아서 방금 치료를 받고 누워있는 자기를 위로해주고 또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주선했달라는 요청이었다.

예상외로 그 상해가 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까 두려워 가해자는 재빨리 휴가를 가버렸다.

이런 경우 나는 이 둘이 다 내 상품의 수요자 임을 판단하였다. 환자예엔 위로와 격려와 친절로 날마다 문병하였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로 보복보다 용서의 미덕을 풀어일렀다. 가해자는 불안한 도피(?)에서 돌아올 기한이 이르렀다. 그러나 돌아오면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두려워 떨었다. 그러나 그가 휴가중 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고무되었던지 도망병의 신세를 면하고 돌아와 화해의 손을 잡게 되었던 일은 나도 은근한 만족을 느꼈던 것이다. 그 내무반이 다시는 폭력이 없고 명랑화 되어진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는지……

나는 행상을 그만두고 이젠 도매상 점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옛날

싸움을 강요 당했던 영국공군 조종사들로서는 처음으로 겪는 체험이었다.

전투에 참가한 모든 조종사들이 아침에 있었던 휘스크즈중위의 전과와 같은 행운을 맞았다.

‘수적으로 대등하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적은 수적으로 우월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술의 우월이 있다’

이와같은 자신을 영국공군 조종사들이 이 공중전에서 얻었다는 것은 실로 하늘의 계시였다.

기지로 돌아온 조종사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에게 이러한 자기들의 체험을 신바람이 나서 말해주었다.

‘독일공군 조종사들 따위는 문제없다’라는 자신은 삼시간에 조종사들 사이에 구전되어 이 기지에서 저 기지로 퍼져나갔다.

#### ☆ 최대규모의 전투

전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져갔다. 해도 아직 떠오르지 않은 아침부터 일몰시까지 독일공군은 함께 1485회의 공격을 가해왔다.

그 중 3분의 1은 폭격기에 의한 공격이었다. 영국전쟁이 시작된 이래 최대규모의 전투에서 영국공군은 전력을 기울여 맞아 싸웠다.

그 중에서도 각기 지휘하에 있는 작전실에서 전투지휘관들의 활약은 눈부신 것이 있었다.

그들은 전투하는 사이에 시종 냉전침착하였고 숙련된 지휘를 하였다.

독일공군의 교묘한 양동(佯動)작전과 진짜 작전행동을 분별하기에는 아직도 수련의 여지는 있었다.

내 신령한 상품을 사간 고객하곤 지금도 편지로 거래하곤 있지만 지금 우리 주위엔 수요자가 너무도 많다. 행상 때 발견한 수요자는 불우한 친구, 범죄한 사병이었는데 도매상에서 본 수요자는 계급도 높고, 학식도 많고 환경도 좋은 어른들이었는 것을 발견케 된다. 어쨌든 도매상이 개점휴업이어서 안될 텐데 참 큰 일이다.

〈필자·공군대위·군목실근무〉

그렇지만 전투배치에 임하고 있었던 지휘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까지나 침착하게 착착 조종사에게 지령을 내렸다.

레시바를 통해서 듣는 조종사들 귀에 흡사히 잠들려는 어린이에게 어머니가 따뜻하고 조용하게 이야기를 들려 주듯이-

흔쳐치 기지의 지휘관 아담스 중령은 군에 응소(應召)되기 전에는 배우였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하고도 침착한 음성이 격렬한 공중전으로 긴장된 조종사들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는지 모른다. 그의 신뢰감에 넘치는 목소리에 힘을 얻어 자칫하면 귀환할 수 없는 난경(難境)에서 무사히 기지로 돌아온 조종사가 적지 않았다.

이날 하루의 전투에서 영국공군은 32대의 전투기를 잃었다. 그리고 독일공군에 준 손해는 45대였다. 그리고 피해입은 13대중 여섯사람은 낙하산으로 탈출하여 무사하였으나 나머지 일곱사람은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어둠의 장막이 내려져 싸움에 지친 영국공군 조종사들에게 휴식의 시간이 찾아왔다.

그렇지만 독일군은 의연히 공격의 손을 늦추지 않고 숨들릴 사이도 주지 않았다. 특히 항공기 공장에 대해서는 야간폭격이 몇 번이고 되풀이 되었고 또한 기뢰를 부설하는 비행기가 내습하였다.

그야말로 8월13일의 공격은 저 용감한 영국사람에게도 그들 장래에 대하여 암담한 마음을 갖게 하였다. 그 중에서도 캐슬부르릿치에 있는 넷필드·스피드 화이아 공장에 11발의 폭탄이 명중하였을 때 더욱 그러하였다.

자칫하면 침몰해지기 쉬운 런던시민과 영국국민들의 마음을 얼마간 호뭇하게 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날의 전투를 통해서 영국공군 조종사들이 체득한 독일공군 조종사보다 우월하다는 자신이었을 것이다.

#### ☆ 조종사의 긴급보충

영국공군의 손실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어 갔다. 8월8일에서 18일까지 만10일간 183대를 공중전에서 잃고 또한 13대가 지상에서 파괴되었다.

항공기생산상 비바부룻크경은 매주 백대이상의 비행기를 제조하고 또 수리해서 일선기지에 보급하였다.

그러나 소모 대수는 그것을 넘어섰으며 그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조종사였다.

조종사를 기계 만들듯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훈련교육중의 조종사가 제 구실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전국이 용서하지 않았다.

전투사령관인 다우딩 대장은 독일공군의 본격적인 공격이 개시된 8월13일에서 3일후 조종사 보충을 위해서 과감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그것은 터무니 없는 조치라고도 할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와같은 결단이 영국을 구하였다.

다우딩대장은 해군함대 항공기 공군폭격기대 연안방위대에게 조종사 착출을 요구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조종은 한몫을 하지만 전투조종사로서는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제외하고는 누구를 이 위난에 대처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전투조종사의 손실은 8월 18일까지 전사, 미귀환을 합쳐서 94명 부상 60명에 달하였다.

다우딩 대장과 제11사단의 파크 소장은 비바부룻크경을 본 따서 필요한 일을 전화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급한 불을 끌수가 없었다. 다우딩 대장과 파크 소장은 13일 밤 지체없이 런던에 전화를 걸었다. 런던에서 전화를 받은 비바부룻크경의 답변은 두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 그는 비행기 보급을 확약하였다. 비바부룻크경이 몇 대라고 약속하면 반드시 기한까지 도착하여 한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었다.

그렇지만 조종사는 그렇게 손 쉽게 충족되는 것이 아니었다.

다우딩대장은 공군성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공군성의 참모부는 다우딩 대장의 요청에 그다지 열의를 보여 주지 않았다. 그뿐아니라 폭격기 조종사들의 전투기대 전속에는 반대까지 하였다.

다우딩 대장은 연일 공중전의 실상을 보고하고 조종사 소모가 적지 않음을 일일이 숫자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사람이라도 많이 경험있는 조종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참모부는 적의 상륙작전을 예상하고 침공부대를 때려눕히기 위해서 폭격기 조종사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려는 심산이었다. 그래서 다우딩 대장의 요청은 제대로 들어지질 않았다.

후일 그때를 돌이켜 볼 때 다우딩 대장의 적에게 제공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투한 것이 실은 독일군의 상륙작전을 저지한 것임을 분명히 실증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정황으로서는 참모부가 독일군의 영국 본토 상륙작전은 9월말까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이래서 양방은 타협하는 수 밖에 없었다. 다우딩 대장은 폭격기대에서 20명 공지협동 비행대에서 33명의 조종사를 획득하였다. 이들 폭격기 조종사 53명은 불과 6일간의 속성훈련 끝에 방공제1선에 임하였다.

#### ☆ 비장한 최후

13일 아침 전투에서 무공을 세운 미국인 조종사 휘스크 중위는 그후 어떻게 되었는가?

당그메어 기지를 이륙한 휘스크 중위는 독일공군과의 공군전에서 피탄(被彈)한 스피드 화이아전투기를 끌고

가까스로 기지상공에 이르렀다. 애기의 강착(降着) 장치는 피탄되어 말을 안듣고 기체는 연기를 뿜고 있었으며 거기다 당그메어 기지는 독일공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격납고가 불타고 병동에서부터 병사, 장교속사, 식당, 탄약고, 창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파괴되어 갔다.

휘스크 중위는 비오듯 쏟아지는 폭탄사이를 뚫고 동체착륙을 시도하였다. 애기는 비칠거리며 착륙자세에서 접지하였다. '이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스피드·화이이는 화염에 쌓이고 휘스크중위는 희생하지 못했다. 그의 무력에 대하여 수훈(授勳)을 상실했으나 훈장은 수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휘스크중위가 영국에 헌신한 공로를 감사하는 영국민들은 그를 런던에 있는 쉐트·폴 대사원에 안장하였다.

쉐트·폴 대사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미국의 국교 조지 워싱턴 흉상 옆에 지금도 휘스크 중위를 찬양하는 비(碑)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비문은 '영국을 구한 미국인 비리 휘스크 중위 이곳에 잠들다'라고 쓰여있다.

### ☆ 저주받은 날

8월 15일은 영국전쟁에 있어서 기억되어야 할 날이다.

이날 독일공군은 영국에 무려 1,786회나 공격을 해 왔다. 불과 하루 동안에 이만한 공격을 가해 온 예는 전(全) 전쟁기간을 통해서 예를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독일공군은 동부전선의 몇 개 부대를 빼놓고는 모든 작전병력을 이날 전투에 투입하였다. 영국공군에게는 이미 낮익은 제3공군과 제4공군 그 밖에 노르웨이, 정말(丁抹)[덴마크]에 주둔하고 있는 제5공군까지 동원된 것이다. 이날 날이 밝자 전일과 마찬가지로 적기가 정찰차 날아왔다. 그들은 판에 박은 듯이 매일 같은 시각에 날아왔다. 이날 아침도 전일과 별다른 기색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오전 11시30분 급강하 폭격기와 전투기의 혼성부대가 쉐트주(州) 해안상공에 그 자태를 나타냈다.

이 편대는 호킨지 기지와 솜기지를 공습하였는데 적의 급강하폭격기는 극히 정확하게 양비행장을 폭격하여 솜기지는 48시간 동안 작전불능 상태에 빠졌다. 파크 소장이 지휘하는 제11사단으로서는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곤란한 것은 적의 실세 없는 공격으로 제11사단 휘하 각비행대는 응원할 겨를도 없게 요격에서 돌아와서는 숨돌릴 사이도 없이 또 출격해야 할 형편이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허둥지둥 이륙해서 환관 싸우고 돌아오면 또 적습이 있곤 하였다. 이런 경우를 몇 번 되풀이 하였는지 모른다. 끈덕지기로 이름난 영국공군 조종사들도 한량 없는 출격으로 심신 공허 녹초가 되어 버렸다. 지상근무자들도 마찬가지로 었다. 눈이 돌 정도로 땀 내렸다 하는 틈을 봐서 연료나 탄약보급을 하기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다.

한편 이제까지는 비교적 평온했던 잉글랜드 북부에도 이때 독일공군의 손이 뻗치기 시작하였다.

열두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영국공군의 레이다는 휘스만 밖 160km에 독일편대가 접근해 오는 것을 탐지하였다. 이리하여 즉시 경보가 발령되어 제30사대 제72중대의 스피드·화이아 5대가 출격하였다. 이때 레이다의 추정으로는 적기는 20여대로 추산되었다.

영국공군의 레이다는 상당히 정확하게 적기의 내습을 캐치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의 레이다의 정도로는 내습해 오는 적기의 대수까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었다.

제72중대의 스피드·화이아 전투기는 예상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근 100대의 하잉겔 111형 폭격기와 70대의 메사슈미트 110형 전투기 틈바구니에 끼어 들었다. 이런 형편에 견딜 도리가 없었다. 5대는 삼시간에 적의 포화를 받아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추락되었다. 그러나 이 분수 없는 공격으로 적기의 대편대는 두갈래로 갈라졌다. 그 갈라진 틈새를 겨누어 이번에는 제79중대와 뒤이어 제41중대 다시 혼쳐치 기지에서 응원차 달려온 제65중대 제67중대의 각 전투기가 연달아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것은 적의 메사슈미트 전투기들이었다. 쌍발의 이 중전투기들은 노르웨이 남서부에 있는 스타반겔기지로부터 온 것이었다.

연달은 영국전투기의 대들기전법에 언제까지 상대하였다가는 돌아갈 연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메사슈미트기들은 적당히 회의를 봐서 일제히 기수를 돌려 쾅무니를 배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하잉겔 111형 폭격기들은 자기들을 호위하던 전투기들이 돌아가 버림으로 해서 벌거숭이들이 된 셈이었다. 그래도 폭격기 편대들은 그 대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 기(機)에 의한 수차에 걸친 대들기 전법으로 해서 그 코스는 많은 동요가 나타났다. 더구나 그들 앞에는 영국공군 전투기 5개중대가 잔뜩 버르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편대에 떨어져 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침공해온 독일 제5공군의 별동대는 어지간히 무운(武運)이 있었다. 이 편대는 용카스 88형 급강하폭격기 50대로서 전투기의 호위도 없었다. 이 50대중 적어도 30대가 목적이인 드리과일드 기지에 도달하여 맹렬한 폭격을 하였다. <차호 계속>

**인권 없이 자유 없고  
자유 없이 인권 없다**  
(인권옹호 표어)



## 세계 신문 이야기 ③

…분란(芬蘭) 편…

김기점(金基漸)

분란(芬蘭)은 인구 450만을 가진 북구(北歐)의 작은 나라이나 신문의 보급률에서 볼 때 세계 최고가는 나라인 것이다. 그리고 검열도 없고 완전한 언론의 자유가 있음은 물론, 센세이셔널리즘으로 한몫 보자는 대중지(大衆紙)가 없으며 대부분 신문은 어딘가 건실(健實)하고 딱딱한 편집을 하고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나라의 신문 사정을 든다면 펄프와 제지업(製紙業)이 분란(芬蘭)의 최대의 산업인 관계로 신문의 품질이 우수하며 고도(高度)한 인쇄 기술 수준인 것이다.

분란(芬蘭)의 신문의 역사는 대략 3대별(大別)하여 독립쟁취까지의 역사, 「내셔널리즘」운동의 역사, 민족문화 발전의 역사 등을 반영하고 있다.

분란(芬蘭)은 1809년 서전(瑞典)으로부터 제정(帝政) 노서아(露西亞)에 할양(割讓)될 때까지 긴 세월 동안 서전(瑞典) 왕국의 일부이었으므로 중세 이래 10여 세기 중엽까지 서전어(瑞典語)가 지배계급의 언어였으며, 이에 대하여 근 2,000년 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핀 민족의 언어는 핀우그릭어계(語系)의 핀란드어이며 다른 스칸디나비아 제국(諸國)의 게르만계의 언어나 혹은 슬라브계 언어와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이다.

19세기까지는 핀란드어는 무릇 서민층의 언어로써 사용되었고 서적과 출판물은 스웨덴어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분란(芬蘭)의 최초의 신문은 서전어(瑞典語)로 되어 있었으며 1771년 당시의 교육문화의 중심지인 쯔르구시(市)에서 발간되었다.

또한 1776년에는 최초의 핀란드어의 주간지(週刊紙)가 발간되었던 것이다.

노서아(露西亞)령(領)으로 자치권을 갖는 분란(芬蘭) 대공국(大公國)이 되어서부터는 분란인(芬蘭人)으로서의 민족의식이 강하게 짙터 고래(古來)로부터의 구전(口傳) 민족시(民族詩)의 대집성 「카레와라」의 발간 등에 많은 자극을 얻어 분란어(芬蘭語)로서의 문학도 융성해졌으며 종래(從來) 공용어로서는 서전어(瑞典語) 하나뿐이 전용(專用)되어 온 것이었으나 1863년에는 분란어(芬蘭語)도 병용(併用)하여 공용어로서 의회에서 의인(議認)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 나라에 있어서의 분란어(芬蘭語)의 공용화 실현, 그리고 분란인(芬蘭人)의 민족의식의 제고(提高)에 다대(多大)한 영향과 역할을 한 것은 19세기 중엽에 발간된 분란어(芬蘭語)의 일간지인 쯔르구시(市)에서 발간되는 싸이마지(紙)라던가 헬싱키시(市)에서의 스오메탈지(紙)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분란어(芬蘭語) 지(紙)는 민족의식을 제고시키고 민족문화와 민족예술을 더욱 자극, 발전시키게 되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내셔널리즘과 이 나라 독립운동에 더욱 박차(拍車)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럼으로써 노서아(露西亞) 총독의 검열에 저촉(抵觸)되어 폐간(廢刊) 또는 정간(停刊) 처분을 받는 등 중 당국의 탄압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욕(辱)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상태는 1917년의 독립전쟁까지 계속되었으며 독립 이후로는 분란어(芬蘭語) 문화가 일제히 생기를 띠고 활발해졌으며 언론의 자유도 확립되었다.

분란(芬蘭)은 독립전쟁을 통해 갖은 민족적 수난(受難)을 거쳐 독립을 전취(戰取)하고 완전한 언론의 자유와 민족 고유의 문화적 전통, 그리고 언어를 찾음으로써 급일에 이르러서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된 나라로서 현금(現今)의 신문 보급률은 국민의 2명에 1부 꼴의 신문 구독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1961년 초부터 현재의 분란(芬蘭)의 신문 총발행 부수는 주간지를 제외하고도 198만 부이고, 보면 세계에서 1-2위 가는 신문의 보급이 잘 되어있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신문 보급률의 최대 원인의 하나로서 이 나라의 교육 정도가 높은 까닭이기도 하다.

그리고 분란(芬蘭)은 이렇게 많은 신문 독자가 있고 그 보급이 대단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문맹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제 통계 기구의

통계를 본다면, 이 나라의 문맹률은 1% 이하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분란(芬蘭)의 국민소득 생활 수준은 구라과(歐羅巴)[유럽] 제국(諸國) 가운데에서 중(中) 정도이나 이에 비하여 최고의 신문 보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분란인(芬蘭人)의 독서열(讀書熱)이 높은 국민성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일례로써, 1959년 중에 이 나라에서는 2,438종의 신간 서적이 발행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인구당 신간 서적 발행부로서는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최고의 발행 기록인 것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생신 축일(祝日)의 선물로서 책자·서적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총 공업 생산액의 17.1%가 제지산업(製紙産業)이 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풍부한 지류(紙類)가 있으며 많은 신문용지 생산이 이 나라의 신문의 보급을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아마도 구미(歐美) 주요국의 많은 신문은 분란(芬蘭) 산(産)의 신문용지로서 인쇄되고 있는 형편이다.

근 200만 부의 신문 총 발행부수를 갖고 있는 분란(芬蘭)의 신문 발행의 그 구성 내용은 본다면 일간지가 40%를, 그리고 주 6회간(刊)의 신문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분란(芬蘭)은 상금(尙金)도 핀란드어, 스웨덴어의 2개국 국어가 공용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스웨덴어를 상용(常用)하는 사람의 수효는 국민 전체의 약 9%로 감소되어 있으며 신문 역시 2개국어의 신문이 아직도 발행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분란어(芬蘭語)지(紙)이고, 스웨덴어지(紙)의 종류와 부수는 얼마 안 되며 대표적인 것으로 6만부 가량의 발간 부수를 갖고 있는 신문으로서 헬싱키에서 나오는 후우트스타브레딧트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석간(夕刊)은 약 10만부이고 나머지 전부가 조간지(朝刊紙)이며, 발행 부수의 대부분이 배달 또는 우송(郵送)되는 예약 구독지로서 가두판매(街頭販賣)는 그리 많지가 않다.

분란(芬蘭)의 주 2회 이상 발행되고 있는 신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 말 현재)

일간(日刊) 23 / 주 6회간(刊) 36 / 주 5회간(刊) 5

주 4회간(刊) 3 / 주 3회간(刊) 28 / 주 2회간(刊) 11

다음은 분란(芬蘭)의 신문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도 헬싱키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 수는 전체의 약 15%이나 발행 부수를 본다면 전국 총 발행 부수의 40%를 점하고 있으며 헬싱키 23종의 대표적 신문이 전국지적(全國紙的)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지방지(地方紙)는 지방의 사사건건의 문제와 이익을 대표해서 간혹 활발한 역할을 담당하고 경쟁을 하기는 하지만, 역시 전국지(全國紙)에 눌리고 있는 형편이다.

일간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색채를 명백히 나타내고 있으며, 그 색채의 강약도(強弱度)는 지지 정당에 의해 차이가

## 주요국의 생활 수준 개관

-지수(指數)를 통해서 본 거시적(巨視的) 고찰 -



우리는 오늘날 국가 재건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파산 상태에 직면했던 국민경제를 하루빨리 재건하여 빈곤을 축출하고 자주경제체제(自主經濟體制)를 확립하여 번영하는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시책(施策)이 과감, 적절히 운영되어 나가고 있음은 마음 든든한 바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과연 내일의 복지국가를 지향해서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 그렇게 용이(容易)치 않음은 다시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부러워하는 여러 나라도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의 과정을 상도(想到)할 때 우리의 각오를 새로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몇몇 선진 주요국가들의 국민경제, 다시 말해서 생활 수준을 거시적 고찰에 지나지 않지만 자료를 통해서 비교 평가함으로써 우리의 처지를 재확인하고 한 개 발분제(發奮劑)로 삼고자 한다.

그런데 생활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며 자료도 충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오차를 계산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 경향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각국 생활 수준의 개관

여기서 취급한 나라는 미국·영국·분란서(佛蘭西)[프랑스]·서독(西獨)·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일본 이렇게 6개국인데 각기 별표와 같이 7종류(A에서 G까지)의 지표를 작성하여 보았다.

조세부담률, 소비성향, 소비 구매력 평가라는 세 개의 데이터가 갖추어진 나라를 고르다 보니 전기(前記) 6개국을 들게 되었는데 데이터의 연도도 가장 새로운 것이 1959년이다. 그러면 부표(附表)의 좌측에서 A·B·C 순으로 점차 고찰해 보기로 한다.

### <공정(公定) 레이트를 사용했을 경우>

국민소득의 비율(A란) = 이것은 일국(一國)의 경제적 국력을 거시적으로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미국이 3,996억불로서 단연拔群적(拔群的)인 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은 일본의 15배에 가깝고 영국도 1/8 밖에는 안 되니 가히

두고 있다. 특히 좌익계(左翼系) 신문에 있어서는 정당이나 기타 정치조직으로부터의 지배력이 강함으로 당(黨)의 지시로 편집 방침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신문 지면을 통해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反)하여 보수계(保守系)나 중도계(中道系)의 신문은 정치세력에 의한 직접적 영향력을 그리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비단 분란(芬蘭)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신문 수 또는 그 총 발행 부수의 정당별 구분은 결코 선거나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고 있지 않다.

스칸디나비아 제국(諸國)의 공통된 경향인 좌익 제(譜) 정당이 의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세력이 큰 데 비하여 그 정당 기관지 내지는 지지지(支持紙)와 발행 부수가 적으며 이와 반대로 보수계나 자유주의계 신문의 발행 부수가 그 의회 세력보다 훨씬 많으며 크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총 발행 부수의 85%가 보수계, 자유주의계 신문이 점하고 있으나 그 의회 세력 분포를 보면 총 의석의 49.5%에 불과하며 이에 비해 사회 민주당계 신문의 발행 부수는 전체의 9%에 불과하지만 동당(同黨)의 의석수는 의회의 25.5%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공산당 이하의 극좌계(極左系) 정당인 인민 민주동맹 계통의 신문은 이 나라 총 발행 부수의 6%밖에 안 되지만 그 의석수는 전(全) 의석의 25%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좌익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신문이 약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겠지만 그 하나로서 좌익 정당계가 자유주의, 보수계 정당보다 역사가 짧고 기관지나 지지지(支持紙)가 아직도 그 뿌리가 박히지 않고 있어 신문의 판로(販路) 확장이 여의치 못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반해 보수계나 자유주의계 신문은 역사가 오래고 보니 상업적으로도 튼튼한 기반을 갖고 있으며 좌익계지(紙)와는 달리 지면(紙面) 편집에 있어서도 매력 있는 편집 기술로 잘 짜여지고 있는 것이다.

분란(芬蘭)에는 인구 45만의 수도 헬싱키가 최대 도시이고 이밖에 12만 인구 정도의 2개 도시가 있을 뿐 인구 많은 도시가 별로 없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해서 가두판매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조간지(朝刊紙)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석간지(夕刊紙)가 미미한 것은 전기(前記)한 바 가두판매가 부진(不振)한 까닭이다.

그리고 분란(芬蘭)의 신문 지면의 특징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진실미(眞實味)가 있으며 자극적이고 선풍적(旋風的)인 기사로서 매상고(賣上高)와 독자를 많이 얻으려고 하려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사도 게재하지 않으며 다른 구미(歐美) 제국(諸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혼 사건이나 남녀의 스캔들 같은 것을 상세히 보도하는 따위 기사도 없고 범죄사실 역시 피비린내가 날 정도의 추악한 묘사는 가급적 피하고 있으며 섹스에 관한 것도 그리 요란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프라이버시의 침범은 없으나 분란(芬蘭)의 신문에는 일반시민의 개인적 소식을 상세히 보도하는 지면이 있다.

그것은 사망자의 오비취아리·결혼·아동들의 생일, 혹은 5-60세의 고령 노인들의 진갑(辰甲), 회갑(回甲) 등의 생신 보도같은 경조사 관계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것이다.

분란(芬蘭)의 신문같이 개인적인 뉴스

그 규모를 알 수가 있다.

취급한 6개국을 놓고 액수 순위로 볼 때 미국 다음으로 영국이 530억불로 제2위이며, 서독이 449억불로 3위, 분란서(佛蘭西)[프랑스]가 394억불로 제4위, 일본이 278억불로 제5위, 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가 223억불로 제6위가 되는 것이다.

1인당 소득의 비교(B란 참조) = 이것은 앞에 제시한 국민소득의 총액을 그 나라 인구로 나눈 것, 즉 국민 1인당 평균 연간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정(公定) 레이트로 불(弗) 환산한 1인당 평균 연간 소득을 보면, 역시 미국이 수위(首位)를 차지하여 2,249

### <부표(附表)> 각국의 경제규모 및 생활 수준에 관한 지수 (1959년도)

| 국명  | 국민소득 (억불)     | 1인당 소득 (불) | 1인당 가처분 소득 (불) | 개인소비 (불) | 1인당 소득 (불)         | 1인당 가처분 소득 (불) | 개인 소비 |
|-----|---------------|------------|----------------|----------|--------------------|----------------|-------|
|     | 공정(公定) 레이트 환산 |            |                |          | 소비재(消費財) 구매력 평가 환산 |                |       |
|     | A             | B          | C              | D        | E                  | F              | G     |
| 미국  | 3,996         | 2,249      | 1,632          | 1,655    | 2,249              | 1,623          | 1,650 |
| 영국  | 530           | 1,019      | 689            | 766      | 1,324              | 895            | 995   |
| 분란  | 394           | 873        | 624            | 581      | 1,415              | 1,012          | 937   |
| 서독  | 449           | 867        | 597            | 659      | 1,379              | 949            | 1,080 |
| 이태리 | 223           | 454        | 320            | 310      | 773                | 546            | 525   |
| 일본  | 278           | 300        | 240            | 178      | 527                | 422            | 307   |

\* 국민소득 규모는 유엔에서 발행하는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1961년 5월호에 의거한 것임.

**받들자 인권선언  
이루자 민주재건**

를 많이 다루고 있는 지면이 있는 신문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보기 힘들다.  
이것은 수도 헬싱키에서 나오는 최대의 전국지(全國紙)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일 2정(頁) 정도로서 개인적 소식을 싣고 있는 현상을 분란(芬蘭)의 신문은 전국지라 할지라도 적은 지방지적(地方紙的)인 편집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신문 지면 수는 전국지인 경우에는 평일 20-30정(頁) 가량이고 일요일에는 평일의 배(倍) 정도이며 광고량도 많고 사망 부고(訃告) 같은 것이 많은 것이 눈의 띈다.  
전국지에 비해 지방지의 정(頁) 수는 무척 적은 편이다.

또한 분란(芬蘭)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신문 연쇄(連鎖) 시스템이나 한 개인이 신문왕(新聞王)이라고 일컬을 만큼 많은 신문을 지배하는 권력자가 없으며, 이로 인해 매스컴 수단의 독점적인 제약이나 행세같은 것이 없어 세론(世論)이 제멋대로 형성된다던가 왜곡된다던가 하는 위험은 존재하지 않고 이런 면으로 보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사 내용을 본다면 각 신문이 정당 지지의 태도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주의(主義) 주장을 확실히 내세우고 있어 내정(內政), 외교(外交)에 관하여는 논설란이나 칼럼니스트란에서 각기의 입장에서 명확한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각 정당의 정책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것은 물론 분란(芬蘭)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구미(歐美) 제국(諸國)에서도 그러하거나와 한국같이 주요 신문이 그 점 선명히 하고 있지 않는 나라에서의 독자가 볼 때에는 아주 크게 매력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옛날부터 스포츠 왕국이라고 불리어 오고 있는 분란(芬蘭)이고 보니 스포츠란이 대단히 충실하다. 단, 프로 스포츠로서는 권투 정도 있을 따름이고 태반이 아마추어 스포츠의 기사인 것이다. 다음에는 국제외교의 면을 볼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동서(東西) 양(兩) 진영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분란(芬蘭)은 동서 대립에 관한 문제의 보도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흔히 볼 수 있다시피 공산당·인민민주동맹 같은 좌익계열의 기관지인 경우에만은 무조건 친소적(親蘇的)인 것이고 국제외교도 소련에 유리한 각도에서 보도하고 있어 분란(芬蘭)은 소련과 제휴(提携)하여야 한다는 조(調)로 다루고 있는 점은 물론이다.

이밖에 일반지(一般紙)는 우익(右翼)의 보수계열의 신문에 이르기까지 동서 양 진영과 같이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 분란(芬蘭)의 활로(活路)인 것이라는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란(芬蘭)은 제정(帝政) 노서아(露西亞)에게 욕(辱)보아 왔고 소련에게 침략을 당하였으므로 국민 감정의 속심은 노서아인(露西亞人)을 증오하고 친서국적(親西歐的)인 사람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이기는 하나 소련을 자극할 만한 언동(言動)은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이외에 그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에 철저하다는 것이며 이 나라의 신문은 이러한 '대인(大人)의 양식(良識)'을 반영하여 편집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다.

보수계지(紙)는 국내의 정적(政敵)으로서 분란(芬蘭)의 공산당·인민민주동맹을 공격하고 있으나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이며 다음이 영국의 1,019불, 셋째가 불란서(佛蘭西)의 873불, 넷째가 서독의 867불, 다섯째가 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의 454불, 여섯째가 일본의 300불,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예거(例學)된 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각국을 망라해서 국제연합(國際聯合)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인당 소득 순위가 미국, 캐나다, 서서(瑞西)[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로 되어 있어 대체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국민소득의 총체상으로 볼 때는 상위에 있어도 1인당 소득은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1인당 가처분 소득 = 이것은 전항(前項)의 1인당 소득에서 조세부담액(국세 및 지방세)을 뺀 액수, 즉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앞의 순 수취액(手取額)이며 각인(各人)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실제액(實際額)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데이터로서는 세금을 포함하는 전항(前項)의 1인당 소득보다 일반적으로 실제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이것을 국별(國別)로 볼 때, 역시 1위는 미국의 1,623불이고, 다음이 영국의 689불, 그 다음이 불란서(佛蘭西)의 624불, 그 다음이 서독의 597불, 그 다음이 이태리(伊太利)의 320불, 그리고 일본의 240불,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나 특히 영국같은 나라가 조세부담액이 많은 편이고 서독이나 일본이 적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개인 소비 = 이것은 전항(前項)의 1인당 가처분 소득에서 다시 저축분(貯蓄分)을 공제한 즉, 다시 말해서 순수히 생활비로서 소비할 수 있는 액수를 말한다.

따라서 각국 국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데이터로서는 가처분 소득보다도 더 한층 실질적인 것이라 하겠다. 다만 여기에 예시한 자료가 1955년 / 1957년의 숫자라는 것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

이 액수 순위도 역시 미국이 최고이고 일본이 최하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178불로 감소되고 다른 나라들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일본의 개인 소비율이 낮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부담률도 적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과연 일본인들의 저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상상할 수가 있다.

**<소비재(消費財) 구매력 평가를 사용했을 경우>**

다음에는 공정(公定) 레이트로 환산한 1인당 소득, 가처분 소득, 개인 소비를 각기 소비재 구매력 평가로 환산해 보기로 한다.

구매력 평가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통상적으로 생활 수준의 거시적인 국제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정(公定) 레이트로 불(弗) 환산한 것이 사용되나, 실제로는 소비재 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쪽이 개인 소득이 국민 생활에서 발휘하는 실력을 보다 더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소비재 구매력 평가로서 전기(前記) 6개국을 들어 1인당 소득을 들어 볼 것 같으면 미국이 2,249불, 영국이 1,324불, 불란서(佛蘭西)

는 기용적(器用的)인 논법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국제 뉴스로서는 REUTER, AFP, UPI 등의 국제통신사에서 배신(配信) 받고 있으며 전국지는 스칸디나비아 각국의 수도 런던, 파리, 모스크바, 워싱턴 등에 특파원을 보내고 있다.

또한 STT(Suomen Tietotoimisto) 통신사도 있고, 스칸디나비아 각국의 주요 신문과의 뉴스 교환, 취재협력 관계가 참으로 긴밀하게 잘 되고 있다. 분란(芬蘭)의 각종 주요 신문으로서 헬싱키 사노마트(Helsingin Sanomat)지가 이세으며, 동지(同紙)는 1904년부터 발간된 것이며, 최대의 발행 부수(약 25만 부)를 갖고 있는 중립지(中立紙)이며 분란(芬蘭)을 대표하는 우수지(優秀紙)인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 신문 논조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빈빈(頻頻)히 외전(外電)에도 인용되는 것은 동지(同紙) 외에 우시수위미(Uusisuomi)지와 후우트스즈 브라더트(Hufvudstadsbladet)지의 양(兩) 헬싱키 발행지가 있다.

전자는 1869년에 발간된 보수계열로서 영향력이 큰 바 있으며, 후자는 1864년에 발간되었고 스웨덴계 분란인(芬蘭人)의 이익을 대표하는 신문으로서 중시되어 오고 있다.

스웨덴어를 상용하는 분란인(芬蘭人)은 19세기까지 수백년 간 분란(芬蘭)을 지배하여 온 계급이었기 때문에 현재도 정계나 재계에서도 대단한 실권(實權)을 갖고 있는 형편이다.

헬싱키에서 발간되는 인민민주동맹의 기관지인 칸산우-티세트(Kansan Uutiset)지도 공산당의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동지(同紙)는 5만부 정도의 발행 부수를 갖고 있다.

분란(芬蘭) 국민의 41.5%가 농민인 까닭에 농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농민당계 제 신문이 세론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농민당계지(紙)로는 구오피오에서 발간되는 사본 사노마트(Savon Sanomat)지 (5만 2천 부)가 있고 이밖에 34종의 소신문(小新聞)이 있다.

끝으로 분란(芬蘭)의 신문 독자에 대한 여론 조사의 결과에 나타난 기사 종별(種別) 비율을 개관하면 지방 뉴스가 제일 많이 읽히는 기사로서 76%이고, 국내 일반 뉴스가 66%, 외국 뉴스가 45%, 개인 소식 뉴스가 57%, 스포츠가 3%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필자·공군 중령·공본(空白) 공보과장)

가 1,415불, 서독이 1,379불, 이태리(伊太利)가 773불, 일본이 527불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공정(公定) 레이트와 비교해 볼 때 특기할 만한 것은 일본과 이태리(伊太利)인데 공정(公定) 레이트로 1인당 소득이 300불에서 일거(一擧)에 527불로 뛰어 올라간 것이 일본이며 이태리(伊太利)도 454불에서 773불로 상승하여 일본을 기준으로 한 배율에서 볼 때 미국은 7.9배에 4.3배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 불란서(佛蘭西), 서독도 미국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씩 배율이 적어졌다.

이것은 미국의 물가가 비교적 높고 일본이나 이태리(伊太利)의 물가가 비교적 싸며 영·불·서독은 일본이나 이태리(伊太利)보다 높지만 미국같이 높지는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1인당 가처분 소득을 볼 것 같으면 미국이 1,623불, 불란서(佛蘭西)가 1,012불, 서독이 949불, 영국이 895불, 이태리(伊太利)가 546불, 일본이 422불 이런 순위로 되어 있는데 이 지수에서 미루어 영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높으며, 일본같은 나라는 소득 비율이 좋음을 알 수가 있다.

끝으로 공정(公定) 레이트 환산의 1인당 소득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3국을 삼고로 비교할 때 그 비율은 8:3:1로 나타난 것이 소비재 구매력 평가로 계산하면 1인당 가처분 소득의 동(同) 비율은 대략 4:2:1로 되고 개인 소비는 5:3:1로 된다는 것은 흥미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김영주>

**<약(藥)이 되는 말>**

**★ 번민(煩悶) 해결의 비결**

토마스 카라일이 서재에 파묻혀서 불란서(佛蘭西) 대혁명사를 쓰고 있을 무렵에 어떤 귀부인으로부터 온 한 장의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 사연은 인생의 번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이 편지를 읽고 난 카라일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다음과 같은 회답을 써 보냈다.

- 당신이 반진고리를 열어 보십시오. 혹시나 실들이 흩어져 있거나 아니한지요? 그것을 잘 실패에 감아서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엔 당신의 옷장을 열어 보십시오. 반드시 장 안이 어지럽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잘 정돈하시죠. 그러면 당신의 번민이 자연 해결될 것입니다. -

### 기다리는 마음

대위 김병로(金秉老)

밀물 따라 들어왔던 배가 썰물 때에 따라 나가지 못하고 물에 걸리고 말았다. 아무리 조금씩 굴더라도 다시 밀물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선원들은 일제히 배의 수리에 나섰다. 적당한 기구를 갖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배 밑창을 때우는 일이었다. 자상(仔詳)히 살피면서 조그만 구멍이라도 놓칠세라 공들여 때우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밀물은 다시 들어왔다. 배는 돛을 올리고 유유히 바다로 떠났다. 선원들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필자가 중학교 때 어떤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대충 줄거리만 추려 본 것이다. 아마 내 일생을 두고 잊어지지 않을 감명깊은 이야기일 것이다.

사람은 기다릴 줄을 알아야 참되게 살 수 있다. 인생 과정이 인위적으로 이미 꾸며진 계획에 의한 것도 아닐 것이며 설혹 꾸며진 계획이 있더라도 그대로 진행되는 일보다도 계획과는 달리 참고 오래 기다려야 할 일이 더욱 많을 것이다. 따라서 기다릴 줄을 안다는 것은 인생을 인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체(要諦)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인생을 인생한다는 것이 심히 힘든 일인 줄 알지만,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이 곧 그와 통해서 지난(至難)한 일임을 까맣게 잊기가 쉽다.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 과연 힘이 든다.

가깝게 기차나 연락선을 기다릴 때만 해도 연착(延着)이나 연발(延發)에 스스로의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조금씩 하여 불평을 하고, 욕지거리를 늘어놓고, 막연(漠然)한 상태를 원망하면서 안절부절을 못하는 사람을 흔하게 본다. 기다리는 동안 신문이나 서적을, 그리고 방금까지 하다 놓고 온 자기의 일에 대한 구상(構想) 등, 가능한 방법과 수단으로 시간을 메꾸다보면 오히려 자신에게 플러스가 될 터인데, 당장의 불편, 당장의 불쾌감, 그리고 사소(些少)한 손해 관념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성(理性)을 흐리우고 독스럽고 절제없는 언행(恣行)하다 보니 결과는 자신이 우심(尤甚)한 손해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백발의 노구(老耄)를 이끌고 어린 과목(果木)을 심는 노인의 심정을 우리는 음미해 볼 필요를 절감(切感)한다. 그 노인은 결코 자기 당대에 그 과목(果木)에 열매 맺을 것을 기대치 않을 것이다. 후손을 위해서 어리디 어린 묘목을 정성껏 가꾸는 것이다. 자기라는 존재는 이미 없을 먼 훗날을 위해서 담담히 과목(果木)을 매만지는 노인의 마음에 사(私)란 있을 수 없을 것이 아닌가. 사(私)가 개재(介在)하는 한, 원대하든가 절묘한 일은 성취가 지난(至難)하다. 대기(大器)는 만성(晩成)인데 사(私)가 개재(介在)하면 조금해져서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다. 집단으로 음식을 먹든가, 구경을 갔을 경우 흔히 질서가 깨어지고 난장판이 되는 것을 목도(目堵)하지만 이것 역시 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남은 고사하고 우선 자기의 욕망부터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치기를 하고 심할 땐 완력(腕力)까지 구사(驅使)하게 되니까 그런 결과가 된다. 이런 데서도 역시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한다. 사(私)가 없어야 한다.

5·16 혁명은 확실히 단시일 내에 눈부신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한 한도 내에서 엮지 만능일 수는 없었다는 것을 자타(自他)가 공인해야 한다. 혁명의 과감한 추진력으로 당장에 이뤄질 수 있는 일보다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그 성과를 고기(孤期)할 수 있는 일이 몇 배나 많은 것이다. 개중에는 혁명 당초에 일사천리(一瀉千里) 격으로 이뤄지는 혁명의 성과에 도취(陶醉)된 나머지 가능 밖의 일까지도 그렇듯 단시일에 해결될까 생각하고 은연중 엄청난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라는 일일수록 타당성을 결여(缺如)한 사사로운 일이 아니면 엄청난 야욕이었다. 어이 없는 일이라 하겠다.

혁명을 자초했던 우리의 나라와 민족은 너무나 극심한 고질(痼疾)에 허덕이고 있었다. 그것은 만성(慢性)도 이만저만이 아닌 무쇠처럼 굳어진 고질이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가까이는 해방 후 15년, 그리고 멀리 소급(溯及)하면 이 나라의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 고질을 점차 굳히는 역할 밖에 한 것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굳어진 민족의 병폐가 아무리 과단(果斷)한 수술이라고는 하지만 하루 아침에 완전히 치유되어서 결결 웃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아니 오히려 대수술 직후의 진통의 와중(渦中)에 있음을 명감(銘感)함이 당연타 할 것이다. 오랜 시일을 두고 숨겨있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확(的確)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의사 시키는 대로 실천하면서 참고 기다려야만 완치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군인이다. 혁명의 주도세력이며, 혁명 과업 수행의 담당자로서의 군인임을 상도(想到)할 때, 지난날과 같이 무엇이든 주도자이기 때문에 품기 쉽고 또 실현 가능했던 엉뚱한 욕망 대신, 앞장서서 내뱉(耐乏)하고, 기다리고, 필요하면 희생까지도 감수(甘受)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



<필 자>

우리는 과거보다 달라야 할 점을 발견하기에 급급하지만, 바로 이 점, 즉 주도자이기 때문에, 수고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희생해야 한다는 각성(覺性) -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용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현하(現下) 우리나라가 바라는 인물이다. 그래서 다음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갖춰야 할 사항을 필자의 협소(狹小)한 견지(見地)에서나마 논해 보고자 한다.

매사에 그렇겠지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는 신념이 있어야 하겠다. 신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기실(其實)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쫓대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없지도 않다. 필자가 어렸을 때의 일이지만, 같은 동리(洞里)에 사는 어떤 외모는 제법 의젓한 사람이 하두 주변머리가 없어서 늘 주위 사람에게서 희롱을 당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그 사람은 쟁쟁하니 맑은 날에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오늘은 꼭 비가 올 것 같다고 얼러대면 그만 얼마 안 가서 넘어 가버려 그렇다고 동조했고 웃음을 샀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비가 방금 오고 있는데 자꾸만 오늘은 쾌청할 것이라고 하면 이에도 고개를 끄덕이는 그였다. 이런 예는 아주 극단이었지만 우리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냉성(冷省)하면 이런 이야기가 전혀 우리와 무관하다고만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기다림은 곧 참는 것이요, 참음은 고통으로 통하는 것인데 땀땀한 신념 없이 기다림은 고기(孤期)할 수 없다. 서양 이언(異言)에 기다리는 자에게는 만사가 성취된다(Everything comes to those who wait)ms 말이 있지만, 이 말은 곧 기다림이 얼마나 큰 고통과 인내를 강요하는 가를 밝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만사가 성취된다고 하니 이뤄진 만사를 놓고 볼 때에 어떤 눈물겨운 고통 없이 이뤄진 일이 있던가? 이렇듯 극심한 고통은 신념으로서만 감당이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신념 없는 인간에게서는 여하(如何)한 성공도 바라서는 안 된다.

무릇 인간은 신념이 생길 때 강해지고, 마음에 화평이 와지고, 매사에 진지해진다. 어떤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침착하게, 차근차근히 헤집고 골라서 극복할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침착하게 차근차근히 헤집고 고르는 것이 곧 기다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신념과 기다림은 불가분리(不可分離)의 사이라 하겠다.

그럼 여사(如斯)히 우리네 인생을 좌우하는 신념이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는가. 얼핏 신념하면 필생(畢生)까지 견지(堅持)할 수 있는 일관된 신조로 알지만 - 물론 그런 신념이 있을 수도 있고, 가질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다행이 없겠지만 - 가변성(可變性) 속에 사는 인간에게는 어떤 시점에 섰을 때 그 시점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신념만 있어도 당연하다고 사료(思料)된다. 어제와 오늘의 신념이 달라도 할 수 없다. 확고부동(確固不動)한 정의를 밀받침만 있다면 여하튼 우리는 일시도 신념이 빈 공간(空間) 상태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정(靜)은 있을 수 없다. 동(動)이다. 목숨이 있는 한. 그렇다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여하(如何)히 움직이느냐가 신념의 유무와 유관계 된다. 아무리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그것이 타율적이거나 강제가 아니고 반드시 목적과 유기성(有機性)을 갖고 있어야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목적 - 그것이 바로 신념이다.

우리의 현 시점은 군인이란 신분에 있다. 물론 군인을 직업시하지 않고 단지 국민의 의무를 위해서 했수를 서약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여하튼 현재는 군인입에 틀림없고 보면 군인 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신념을 구현하는 수 밖에 없다. 어떤 신념이라도 좋다. 과연 신념이 있는 인간이라면 어떤 자리, 어떤 처지를 막론하고 그 자리, 그 처지가 곧 자기 신념의 구현과 통할 수 있도록 만들기에 전력을 경주(傾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가끔 이등병들이 주로 하는 연락병의 모임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갖는데 그때마다 천편일률(千篇一律)로 꼭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즉, 이등병으로서 말아야 하는 연락업무를 완전무결하게 수행토록 노력하라. 그것이 계급장만 목직하고 자기 책임을 제대로 완수 못하는 고급 장교보다도 군에서나 인간면에서 훨씬 앞서서 하는 것이 된다고.

물론 군은 계급으로 층하(層下)가 되어져 있지만 참된 민주군대라면 계급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과연 자기 능력이 그 계급에 합당한가를 검토하고 스스로의 지식과 인격을 고양(高揚)하기에 힘쓸 줄 알아야 할 줄로 안다. 비록 계급은 이등병이지만 굳건한 신념의 사람으로서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한 처지가 부닥치더라도 신념을 위해 참고, 또 신념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 인간의 가치로 따질 때 최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것이 모두 참고 기다리는 데서의 결과가 된다.

군인들 중에는 일신의 영달(榮達)에만 눈이 어두워서 자기 자신을 알아보기도 전에 높은 계급, 좋은 보직(補職)만 탐해서 부당한 방법과 비굴한 행동으로 괴이스러운 처사를 하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그레삼의 법칙(Gresham's Law)이 군 내에도 통용된 예가 있었다고 해서 실언(失言)이라고 책(責)할 자 있을까. 돈으로, 아부, 기타 졸렬한 방법으로 능히 진급도 하고 선량한 사람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 전무(全無)했던가? 중직(重職)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이런 가능성을 묵인 내지 조장한 일은 없었던가? 이것은 이(李)·장(張) 양(兩) 정권 자체가 부패했던 탓으로만 돌리기에 너무나 큰 우리 군의 반성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자기에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노라면 자연히 진급도 되고 영전(榮轉)도 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니고 맡은 일은 동맹이치고 소위 뺄 운동을 잘해야 전기(前記)한 영진(榮進)이 왔든 과거의 악몽스러운 예들이 재현될 리는 만무하고 앞으로는 성실히 일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광명이 올 줄로 확신할 수 있어야 겠다. 양심이 없어서 그랬던 것

이 아니라 알면서도 양심이 마비되었었기 때문에 이는 가능하다고 본다. 혁명은 그 마비증을 일축(一蹴)했다. 다음 현하(現下) 우리를 군인의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해서 한 마디만 부언(附言)해 두고 결론지어 볼까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성실(誠實)하고 부단(不斷)한 노력(努力)이라고 말하고 싶다. 성실은 곧 부단에 통하겠지만, 부단하기만 하고 성실치 못할 수 있겠기에 이렇게 말해본다. 예들 들자.

병과(兵科) 출신 사병들은 3년만 되면 여지 없이 제대가 된다. 물론 그들이 3년동안 많은 수고를 했지만, 마지막 끝판에 가서 그만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예가 허다하다. 제대 예정일자를 3·4개월 앞두고 벌써 자기가 제대 예정자라는 태도를 밖에도 드러낸다. 거저말로 휴가를 피한다. 피병으로 내무반에 늙는다. 직장에 나와도 일을 앓는다. 내무 생활에 열외가 되려고 시도한다. …… 등 이때까지 순진하고 착실한 군인으로만 믿었던 상관이나 상급자에게 큰 실망을 주는 행동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물론 전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또 당자(當者)들만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다. 그럴 가능성을 주는 상관이나 상급자에게도 책임의 일단(一端)은 있는 것이다.

여사(如斯)한 행동은 성실하지도 부단하지도 못한, 군인의 취할 입장에서 벗어난 행동이다. 개인의 생명이 단절될 때 곧 죽음이 오듯, 인간이 자기 활동을 중지하였을 때 내적으로는 살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인생으로선 확실히 죽은 인생이다. 인생을 중단한다! 확실히 어리석은 것이다. 확실히 죄스러운 것이다.

제대가 되었건, 바라던 진급에 누락되었건, 그것과 인생(人生)을 인생(人生)하는 것과는 무관하여야 마땅하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영문(營門)을 나서는 순간까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인생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요, 진급에 빠졌으면 가일층(加一層) 분발해서 노력을 할망정 소위 진급병(進級病)에 이병(罹病)되어서 결근을 하거나 내무반에 누어서는 안 된다. 부하는 동료는 이런 개인의 생활 환경에 속이 왔을 때 그 인간을 평소보다 예리하게 관찰한다. 속이 오는 대로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져서야 어찌 부하를 통솔하겠는가. 동료들의 신망을 얻겠는가. 참아야 한다.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 열심히 일하면서.

결미(結尾)를 지어야 할 단계다. 약간 길게 결론을 내려보자.

우리는 혁명 과업을 주도하는 군인의 입장에서 적어도 다음 네 가지 사항만은 지켜야 할 줄로 안다.

一. 전죄(前罪)를 솔직히 뉘우치자.

二. 촌시(寸時)라도 용출(湧出)하는 활동력을 잃지 말자.

三. 개인은 한 알의 썩지 않는 밀알이 되기를 원하자.

四. 혁명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남이 해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첫째로 전죄(前罪)를 솔직히 뉘우쳐야겠다. 인간 혁명이 곧 이에서 시발(始發)되는 것이다. 전죄가 전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양심을 음폐(陰蔽)하고, 자기 변명에만 급급하는 사람이 아닐까. 사람은 신(神)일 수 없다. 때문에 완전할 수 없고, 완전치 못하니까 다소간 흠티가 있지. 이 다소간의 전죄를 솔직히 뉘우치고 그야말로 빈 마음이 되어서 혁명 대열에 끼우자는 말이다. 지난날의 잘못을 요리 핑계 저리 핑계로 자가두호(自家斗護)를 하면서 입술로만 혁명 혁명 해서는 우리의 혁명은 허사가 된다. 우선 자신의 혁명부터 하자. 그러기 위해서 전죄를 솔직히 뉘우치자.

다음 용출(湧出)하는 활동력을 언제나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된 물은 썩는다. 그러나 흐르는 물, 특히 땅속에서 힘차게 용출하는 샘물은 결코 썩지 않을 뿐 아니라 썩은 것을 깨끗이 씻어 준다. 용출하는 샘에 썩은 물을 부어 보라. 순식간에 씻겨 버린다. 흔적도 없이 말이다. 그러나 반대로 그릇에 담긴 물에 조급이라도 더러운 물을 섞어 보라. 곧 똑같이 더러운 물로 화(化)한다. 흐름! 용출! 이것이 썩음을 방지하는 방부제임을 명심하자.

잘들 한다는 식으로 혁명 과업은 남에게 맡기고 자신은 숙수(束手)한 채 정지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벌써 썩기 시작한다. 정신이 썩고, 육체에는 병균이 침식(侵蝕)한다. 우리는 촌시(寸時)도 정지해서는 안 된다. 잡자는 것까지도 활동을 위한 활력의 원천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목적을 갖자. 신념을 갖자. 그리하여 그 목적, 그 신념에 악착같이 매달려서 발버둥 치며 활동하자. 좋은 것, 행복은 이러한 동안에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법이다. 기다리는 방법이 곧 이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알의 썩지 않는 밀알이 될 각오를 가져야겠다. 전죄를 뉘우치고 빈 마음이 되고, 용출하는 활동력을 갖고 일하되, 그 일 자체가 국가, 민족을 위해 유익해야 할 것이 아닌가. 사람들 중에서 당장의 출세, 당장의 영광을 위해 맹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썩지 않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사람을 환영해야 할 것이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일단 자기를 썩히고서야 싹을 내듯 우리 자신은 썩히고 그 대신 새로운 싹을 내서 배, 천배를 결실(結實)할 수 있는 밀의 싹이 되는 사람 - 멸사성인(滅死成仁)하는 사람 - 이 혁명 도상(途上)에 있는 이 나라에 절실히 필요하다. 현하(現下) 재건 국민운동(再建國民運動)이다. 신생활운동(新生活運動)이 전개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벌써부터 모두 썩지 않는 밀알의 구실을 했었다면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이런 운동이 전개될 턱이 없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너무나 성실성이 없었다. 너무나 기다릴 줄을 몰랐다. 당장 발뽀리의 일만 알았지, 남을 위한다거나 먼 장래를 위해서 일할 줄을 몰랐다. 자기 옷을 베끼는 것과 진배없는 벌목(伐木)을 저렇듯 가혹히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따위 우매하고 강박스럽고 화목할 줄 모르는 행위는 결코 그때그때에 형성되는 민족성의 편린(片鱗)이 아니고 오래된 전통에서 결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춧돌이 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조리 대들보가 아니면 기둥이 되겠다고 아우성을 치니 집어볼 턱이 없다. 승강자가 없을 리 없다. 이조(李朝) 500년의 4색(色) 당쟁(黨爭)이나 가까이 이(李)·장(張) 양(兩) 정권 하에서 난잡스러운 권력 다툼이 모두 민족성의 흐름

에서 이뤄진 것이다. 고(故)로 이번 혁명의 지도자들은 인간 혁명을 그렇듯 절절하게 부르짖었다. 민족성마저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혁명 과업의 순탄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민족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을 뜯어고쳐서 대들보나 기둥은 감당키 어렵다고 서로 양보하고 저마다 주춧돌의 한 모서리가 되겠노라 겸양(謙讓)해질 때 이 나라는 서리라고 본다. 혁명 과업으로 할 일이 얼마든지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 이 문제다. 인간 혁명이다. 겸양이다. 밀알 될 각오이다.

끝으로 혁명은 우리 자신이 할 것이지, 남이 해서 우리는 혜택만을 받는, 즉 곳 구경하고 떡만 먹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혁명은 자신의 문제이다. 위정자나 어떤 특정자의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없다. 죽어도 살아도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참된 인간이다. 나 자신을 내가 혁명하자.

사람들 가운데는 거의 혁명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측도 있겠지만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면 자아망각(自我忘却)이다. 있다. 누구에게나 혁명해야 할 건덕지가 있다. 발견되지 않거든 찾아라. 찾아도 보이지 않거든 이웃에게 물어라. 그래도 없다면 각자의 생활 하나하나를 자상히 분석해야지. 자고, 일고, 밥 먹고, 변소 가고, 출근하고, 남을 대하고, 일을 하고 아이들과 놀고, 아내와 대하고, 책을 읽고, 술을 마시고, 극장에 가고 …… 이렇게 따져도 하나도 흠티가 없고, 고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길 그만둬야 한다. 신(神)이다. 그러나 신과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단연코 없어! 솔직하라! 음폐(陰蔽)하지 말라! 자기 잘못을.

고치자. 그릇된 것, 잘못된 생각 말이다. 과감해야 한다. 요번만은 예외라는 식, 부득이었다는 변명 있을 수 없다. 핑계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시일의 경과가 혁명 과업에 어떤 지장을 초래치 않을까 우려되는 판국인데 우리 주도층인 군인이 핑계를 꾸며서야 되겠는가.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에게 돌리지 말자. 특권의식을 아주 버리자. 군인이 혁명했다고 특권의식을 가지면 이(李)·장(張) 양(兩) 정권 시대와 다를 게 뭔가? 우리는 이런 것부터 혁명하여야 한다.

잔칫집에서 음식 차릴 때 주인끼리 먹으려고 떡 만들고 술 빚나? 아니다. 객대(客待)를 위해서이다. 주인은 굶는 한이 있더라도 하객들에게 배불리 먹이고 싶은 것이 참된 주인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의 혁명도 마찬가지다. 군인은 주인이다. 주인이 손님은 아랑곳 않고 자기만 푸짐히 한상 차려놓고 먹고 마신다면 반발(反撥)치 않을, 이죽대지 않을 객이 어디 있겠는가. 군인보다, 주인보다, 일반에게, 객에게 먼저 대접하자. 맛있는 떡과 술을 우선 국민에게 주자. 그리고 주인된 우리는 잔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먹자. 떡다 남은 찌꺼기를. 혁명이 완전히 제 체도에 오른 다음에야 주인인들 마음놓고 떡을 먹을 수 없겠는가. 이 나라가 바로 서고 기틀이 튼튼해진 연후면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봉급도 인상되고 보급도 좋아질 것이다. 주인부터 먼저 먹느라고 서두르다가 잔치 분위기를 깨치고 엉망이 될까 염려하고, 주린 창자를 부여잡고라도 무사히 잔치가 끝나고 안도의 숨을 쉬면서 모두 먹고 남은 찌꺼기일망정 달게 먹을 수 있는 아량을 우리는 가져야겠다. 참자! 기다리자! 용출하는 샘과 같은 활동력으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필자·제7항로보안단 행정관실 근무)

## <가작(佳作)>

- 혁명 과업 완수를 위한 군(軍) 내 현상(懸賞) 논문 입선작 -

## 5 · 16 혁명의 역사적 의미

병장 문명진(文明振)

### 一. 서언

유구한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인간의 단순한 시간적 현실이라고 정의하기엔 인간이 시간과 사회적 현실 속에서 너무도 고된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의미가 실로 부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인류는 모든 생활면에 있어서 그 현실의 사회적 조건을 초월하여 주체성을 한 번도 상실해 본 적이 없었다는 점, 거기에 인간은 보다 더 강한 사회적 동물이라는 대명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가치가 있음은 새삼스럽게 재언을 요(要)하지 않는 바이다.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는 무수한 역경과 고난의 흔적을 간직한 채 시간과 현실과 지역의 동서를 초월하여 변함없이 사회적 환경에 대한 승리자에게 고귀한 실(實)을 주었음을 말하며, 세계와 현실에 굴복한 무리(群)에게 삶의 노예됨을 면치 못한 껍박한 생활의 연속만을 선물하여 왔다는 진리를 증명하고 있음이 오늘의 역역한 현실임에 틀림이 없다.

그것은 또한 개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더 광범위하게 그 시대 현실에 임한 전체적 생명, 즉 한 민족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인간이 고립하여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의 증인이 된다.

광대무변한 대자연과 싸워 온 생명의 피어린 대가는 드디어 오늘날의 휘황찬란한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을 이룩하고야 말았으니 역경에서 투쟁하는 인류는 반드시 위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당연히 위대한 존재요, 인간은 그 위대해지려고 하는 욕망과 노력 속에서 생명의 의미가 큰 사회적 동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인류가 걸어온 역사적 배경은 일정한 식(式)과 격(格)을 가진 고정된 생활 현실만은 결코 아니었으며 현실 그 자체는 변화무궁했던 삶의 요소로서, 인간을 안이하게 맞아 주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고민하고 당황하게 하였던 만큼 인류는 언제나 시간과 함께 변해오는 새로운 현실과 접하여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될 육중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회적 갈등과 고난과 불안 속에서 시들지 않고 끈기 있게 낙망을 모르고 진실한 의미의 필요와 편리를 위해서 현실을 극복하고 아직도 주어지지 않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무한한 정열과 생명의 깊이와 폭과 높이를 찾는 용기를 갖고 세계적 존재로서 군림하지 않으면 안 될 또 하나의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것이 그저 막연히 인류문화 발달사에 대한 고찰이 아니요, 남의 일이 아니라 바야흐로 과감한 혁명 대열에 참여한 이 민족 전체의 벽한 현실임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보다 더 심각한 각오를 지녀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제 우리 민족은 암담했던 절망의 과거사를 계속하던가, 아니면 이 민족이 길이 변영할 역사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던가, 하여튼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정 실천해야 할 절박한 자신들임을 다 같이 느껴야 할 것이다.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서서 이제 우리에게 미래의 뚜렷한 방향을 우리 민족이 걸어 나갈 오직 하나의 길(道)을 택할 신성한 의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피를 씹는 노력과 여하한 희생도 각오하는 뜨거운 민족적 정열을 내 조국에 뿌리자.

## 二. 역경의 한국사(韓國史)(현실)

반만년 역사와 찬란한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수난의 과거사를 더듬어 볼 때 우리의 유구한 국사(國史)는 실로 비애와 압박과 분노, 울분과 고민의 도가니였던가 싶다. 배달민족임을 자부해 왔던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오늘 과연 어떤 형태의 민족혼이 있는가? 아무리 살살이 뒤져보아도 민족의 뜨거운 불씨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역사 전통과 단일민족을 자부했던 궁지로 한날 입버릇에 불과했던지 오늘날 우리들은 씩씩한 사회적 현실에 뒤떨어진 채 이 민족의 생사를 결단할 역사적인 순간을 또다시 접하게 되고야 말았으니, 불신과 기만과 증오와 배타로 가득 채워진 치욕의 과거사를 이 겨레가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가슴마다, 사고와 시선이 미치는 구석구석마다 정신이 작용하는 주변과 한계에서 송두리째로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하겠다.

진정 이 민족이 변영할 수 있는 진로는 과거사를 완전히 전복시킴으로써 만신창이가 된 우리들 폐허의 터전에 배달민족의 억센 단결의 념을 심는 민족운동이다. 전통과 역사가 이 나라, 이 겨레의 미래를 주는 것이 아님을 체험한 우리들이 고(故)로 오로지 우리가 지닌 정열과 고혈을 아낌없이 짜내어 민족의 앞길에 불을 밝히는 눈물 어린 현실에 인종하는 태도만이 절대로 필요할 뿐이다.

이 민족이 걸어온 허다한 울분의 역사는 소수 위정자의 과실로 미루어 왔지만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일대 과업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데 있어선 너, 나 할 것 없이 삼천만의 뼈 마디마디를 하나로 묶어 최후의 승리 일각까지 민족의 최선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든든한 기반 위에 서기 위하여, 자손 만대의 영화를 우리가 바라려면, 이제까지 편협했고, 소극적이었던 사리사욕을 떠나서 성스러운 민족운동의 힘찬 대열에 합세하여 목마르게 외쳤던 민족의 이상, 즉 확고한 민족 단결을 도모해야만 할 것이다. 백의민족(白衣民族)의 참된 면목을 일신(一新)함에 즈음하여 우리들의 습성이었던 배타심을 버리고 아직도 남아 있는 사대사상(事大思想)을 완전히 철폐시킴으로써 상호 이해와 동족 협조 속에서 단결을 도모하며 사치한 감정과 개개인의 영화를 희생하는 거룩한 태도로서 민족의 장래를 명시하는 뜻깊은 제 일보를 내딛는 데 힘차게 임하자. 압박과 설움에 몸부림쳤던 3·1 정신을 또다시 발휘하여 동족상쟁의 쓰라린 6·25를 상기하여 민족의 영원한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자.

국제 데모크라시의 대기운(大氣運)에 호응하는 민주체제의 확립과 실천을 위하여 우리들의 빈약한 민주주의가 걸어온 자취를 더듬어보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이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문화사적 견지에서 국가 흥망성쇠의 원인을 밝혀보는 것도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간악한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에 짓밟혀 신음했던 우리의 최근세사(最近世史)는 우리 민족의 각성을 요구했던 것이다.

단일민족의 궁지와 국가 주권을 빼앗기고 고유한 역사와 민족문화마저 짓밟히고 말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던가! 사대주의를 지상의 만능으로만 알고 모방만을 일삼으며 당쟁에 몰두했던 이조(李朝) 오백년사(史)의 너무나도 정당한 결과가 아니었던가…… 민족 자결주의를 전 세계의 여론이 제창하던 때와 시기를 같이해서 우리 민족은 세계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단결력 있는 민족성의 일면을 세계만방에 과시했던 것이 저 유명한 3·1운동이었다.

3·1운동이 청사(靑史)에 길이 빛을 잃지 않을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보다도 배달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거국적 민족 단결의 표본이 되어 항상 정의를 위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는 데 있어서 그 의미는 큰 것이다.

수없이 쓰러진 귀한 생명의 대가와 평화를 위하여 비겁하지 않았던 자유인의 피로써 우리 민족은 8·15의 기쁨을 맞이 하였던 것이지만 막상 말만이 해방이었을 뿐, 국토는 양단되고 또다시 동족상쟁의 비참한 전국(戰局)과



<필자>

사회적, 경제적 혼란 속에서 협잡과 기만으로 일관된 형식적 민주주의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탐관오리와 악질정상배가 범람하던 사회는 계속 불안정하여 민생고를 조장하였고 공산도배에게 남침의 호기(好機)를 제공하고 말았다. 8·15의 흥분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불의의 6·25를 맞았던 것이니 개인의 영달과 치부에 급급했던 정부가 그의 부패한 능력으로 도저히 공산괴뢰의 남침에 대항할 국방력이 없었던 것은 당연한 노릇이었다. 국민의 귀한 생명과 막대한 재산을 놈들의 손아귀로 고스란히 넘겨주고 수도(首都)를 물러나서야 정부가 그 집정의 과오를 느끼고 당황하였을 때는 이미 시기가 늦었고 죄 없는 목숨만을 헛된 재물로 놈들의 마수에 받쳤던 것이 아니었으랴. 천인공노할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눈앞에

겪으면서도 손 한 번 썩보지 못했던 자유당 정부는 남(南)으로 밀려만 갔던 것이니 영토의 대부분을 놈들이 짓밟았었다. 그러나 자유를 사랑하는 평화의 신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이 땅 위에 구원의 손길을 보냈던 것이니 그것이 다름 아닌 UN군의 역사적인 한국 전선(戰線) 과병이었던다. 풍전등화 격이던 국운을 자유우방의 따뜻한 원조와 아낌없는 희생의 덕으로 간신히 건져놓고 오랑캐를 다시 북으로 북으로 내몰아 쫓던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중공군의 출현은 천만의외의 일이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국군과 UN군은 작전상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없이 쓰러진 젊은이들의 피로 물들인 강산에 휴전이란 청천벽력이었다고 조국 통일을 염원하던 민족의 뼈에 사무치는 불길이 아니었을까. 놈들이 짓밟고 돌아간 연후에야 말로만 들어오던 공산주의가 얼마나 흉악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희미하게나마 체험했고 그 후 금일에 이르기까지 반공 국가의 제일가는 표본으로서 널리 전 세계 자유민의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다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승만 독재정부의 집권 십여 년간에 저지른 갖가지 죄악상은 여기서 또다시 논할 바 아니며, 4·19에 흘린 학도들의 피로 세워진 장(張) 정권도 국민을 실망케 했다는 점에서는 자유당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의 한국사는 어려운 고비만을 당하게 되었던가?

고래로 한국인은 평화를 사랑하고 근면하며 예의 바른 선량한 종족이었으며, 한반도가 처한 자연적 조건은 비옥한 옥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지녔고 알맞은 기후를 가져 충분히 발전의 여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비참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국민의 단결력이 극히 부족한 데다가 또한 다스리는 사람들의 정치 능력이 세련되지 못하여 정당한 체도를 찾지 못한 데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실정(失政)의 책임 전체는 꼭 위정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며, 범람하는 사회의 악조건 하에서 비록 살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맞장구를 친 국민에게도 그 일익이 있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일찍이 한국 민족 운동사 상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거국적 국민운동의 횃불을 밝혀 들었다. 온 겨레의 이성애, 그리고 자유민의 양심에 호소하는 5·16혁명을 일으키기까지에는 말할 수 없는 치욕의 역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었고 몰락 일로(一路)를 걷는 정치사회 현실에 대한 정의감의 용솟음과 인도적인 전국민의 요구가 있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16은 절망과 기권으로 충만된 이 나라, 이 민족의 구겨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고 굳건한 개혁의 우렁찬 종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한없이 전개되고 있다.

포화상태가 된 민족의 울분이 드디어 분화구를 찾은 것이다. 인습과 불신의 온상이 되어온 사회와, 기만과 농락의 집굴로 자라나온 위정자의 단상과 당쟁을 일삼던 정치 현실에 근본적 혁신을 요구하는 애국 시민의 목메인 함성이요, 내 나라, 내 민족의 번영을 염원하는 민족의 순결한 기로이며, 공산주의를 타도하려는 반공 정신의 표현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지극히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며,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가능한 세계를 우리들의 손으로 개척하려는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은 불과 수개월이 경과한 지금이지만 전 세계가 다 알고 이목과 시선을 모으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실로 큰 것이다.

이 민족의 영원한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엄숙한 순간에 임하여 남녀노소의 구별이 있을 수 없듯이 군(軍)과 민(民)의 한계가 없는 것이다. 혹자는 5·16을 군부가 감행한 일종의 정치 쿠데타로 왜곡된 해석을 붙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군부가 단독으로 의도했던 일시적 정부 전복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혁명정권이 내세운 공약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5·16 군사혁명 정부는 절대로 집권의 욕망에 사로잡힌 단체가 아님을 온 국민은 다 같이 알아야 한다. 만약 혁명정권이 국가 집정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들은 왜 과거의 자유당이나 민주당이 감행했던 것과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겠는가?

혁명정권의 이상은 오직 국민의 실천에 의해서만 살려질 수 있는 것이니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구약상을 일소하고 빈곤한 경제 체제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국민의 용기와 결단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무엇보다 반공을 제일 모토로 내세운 것만 보더라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충실히 호응함으로써 국제 무대에 나서려하는 즉, 세계성을 띄었다는 데 특색이 있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내적 충실을 기하려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는 크다.

5·16혁명은 정치 경제 및 일반사회 체도의 개혁에만 그 의도가 이끈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확고한 현실적 기반을 갖고, 민족의 공동 이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려는 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으킨 혁명이 단시일

내에는 절대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국민이 감수하는 고난과 투쟁의 크기에 그 속도가 비례한다는 것을 잘 알고, 미래의 국가의 변혁을 위해서 현재를 고통스럽게 맞는 위대한 희생정신과 각오를 가져야 한다. 결코 박(朴) 의장 한 개인의 힘으로만 우리의 혁명이 성취될 수 없는 것이요, 그렇다고 혁명을 군부 자체로서 완성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도 아닌 것이다. 국민이 하나로 동진 적극적 행동 없이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민족적 일대(一大) 과제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다만 피로서 피의 대가를 찾는 데 주저할 여유도 없다.

자유우방의 시선이 우리의 행동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이때에 그들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흘리고 간 거룩한 피의 대가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현으로서 보답해야 하겠다. 삼천만 모두가 혁명공약이 뜻한 바를 따라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다. 5·16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다시 있을 수 없는 최대, 최후의 유일한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우리에게 혁명 과업이 성취되지 못하면 민족의 운명은 과연 어떤 노선에 오를는지 예측마저 할 수 없이 막연함을 잊지 말자. 우리가 이 기회를 잃는다면 영원히 불행할 수 밖에 없다.

### 三. 5·16혁명의 의의

악몽에 시달려온 국민의 모두가 다 죄악과 부조리의 현실 조성에 가담했던 것은 아니었다. 우국 정열에 불타는 애국자의 눈에 죄악의 참상이 보였어도, 사회가 불의와 타협하는 잡음이 귀에 들렸어도, 입은 있으나 말할 수 없고 정의는 알지만 행할 수 없었다는 데 한국적 현실의 기이한 일면이 있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서 이른바 한국의 후진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과 부조리의 연속이 반복된 현실에서 살아오는 동안 고유한 민족성은 차례로 그 빛을 잃고 현실에 동화(同化)되고 말았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었다. 일부의 희망이었던 교육계마저 부패상을 드러냈던 것은 마치 세기말적 현상이 도래한 듯한 현실로서의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였던 것이다. 그릇된 인습과 기만으로 엮여졌던 우리들의 정부 수립 이후 13년간의 자유당 집정사는 결국 4·19의 돌발로서 그 종말을 고(告)하였던 것이다.

의회 정치의 간판을 내걸고 그 실(實)은 독재를 감행하던 자유당은 경찰권의 발동을 유일한 무기로 삼아 국민 여론을 제한함으로써 다수당의 체면과 명맥을 유지해 왔던 만큼 국회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체로 몇 번인가 형식적인 선거만의 거듭으로서 국민을 기만했다. 국민은 정치에 관한 관심을 잃고 자유당은 또다시 연구 집권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수의 위력을 믿고 개헌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 4·19의 폭풍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3·15 부정 선거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국민의 피와 땀을 요구하였을는지 가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전 세계는 다시 한번 경이의 시선을 한국에 모았으니 한국의 젊은 피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그들이 기적의 것 같지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당의 그늘 밑에서 자라온 민주당도 정권을 장악하기가 무섭게 국민의 지지와 여론은 아랑곳할 바 아니라는 듯이 내분에 혈안이 된 채 여념이 없었던 것은 너무도 뜻밖의 사실이었다. 국민의 새로운 정부에 대한 커다란 신망은 삼시간에 땅에 묻히고 정치와 사회는 또다시 암담한 역경에서 경제적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허덕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국민은 또하나의 혁명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자유당의 종말을 잘 아는 터임으로 또다시 적수 공권으로서 도저히 처리될 수 없는 기반을 갖고 있었던 것이니 오직 무력에 의존하는 혁명의 한 가지 방법이 우리 민족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군사혁명 지도자들은 놓치지 않고 영웅적인 무혈 혁명을 일으켰던 것이다.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함을 그 사명으로 하는 군대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오늘날까지 싸워 왔는가! 여기서 우리들은 5·16군사혁명의 의의와 필연성을 비로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5·16군사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군인이 정치를 하자는 것인가? 결코 아니다. 민주주의 국체를 우리가 가진 이상 이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5·16의 진정한 의의는 우리가 잘살기 위하여 과거의 모든 부패된 현실을 일소하고 미래의 확고한 기반을 만들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 기반이 이루어지면 군사혁명 정부는 정권을 다시 민간인에게 이양하고 군대가 그 혼연의 임무 수행으로 복귀한다는 데 있다고 본다.

5·16의 이상은 철저한 반공 민주국가의 건설로서 양단된 국토를 통일함이고, 더럽혀진 국민도의와 민족혼을 소생시켜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이며, 경제부흥을 실천하여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함이며, 자유 세계에서 민주국가로서의 뚜렷한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수호하려는 데 있다. 5·16군사혁명 정부는 지난 8월 12일 주목할 만한 내용의 성명서를 온 국민 앞에 발표함으로써 그 태도를 더욱 명확히 하였다. 정권을 다시 민간인에게 이양하는 데 있어서 최단 시일 내에 국민이 정권을 인계받아 정치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충분히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 군인 전체가 혁명 이념에 위배됨이 없는 태도를 가져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혁명정부의 성명이 틀림없이 실천되게 하기 위하여 국민 자신이 먼저 정부가 요망하는 바를 실천해야 한다. 새로운 정국에 접하는 국민의 태도 여하에 따라 미래의 조국 운명이 그 방향을 결정하리라는 것을 추후도 의심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므로 5·16군사혁명의 이상은 오직 국민의 실천에 의해서만 그 생명이 영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건설적인 현재의 순간순간에 충실하여야 함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우리에게 만약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현재를 벗어난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四. 결론(結言)

눈부신 세계사는 인간의 피땀의 결정이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문화를 짓밟고 문명을 불사른 유일한 파괴자이기도 하다. 어느 민족사나 사회 발달사의 페이지를 우리가 주의하여 관찰한다면 그 속에 우리가 꼭 알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진리가 숨어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즉, 역사의 창조와 파괴의 과정에 대한 올바른 해명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민족이 처한 입장이 행동을 강력히 요구하는 국가의 새살림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놓여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의 번성해야 할 국가 건설과 민족 단결을 위해서 과거의 문화사가 걸어온 흔적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인간은 오늘까지 자연과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인간 자신이 만든 문명, 문화와 사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또는 공동 존립의 안전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있어야 할 영원한 인간의 미래는 정의와 진리에 충성하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지상 최고의 이상을 실현하는 행동과 노력의 연속에서 구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믿는다.

인간이 가진 생명의 의미는 그저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 가치를 찾기 위한 부단한 행동의 실체로서 존재하려 하는데 현대인의 이상이 살려질 수 있을 것만 같다. 이제 우리 민족에게도 절실한 하나의 요구를 위해 일심단결하여 힘을 바쳐야 할 시기가 오고야 말았으니 우리는 더 높이 뛰기 위해서 더 많이 구부러야 할 것이다.

지중해 연안에 번성했던 민족은 궁색한 자연적 조건 하에서 그들은 오직 살기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모험했던 결과가 세계사를 장식한 바 있는 웅대한 지중해 문화를 이루었던 것이다. 그들이 당면했던 현실은 막막한 대해(大海)의 노도와 굶주림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민족은 굶주림을 감수하고 바다와 싸워서 굴하지 않으므로써 지중해 일대를 장악했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필요를 위해서 모험을 해야했고 투쟁을 통해서 오직 건설했던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국제적 지위는 전 세계의 평화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을 만큼 강대한 것이지만 미국이 건국된 지 불과 이백 년 미만의 역사가 오늘의 미국을 만들기까지엔 위대한 미국민의 초인간적인 희생과 봉사와 투쟁의 대가였음을 누구나 긍정할 수 있는 것이다. 중세의 탄압과 종교적 억압에서 벗어나 학문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일업 편주에 그들의 모두를 걸고 대서양을 건넌던 전설같은 사실이 오늘날 강대 무쌍한 미국의 역사의 시초였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것처럼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들이 만약 평탄한 조건 위에 있었다면 결코 위대한 역사의 창조자로서 후세에 남지 못했으리라는 것이다. 그렇다! 위대한 문화와 역사는 항상 약자의 산물이었다.

지금의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다는 조건이 위대한 국가 재건의 계기가 됨을 서로 알고 삼천만이 하나로 뭉치는 날 이 땅 위에 영원한 번영이 찾아 들 것이다.

추악한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서 인습과 타성을 일소하고 다 같이 혁명의 우렁찬 대열에 참여하여 반공으로 조국 통일하고, 내핍 생활의 강조로서 경제 부흥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혁명 대열에 참여하는 국민 정신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려는 노력 속에 있어야 한다. 흠탕물이 멀리 흐르면 어느 때는 한번 맑아지는 진리처럼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피를 썩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면 우리 앞에 새로운 복지사회가 전개될 것을 의심치 않는 바이다.

5·16의 이상을 우리 손으로 완전히 실현함으로써 수없이 흘린 피의 대가를 찾고 어제의 잘못을 씻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국민의 한 사람도 나오됨이 없이 혁명의 힘찬 대열에 참여하는 길이 곧 우리가 찾는 살길이다. (필자·공사교(空士校) 행정관실 근무)

(23면에서)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행동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제까지 나는 행동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여 왔다. 그러나 행동이란 말이 지닌 다양성이나 모호성(模糊性)으로 인해 어떻게 내용을 배열하고 진술해야 할지 실로 곤란한 점이 너무도 많았다. 여하튼 행동이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선 동거나 욕구같은 기본적 개념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에 본래의 제목인 행동보다도 동기가 강조된 셈이다.

행동이란 생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적응이란 생체가 성공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회기구가 복잡해짐에 따라 더욱더 적응이란 문제가 중시되고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물질적인 문명이 고도로 발전해 갈수록 이에 상응하는 인간행동의 이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세계는 양자의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므로 보다 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고 해명하여 우리가 현재 부딪치고 있는 부조리를 해결하도록 진력(盡力)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구나 3차전(戰)의 위기에 직면하고 핵전쟁이라는 미증유(未曾有)의 비극을 미연(未然)에 방지하는 방도의 일부가 행동이란 문제에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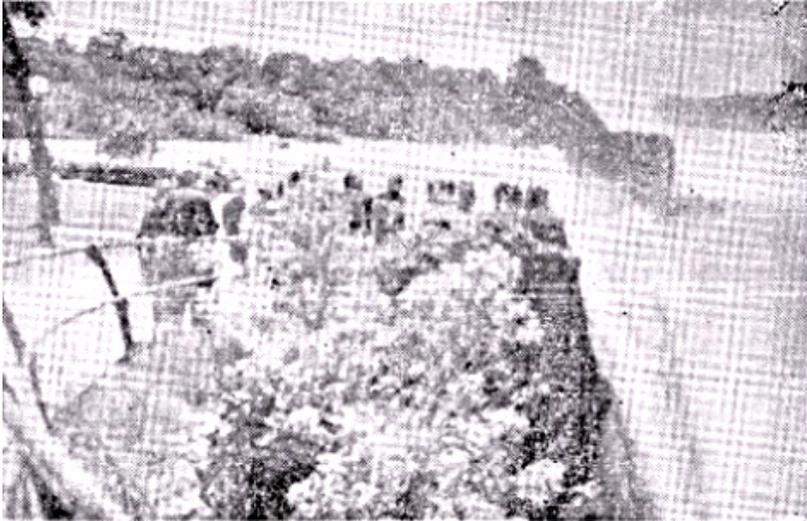
그리고 일단 어떤 전쟁이나 불의의 사면이 돌발했을 경우에도 사태를 회구(希求)하는 방향으로 보다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도 행동이 철저하게 연구되어야 하겠다.

한국이 오늘 처해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로 초조(焦燥)한 바가 있다. 인간행동의 법칙을 해명하고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생산적인 지도가 가해질 때 우리가 허덕이는 후진사회의 악순환이 보다 신속한 시일 내에 정지되고 약소국의 명예롭지 못한 위치에서 이탈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더구나 재건이라는 구호 아래 분기하고 있는 민족적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지금 이런 면도 한층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물질과학과 보조를 맞추어 행동과학도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차제(此際)에 한층 강조하면서 붓을 놓고 싶다.

(필자·서울 사대(師大) 교수)

## 나이아가라 폭포

세계의 경이(驚異)를 찾아서 ⑤  
리차드 하리바톤



나는 언젠가 학교에서 지리 시간에 학생들을 향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는 어디인가?”라고 물으니 모든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나이아가라”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남아메리카의 이과수와 남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도 또한 세계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니 여러 사람들이 의아해 하는 표정들을 하였다.

이 세 개의 폭포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월등하게 훌륭한 특출점을 가지고 있어 가히 세계 제일이라고 할 만한 점을 각기 지니고 있다.

나이아가라는 세계에서 수량(水量)이 가장 많은 폭포이다. 전 세계의 진수(眞水)가 거의 반분(半分)이나 모여 있는 4대호(湖) - 미시간호(湖), 휴론히(湖), 에리호(湖), 온타리오호(湖) - 의 중심적 출구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이아가라의 유수(流水)는 언제나 두절(杜絶)된 예가 없고 그 양은 막대한 것이다. 이과수와 빅토리아는 계절적으로 커다란 차가 있어 수 주간에 걸친 열대성 우기(雨期)에는 유수(流水)의 깊이는 20미터나 된다. 그때쯤의 이과수와 빅토리아는 가공(可恐)할 만한 경치를 이루어 이곳을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나 세계에서 가장 경탄(驚嘆)할 만한 폭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건조기(乾燥期)로 접어들면 이 두 개의 폭포수는 수심이 형편없이 얕아져 밑바닥을 겨우 적시면서 흘러내릴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폭포의 폭에 있어서 보기로 하자. 나이아가라는 1.59킬로, 빅토리아는 1.91킬로,



이과수는 3킬로나 된다.

높이도 나이아가라가 가장 낮아서 51미터, 다음의 이과수는 66미터, 빅토리아가 최고로 120미터가 된다.

그러나 경이적인 폭포가 되자면 길이라던가, 높이 같은 것 이외에 잘 보인다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 개의 폭포 가운데 나이아가라는 가장 잘 볼 수가 있다. 드라마틱한 20개소의 전망대에서는 그 전모(全貌)를 거의 다 볼 수 있다. (그래도 캐나다 측 폭포의 중심부에서는 물거품 안개 때문에 이따금씩 폭포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으나) 그러나 이과수 폭포에서는 폭포의 반쯤만 볼 수 있는 데가 없으며 빅토리아 폭포에서는 유수(流水)가 가장 인상적인 풍수기(豐水期)에는 폭포 밑에서 피어올라오는 물거품 구름이 너무나 짙기 때문에 며칠씩 폭포의 관망(觀望)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과수는 열대성 정글 깊숙히 있어 주위의 경치는 가장 아름답고 지금도 천년 전과 똑같이 야성(野性) 그대로 사람의 손에 다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거기서는 염서를 한 장 살 수도 없다. 빅토리아 폭포도 약간의 인공(人工)이 가해졌을 뿐이다. 그런데 나이아가라는 사람의 손이 많이 가서 근처에는 훌륭한 다리, 호텔, 발전소가 세워져 자연의 경관이 많이 손상되어 버렸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까닭으로 해서 왜 이 세 개의 폭포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냐고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나이아가라를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사진으로 많이 보았을 터이니 나와 같은 정도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아가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진을 찍고 한 폭포다. 아마도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구경을 갈 것이다. (빅토리아 폭포는 1년에 만 명, 이과수는 200명을 넘지 못할 것이다. 당장 내가 갔을 때에도 인디언의 안내인 이외는 아무도 없었다.)

나이아가라는 세속적이라는 평을 면치 못하지만 역시 우리들의 세계의 경이(驚異) 리스트에서는 상위를 점하는 것일 것이다. 외국 사람들은 나이아가라를 아메리카 대륙 제일의 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중국이나 멕시코로부터 미국 구경을 오는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그 점에서는 세계의 기관(奇觀)인 그랜드캐년까지도 일보(一步)를 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직 한번도 나이아가라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한번 가보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스릴을 느낄 것이라고 기대되며 또한 벌써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고 열망할 것이다.

나이아가라를 발견하고 그것에 관해서 처음으로 기술(記述)한 사람은 헤니핑 신부(神父)(캐나다의 후란씨스코와 선교사)로서 1678년의 일이었다. 그 당시 카메라라는 것이 아직 발명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헤니핑 신부가 본 것을 그대로 사진을 찍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왜 그러나 하면 이 폭포가 처음으로 사람 눈에 뜨이고 나서도 많은 변모(變貌)가 있었다.

마체형(馬蹄形)으로 되어있는 캐나다 측 폭포 모서리를 흘러 떨어지는 수량(水量)은 전체의 94%를 점하고 있는데 헤니핑 신부가 발견한 당시부터 끊임없이 자양작용(自壤作用)을 일으키고 있었다. 지질학자의 설에 의하면 1678년에는 이 마체형(馬蹄形)의 부분은 부드러운 만곡(灣曲)에 불과하였는데 그 후 점점 물에 갇혀서 중심부에서는 이미 300미터 이상이나 갇혀지고 더욱이 매년 1미터 내외는 갇혀져 없어진다고 한다.

그 결과 최근에는 마체형(馬蹄形)의 중심부는 격돌하는 물이 넘쳐서 빅토리아 폭포처럼 물안개 구름이 피어올라 바람이 이것을 날려 버리더라도 하지 않는 이상 언제까지나 우리들 시야에서 폭포를 감추어 버린다.

이 폭포의 미국 쪽 부분은 바른대로 말해서 캐나다 쪽만큼 인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단히 아름다운 경관을 갖추어 극히 단순하지만 언제나 그 전경(全景)을 한꺼번에 바라다 볼 수가 있다.

만약 나이아가라가 우리들에게 있어 참으로 근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헤니핑 신부는 그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신부가 이곳을 찾아왔을 때는 틀림없이 인디언의 오두막집을 빼놓고는 사람이 찾아온

## 낭만(浪漫)을 지닌 공군(空軍) 아저씨

김상주



현대를 이르되 질주와 비약의 신시대, 현대인의 생활의 리듬은 대도회(大都會)와 급행 열차와 비행기, 공장, 기관차, 라디오 속에 있다. 현대는 바야흐로 역학(力學)의 시대이며 공학(工學)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러한 뜻에서 공군 아저씨는 현대의 선구자요, 구사자(驅使者)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또한 낭만이 깃들어 있음은 빼놓을 수가 없다. 로망스(Romance)란 원어(源語)는 Latin어 계통의 말로서 속어(俗語), 비어(副語)를 말한다. 그 내용은 괴이하고 허황되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전기물(傳奇物)인데 이것은 주로 16세기 문예부흥(文藝復興) 시대에 와서 중세 Knight(기사(騎士))의 모험담과 공상담을 그 내용으로 한 근대소설 이전의 한 소설의 형태이었다. 나의 친구의 Fiancee(약혼자)에 공군 아저씨가 있었다. 그래서 종종 만나 환담을 하는 가운데는 으레히 하늘을 나르는 모험담이 나오곤 한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꼭두각시 인양 쫓기며 불안과 절박감에 의지조차 마비되어 버린 나에게 중세 기사들의 로망스에 향수를 느끼게 한다.

### 나는 이런 부하를 사랑한다

대위 장인섭(張仁燮)

나는 무엇보다 개성이 뚜렷한 부하가 좋다. 도시(都是) 있는지 없는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부하와 마주 앉아 있거란 여간 고역이 아니다. 차라리 따분한 영화의 스크린을 보는 편이 훨씬 속이 편하다. 군인도 군인이기 전에 인간이요, 인간의 인간됨은 그 뚜렷한 개성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또 적극적인 사람이 좋다. 유유낙낙 시키는 일이나 겨우 하는 정도의 융통성 없는 친구란 답답하기 짝막힌 줄속 같다. 물론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편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지 모르나 나는 단연 반대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응분의 창의성과 그를 추진하는 생명력이 최소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기계가 아닌 것이다. 과학전(科學戰)이니 사상전(思想戰)이니 하는 현대전(現代戰)도 따지고 보면 피아간(彼我間)의 창의성의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창의성과 이의 부단한 실천력!

× ×

‘행자(行者) 무언(無言)’이란 말이 있듯이 나는 또 변명하는 부하를 싫어한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말이 없다는 격으로 구질구질하게 이유를 주서 설기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따위는 딱 질색이다. 솔직하게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달게 받는 사람 - 그런 부하가 나는 좋다. 왜냐하면 그는 틀림없이 다시는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때로는 조국을 위해 그들의 애기(愛機)와 더불어 돌아 들지 않을 길로 스스로의 젊음을 바치는 그들은 정력과 발랄과 낭만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들에게는 당연 용맹의 화신(化身)으로 동경의 대상이 되고 만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허탈된 인간이 때로는 자기 방위에서 오는 도피 기제(機柁)로 말미암아 어두 검검한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인일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허망과 자학에서 폭우 속을 뚫고 숲속을 거닐며 낭만을 갈구하는 이러한 은폐와 퇴보적인 인간군에 비해서 무변(無邊)의 하늘을 정복하며 비약하는 그들의 낭만이 부럽기도 하다. 하기가 러시아의 어느 작가는 말하기를 “근대 생활은 가장 힘있는 에너지를 요구하는 동적인, 생산적인 시대이다. 강렬한 격동적인 기계 문명의 흐름 속에 있어서 그것을 타고 전진하려고 하는 자는 위대한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낭만주의를 신경 쇠약적이며 그것은 벌써 지나가 버린 예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말은 19세기 이전, 인간의 지혜가 아직 미개했던 때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후 프로이드에 의하여 인간행동은 의식보다 무의식에 의하여 더 많이 좌우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 인간은 하는 수 없이 이성적인 동물보다 감정적인 동물로서 더욱 적응될 것이다.

인간의 감정이 매마른 현대에 있어 더욱더 낭만이 그리워짐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란 속명을 지닌 탓이리라. 그래서 지금도 종종 친구의 공군 아저씨(나는 으레히 친구의 약혼자를 이렇게 부른다)를 만나 환담할 때 또는 공군 아저씨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몸에서 풍기는 근대성(近代性)과 낭만이 깃든 태고예의 향수를 느끼며 매마른 내 감정을 적시어 보기도 한다.

그때쯤은 기온이 영도(零度) 이하가 되고 폭포는 단단히 얼어 붙어 물거품 대신에 100만 톤이나 될 얼어 붙은 빙성(氷城) 위에 교착(交錯)하는 색채 광선을 볼 수가 있다. 이상으로 거대한 폭포의 하나를 본 셈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세 개의 폭포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이며 다른 어떤 폭포도 이렇게 크고 인상적이며 멋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그러나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이구아스 폭포를 보았을 때 그와 같은 생각을 바꾸게 될지 모른다. 그 폭포는 남아메리카의 정글 가운데서 우리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도 또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이다.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상록수(常綠樹)가 일대에 번무(繁茂)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골짜기에는 철교(鐵橋) 같은 경관을 망칠 만한 것도 없었고 단조롭게 벽으로 둘러싸인 발전소가 전망을 가로막거나 막대한 양의 물을 폭포에서 뿜아가는 일도 없었으며 더욱이 전차도 안내인도 없는 오직 음악 소리와도 같은 폭포 소리와 삼림(森林)을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 밖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우리들은 오늘날도 아직 칼데나스가 본 그대로의 그랜드캐니언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나이아가라에서는 그 눈부신 천연의 미관(美觀)은 헤니핑 신부에게 발견된 뒤부터 많은 불행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아직 열두 군데의 관망대에서 바라 다 본 나이아가라는 멋이 있고 장쾌(壯快)한 것이다. 먼저 미국 쪽 폭포 기슭에 서서 보기로 하자. 몇천, 몇만의 유수(流水)가 단애(斷涯) 위에서 용솨음치고 있다.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웅덩이는 50미터나 아래에 있는데 솟구쳐 뿜도는 물결과 물거품으로 가득 차 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1860년 웰스 공(公)(후의 영국 에드워드 7세)이 내방(來訪)하였을 때 부론딘이라는 줄타기 곡예사가 이 용솨음치는 폭포 웅덩이 위를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으로 쇠줄을 걸어놓고 그 뒤에서 놀라운 곡예를 하였다는 장소를 가르켜 주었다.

그리고 고트드(鳥)로 건너간다. 이 섬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미국 쪽과 캐나다 쪽으로 양분(兩分)하는 지점이다. 우리들은 안개구름이 낀 마체형(馬蹄形) 부분에 가능한 데까지 접근하면 굉음(轟音)은 귀창이 떨어질 정도이고 전신에 물거품을 뒤집어 쓰게 된다. 우리는 때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섬에서 튼튼한 쇠통에 들어가 캐나다 쪽 폭포 웅덩이로 뛰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거기에는 상륙(上陸)하거나 의지할 만한 바위같은 것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물론인 것이다. 우리들 일행 가운데 누가 장난 삼아서 한번 해보겠다고 한다면 나는 서슴치 않고 그것을 구경할 것이다.

우리들은 국제교(國際橋)를 건너 캐나다 쪽으로 가는 도중 레인코트를 입고 폭포 배면(背面)으로 통하는 터널을 물거품을 뒤집어 쓰면서 지나가게 된다. 바위에 뚫린 창으로 손을 뻗쳐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낙하하는 10미터나 두껍게 막을 친 폭포 뒤쪽에 손을 대 볼 수가 있다. 안개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거의 호흡할 수도, 볼 수도, 말할 수도 없다.

다음에 우리들은 안개 처녀호(處女號)를 타고 간다. 이 용감하고도 유명한 작은 보트는 격랑(激浪)의 분류(奔流) 위를 지나서 폭포 아래로 갔다가 거품으로 모습을 찾아보지 못할 때까지 단애(斷涯)를 향해서 돌진해 간다. 그리고 다시 골짜기 기슭을 16킬로 정도 내려가 그곳 급류 위에 걸린 케이블카를 타고 거의 10미터나 되는 물결을 일으키며 눈이 돌 정도의 속력으로 골짜기에 떨어져 부서지는 강물을 내려 다 본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밤이 되면 서치라이트에 비쳐서 역대(億臺)로 세 일 만큼 많은 촛불 빛처럼 보이는 폭포는 더 한층 경이적인 것이고 아름답기도 하다. 빛깔은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한다. 처음에는 낙하하는 물도, 안개구름도 장미색이다. 다음은 남색, 그리고 오렌지색 이렇게 변해간다. 맑게 개인 여름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불빛 속으로 떨어져 다시 암흑과 같은 계곡으로 홀연히 사라져가는 무지개같이 아름다운 폭포 광경은 이제까지 흔 어떤 호화한 무대장치보다도 월등한 장관이라 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추운 계절을 좋아한다면 2월경에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 나는 이런 상관을 존경한다

상병 송창성(宋昌成)

수원(水原) 어느 부대에 있을 때이다.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둔 어느 날 저녁, 나는 밀린 각종 보고서의 정리를 위하여 야근을 하고 있었다. 마침 사흘째 같이 일하는 K 하사가 주변 근무라 그날은 나 혼자였다. 따스한 난롯가에서 서류들 속에 박혀있는 깨알같은 숫자들과 씨름하던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깜박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송 상병!”

하는 짧은 목소리에 벌떡 일어난 나는 난로 옆에 우뚝 서 있는 대대장님을 발견했다.

“앗차, 이거 ……”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난로는 별정계 달아 오르고 있었다.

“아니야, 고단 할거야. 앉아. 마침 오는 길에 군밤 장사가 있길래 좀 사 왔지. 자, 먹어. 아직 화재 비상 5분 전이니까!”

× ×

그로부터 벌써 1년이 지났건만 나는 그때의 대대장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아니야, 고단 할거야.”하시던 그 너그러움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좋아하는 군밤을 손수 사 가지시고 찬 겨울 밤에 들어오신 그 정성.

그러나 무엇보다 ‘화재 비상 5분 전’의 교훈은 백 마디의 꾸중보다 더 세차게 나의 부실을 채찍질하는 말이었다. 본래 잠보인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잠으로 인하여 많은 기합을 받아왔다. 왜냐하면 잠이 많은 친구가 게으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내무반장은 집합 시 인제나 나를 제일 먼저 찾았고 내가 보이면 “집합 끝”을 보고했다. 내가 밥수저를 놓으면 물론 식사가 완료된 것이었다. 그러던 내가 그날을 계기로 결심을 새로이 했다. 나는 그 전날 대대장 훈시(訓示)에서 무심히 들었던 ‘5분 전 완료’의 생활태도를 단호히 실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화재 비상 5분 전’ 이 말은 이후 나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꾼 계기가 된 것이었고, 이것은 그날 그 대대장님의 “아니야, 고단 할거야. ……”라고 하는 따뜻한 말씀으로 시작된 말씀의 끝말이었다. 한마디로 나는 그 H 대대장님과 같은 분을 존경한다.



## 겨울철의 위생과 건강

한정수

겨울철이 다가오면 지난 여름과 가을에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던 모기와 파리가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고 여름철의 대표적 질환인 설사도 그 기세를 숙이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의 적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겨울철의 전염병을 옮기는 쥐 벼룩, 이들이 우리 주위에서 날뛰기 시작하고 한냉한 기온으로 인하여 겨울철의 대표적 질환인 호흡기 질환, 그중에서도 감기가 번창하고 동상 환자가 속발하게 된다.

건강 확보에는 두 가지 방도가 있다. 즉, 건강 장애 조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의학과 병약을 퇴치하는 치료의학의 두 방법이다. 전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후자는 그 다음가는 방법이므로 전자를 우선적, 후자를 이와 병행 실시함이 상식이다.

그런 고로 겨울철을 무병하게 지내려면 먼저 개인위생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그러면 지면도 제한되어 있으니 겨울철에 가장 많은 호흡기 질환과 쥐 벼룩, 이 등으로 전염되는 전염병 그리고 군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상에 관한 예방책을 중심으로 겨울철 위생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 1. 호흡기 질환

#### 찬 바람과 나쁜 공기를 피하자

나뭇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 폐렴 등 호흡기에 병환이 생기기 쉽다. 이는 찬 바람에 쏘임으로써 호흡기 점막의 혈관이 수축하여 피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의 저항력이 약하게 되어 세균의 침범이 용이하게 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환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임은 물론 찬 바람을 쏘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몸을 덥게 했다 차게 하는 것이 더 감기에 걸리기 쉽게 한다. 감기는 누구나 한 번씩 앓아보고 또 쉽게 낫는 병이라고 경시하기 쉬우나 이는 만병의 근원이다. 즉 감기로 인하여 몸이 쇠약해진 틈을 타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므로 중태에 빠지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기라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 것이며 적어도 한 달 이상 낫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는 대개 심한 다른 병이 속발 또는 병발할 때가 많으므로 의사에게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실내의 나쁜 공기를 자주 갈자

겨울철이면 방안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숯불, 구공탄, 난로 등을 사용하고 또 문을 꼭 닫고 여러 사람이 방에 모여 있게 되는 수가 많다. 이렇게 되면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등 나쁜 가스가 방안에 많이 생기고 또한 방안의 습도가 건조하게 되어 호흡기에도 나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폐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심하면 탄산가스 중독으로 생명을 잃게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겨울철에는 방 안의 공기를 자주 갈아서 신선한 공기로 대체시켜야 하며 또한 방안에 물수건을 건다든지 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아서 수증기가 생기게 하여 방안의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방안의 온도는 섭씨 18도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 되도록 밖에서 일광(日光)을 쬐이자

겨울철에는 날씨가 차므로 우리는 대개 방 안에서 문을 꼭 쳐 닫은 채 밖으로 좀처럼 나오려고 들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할 뿐 아니라 햇빛 즉, 자외선을 쬐이지 못하게 되어 우리 몸의 피부가 약해지고 또한 몸이 쇠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 봄에 날씨가 좋고 환기도 잘 하는데도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겨울동안에 햇빛을 충분히 쬐이지 못한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햇빛을 충분히 쬐이지 않으면 비타민D의 부족을 가져와서 우리 몸, 특히 뼈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겨울철에 될 수 있는 대로 밖에 나와 햇빛을 쬐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주의하여야 하겠다.

#### 식사의 영양분에 주의하자

우리 국민은 쌀이 주식이므로 함수탄소 섭취는 충분하지만 육류의 섭취가 적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량이 부족하여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의 균형이 잃게 되는 수가 많다. 더구나 겨울철에는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비타민이 부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영양분은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양이 일정하여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여도 다 섭취가 안 되는 것이므로 매일매일 적당한 양의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즉 한꺼번에 영양분이 많은 음식을 폭식하여서는 효과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건강히 하려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균등하게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무리한 과로를 피하고 찬 바람, 나쁜 공기를 피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햇빛을 쬐이도록 하고 음식물 섭취에 주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해소(기침)나 숨이 답답한 중세가 오랫동안 계속할 때는 서슴치 말고 의사의 진찰을 받고 올바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쥐 벼룩, 이(虱)로써 전염되는 전염병

쥐는 여름, 겨울을 가릴 것 없이 우리네 주위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유해한 동물인데 특히 겨울철에는 들(야외)에 나돌아 다니지 않고 주고 인가(人家)에서 음식을 훔쳐 먹고 기물(器物)을 파손하게 된다. 쥐로 인한 해독은 기물 파손이나 음식물을

훔쳐 먹는 정도를 훨씬 벗어나서 우리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일으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즉 들쥐(야생)가 가지고 있는 흑사병(黑死病), 발진열(發疹熱) 등의 세균이 쥐 벼룩을 통해서 사람의 피 속으로 들어오면 고열(高熱)이 나고 아주 무서운 - 치료하기 어려운 - 흑사병 또는 발진열이 발생하게 되어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된다.

또한 쥐가 음식물을 훔쳐 먹는 동안에 쥐의 똥이나 오줌이 음식물에 묻게 되며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 소위 식중독(食中毒)이 일어나게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쥐로 인한 해독이 적지 않으니만큼 겨울철 위생에는 쥐의 구제(구제)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하겠다. 쥐를 구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즉 쥐똥을 놓는다는 지 쥐약을 놓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안에 쥐가 못 들어오도록 구멍을 잘 막고 청결히 할 것이며 음식물을 잘 보관하여 쥐가 아무것도 얻어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로써 전파되는 발진티푸스와 재귀열(再歸熱)이라는 전염병이 있다. 겨울철에는 자연히 목욕을 자주 못하게 되고 또 옷을 여러 개 껴입게 되니까 몸이 불결하게 되고 따라서 이(虱)가 많이 번식하게 된다. 발진티푸스나 재귀열은 반드시 이로 인해서만 전파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가 환자의 피를 빨아 먹는 동안에 위에 말한 발진티푸스의 세균이 이의 창자 속으로 들어가서 무수히 번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의 대변과 함께 다른 사람의 몸에 묻게 되면 가려워서 긁는 동안에 생긴 상처를 통하여 건강한 사람의 피 속으로 세균이 들어가게 되어 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굳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1 내지 3주일 후에 병 증세가 나타나는데 고열이 나고 신경증상을 특히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심하면 곧 죽는 일도 있다. 이 병은 예방주사가 있으므로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예방주사를 맞으면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우리 몸에 생긴 항체(抗體) 때문에 병균을 이겨서 병이 생기지 않게 되고 또 병이 생기더라도 아주 경하게 앓게 된다.

이를 구제(驅除)하는 방법은 우선 몸을 청결히 하고 옷을 청결히 세탁하여 입고 자주 갈아입어서 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일단 이가 생기면 DDT나 린덴(Lindane) 같은 살충제를 뿌려서 죽인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러한 살충제에는 성충(成虫)만 죽고 알은 죽지 않으므로 한번 약을 뿌린 후 약 10일 후에 알이 간 뒤에 또한번 약을 뿌려야 한다. 또 세탁할 때에는 보통 세탁으로는 이나 알이 죽지 않으므로 의복을 섭씨 70도 이상으로 약 삼십 분간 끓여서 세탁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발생하면 고열이 나기 때문에 환자에 있던 이들이 전부 환자 몸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환자를 곧 격리해야 하며 이의 구제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발진티푸스나 재귀열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몸을 청결히 하고 옷을 세탁하여 자주 갈아입어서 이가 몸에 생기지 않게 하고 예방주사를 맞아서 면역성을 길러야 한다.



### 3. 동상(凍傷)

겨울철에는 한냉한 기온으로 인하여 손, 발, 또는 귀 끝에 동상이 생기는 일이 많다. 동상은 우리 피부를 차가운 공기 속에 장시간 노출시킴으로써 피부 표층에 분포되어 있는 액체가 얼어서 덩어리(결정)가 되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며 따라서 그 주위가 붓게 되는 것이다. 동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차가운 공이어나 특히 습기가 있는 차가운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할 때 더욱 잘 일어난다. 또한 옷을 꼭 몸에 끼게 입으면 보온력이 적어짐으로 동상에 걸리기 쉬우며 수족(手足)을 오랫동안 활동하지 않은 채 차게하면 동상에 또한 걸리기 쉽다. 그리고 순환기 계통에 병이 있는 사람이나 또는 신체에 나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빈혈이나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은 더욱 동상의 위험이 있다. 동상은 그 정도에 따라서 대개 3도까지로 구분하는데 조직이 완전히 파괴되어 썩어 버리면 제3도 동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3도 동상의 치료는 절단하여 버리는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동상은 결코 간단한 병이 아니니 특히 노인이나 어린아이들한테서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빈혈, 영양실조, 또는 갑상선기능저증(甲狀腺機能低症) 등 원래 가지고 있는 병을 찾아서 이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손발을 가볍고 따뜻한 옷으로 잘 싸주고 몸에 꼭 맞게 입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옷이 젖었을 경우에는 찬 곳에 오래 있으면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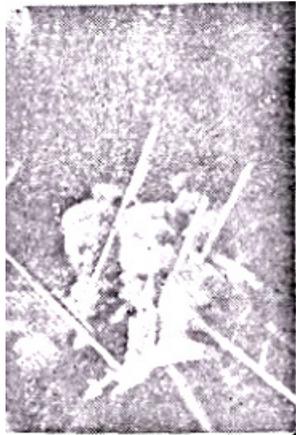
그리고 겸하여 주의할 것은 추울 때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다. 담배를 피우면 손과 발의 체온이 떨어진다고 한다. 반면에 추운 데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혈관수축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3시간마다 1온스의 위스키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자주 수족을 움직여서 활동시키고 마찰(마사지)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단 동상에 걸리면 절대로 마찰을 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찬 곳으로부터 서서히 몸을 녹여야 하며 갑자기 온 부분을 덥게 해서는 안 된다. 물집이 생길 정도로 좀 심한 동상에 걸리면 외과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동상의 예방은 몸을 튼튼히 하고 찬 냉기에 우리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병들어 울지 말고  
웃으며 청결 하자





<취미>

### 음악감상 A · B · C

- 다이제스트지(誌)에서 -

훌륭한 음악을 감상할 때 지나치게 엄숙한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음악은 즐거움을 위해 작곡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성(性)에 관한 것을 빼놓고는 음악, 특히 그중에서도 고전음악(古典音樂)에 대해서처럼 쓸데 없는 글들이 많이 쓰여진 것은 없다. 평론은 음악을 신화(神話), 금언(禁言), 미신(迷信), 전설(傳說)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격식으로 둘러 쌓았으며 따라서 아마추어에게는 점점 더 난해(難解)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고전음악의 작곡을 시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위대한 음악가들은 작곡하는 그 자체가 즐거워서 작곡을 하였거나 돈을 벌기 위하여, 원의 소녀의 즐거움을 위하여, 돈 많은 후원자의 찬양을 받기 위하여 또는 하느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작곡을 하였다. 그들의 음악은 대중이 음악에 맞추어 춤추고 노래 불렀으며 또는 교회에서 그들의 음악을 경허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나서 오래된 훗날에 고전음악이라는 딱딱한 명칭으로 불리어 지게 되었다. 후에 학자들이 그들의 음악을 해석하고 주(註)를 달아서는 거추장스럽게 엄숙한 절차를 밟아서만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작곡 당시의 대중이 음악을 듣고 즐기던 것처럼 위대한 음악을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우리들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적(魔笛)을 들을 때 그가 코니 아일랜드의 18세기 대곡(對曲)을 위한 관람객을 끌기 위하여 작곡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신성한 전당에 들어가듯 엄숙한 태도로 듣는다.

보통 영어로 죠 그린이라 불리우는 베르디(Verdi, Giuseppe 1813-1861)가 오페라 리콜레토를 작곡할 때 그는 상당히 능숙한 연극인으로서 하나의 특정한 노래가 히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베니스의 곤돌라 선두(船頭)를 따라 너무 빨리 유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라 돈나 에 모빌레(La donna mobile)(여인은 변하기 쉽다)의 악보를 최종적 시연(試演)을 할 때까지 오케스트라에 배포치 않았던 것이다. 베르디의 예측이 들어맞았다. 첫 막(幕)이 1851년 3월 11일에 열렸으며 라 돈나 에 모빌레는 선풍을 일으켰고 다음날부터 전(全) 베니스인이 그 노래를 불렀으며 일주일도 채 못 되어 전(全) 이탈리아인이 불렀던 것이다. 이 노래는 오늘날 클래식(고전음악)이 되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여전히 작곡가가 애당초 의도한 대로 멜로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여 주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지나치게 엄숙한 태도로서 고전음악을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고전학자나 명작곡가들도 인간이라는 점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으며 흔히 그들이 작곡한 음악의 풍부한 내용을 감상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어느 날 바흐의 음악의 심오함을 느낀 친구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그가 항상 겁이 났어. 나는 그가 승려인 줄 알았지. 알고보니 작식이 스물이나 되더군.”

어쨌서 현명하고 민감한 대중들이 연주회를 싫어하고 자신들의 드뷔시(Debussy, Achille Claude 1862-1918).

불(佛) 작곡가)다운 음악적 재질을 부인하며 바그너(Wagner Wilhelm Richard 1813-1883, 독(獨) 작곡가)를 멀리하는가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기는 하나 음악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음악은 이지적(理智的) 경험으로서 음악을 이해하면 할수록 더욱 매혹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음악은 정감의 경험으로서 음악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조차 갖지 않더라도 음악에 대해 감응하고 이끌리며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둔주곡(遁走曲)이 무엇인지 모르는가? 오버와 클라리넷의 구별을 못하는가? 시율(施律)조차도 모른단 말인가?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음악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음악을 듣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연주회에 가서는 처음 몇 분동안 음악을 듣는다. 그러나 곧 눈이 풀기 시작한다. 앞줄에 앉은 여인에게 시선이 멈춘다. 그녀가 전에 만났던 여인과 닮았다. 갑자기 듣던 음악을 잃는다.

이러한 경우 음악을 즐기면서 들을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다.

**작품의 부분, 부분을 경청한다.** 정신을 집중하여 가능한 한 음악에 몰두한다. 디시렌드(남북전쟁 중 남부에서 불리워진 노래로서 지금도 부른다.)의 청취자들이 하듯 음악을 듣는다. 리듬과 클라이막스를 느낀다. 음악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음악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즐거움이나 만족감 또는 흥분이나 비통한 감정을 느낀다.

**고조(高調)의 순간을 경청한다.** 거의 모든 음악의 곡에는 훌륭한 멜로디가 강조되거나 슬픔이 터지고 또는 반대로 하늘이 열리는 듯하고 바이올린이 내려가며 지상에 평화를 펴는 듯한 순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고조되는 순간들 사이에는 비교적 내재적 사상이 가벼운 것이 포함되어 있고 테마의 조각들이 들어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간격을 그냥 지나치며 고조의 순간을 경청함에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

**같은 음악을 자주 듣는다.** 로씨니는 자기의 경쟁상대자가 작곡한 새로운 오페라의 첫 연출 석상에서 모자를 그대로 쓰고 있었으며 오페라가 진행되는 동안 로씨니는 이따금 모자를 벗곤 했다. 이러한 그의 이상한 태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친근한 벗에 대해 인사를 차리는 것이 예의지요.”

음악에 있어서 친근한 벗에 대해 인사를 차리는 것은 실생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예의가 바를 뿐 아니라 매우 유익한 것이다. 귀에 익은 음악의 특성은 마치 친근한 벗처럼 언제 들어도 즐거운 것이다. 음악을 들을 때는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듣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새로운 것을 피하고 들은 것을 듣고 또 듣고 하여 반복해서 듣는 것이 좋다.

**멜로디를 분리한다.** 하나의 곡은 멜로디, 리듬, 하모니, 구성형태 등 여러 가지 요소로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청중이 가장 많이 감응하는 요소가 멜로디인 것이다. 곡의 주된 멜로디를 잡아서는 이를 따라가며 기분이 돌아가는 대로 자신을 내맡긴다. 또한 리듬을 인식한다. 리듬은 마치

#### <영화 설명>

### 로베레 장군

(이태리(伊太利)[이탈리아]영화IL GENERAL DELLA ROVERE)

- 네오리얼리즘과 로셀리니 감독에 대하여 -

필자는 여기에 소개하는 영화 ‘로베레 장군’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주기를 바란다. 이 영화야말로 민족적 각성과 애국정신을 불러 일으키는 보기 드문 명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영화는 영화 본래의 예술성을 높이 지니고 있으며 이태리(伊太利)의 이른바 네오 리얼리즘의 최근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60년 11월 21일호 TIME지(誌)에서도 명작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이 영화는 말하려면 먼저 전후(戰後) 이태리(伊太利)에서 대두한 네오 리얼리즘(미국에서는 ‘이탈리안 리얼리즘’이라고도 한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 **네오 리얼리즘** 해방 후 한때 외화 팬에 호평을 넘겼던 ‘자전거 도둑’, ‘무방비 도시’ 등은 아직도 우리의 인상에 뿌리 깊이 남아있다. 이 두 개 작품은 ‘로베레 장군’에서 주연으로 등장하는 빅로리오테.시카가 출연한 것으로 ‘로베레 장군’을 감독한 로베르트 로셀리니(Roberto Rossellini)와 더불어 네오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이 네오 리얼리즘

은 현재 세계적으로 화제거리가 되어 있는 불란서(佛蘭西)의 뉴벨.바그보다는 보다 건전하고 심도를 가진다. 단적으로 말하면 종전(終戰)을 전후한 혼란한 사회를 배경으로 작자가 직접 현실과 대결하여 객관적인 태도로서 다큐멘터리 수법과 드라마를 융합해서 인간성의 부활을 부르짖는 일련의 작품을 말하는 것이다. 이 네오 리얼리즘이 세계 영화계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며 또 한국의 관객이 ‘무방비 도시나 ‘자전거 도둑’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예술상의 하나의 주의(主義)가 영화 수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보다 크고 넓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표현에 관한 경향이었기 때문에 이 일파(一派)의 영화인들이 제각기 개인적 개성에 따라 변화해 간 것은 당연한



(로셀리니)

자기 자신이 그 속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느낀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음악을 선택한다. 많은 음악이 그런 것은 아니나 어떤 것은 최소한 기본이나 배경을 암시한다. 드뷔시의 '목신(牧神)의 오후'의 전주곡(前奏曲)(Prelude to the afternoon of a Faun), 멘델스존의 '한 여름밤의 꿈(Overture to a Midsummer Night's Dream), 차이코프스키의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 브람스의 'Academic Festival Overture', 스페타나의 'The Moldaw' 또는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The Pines of Rome) 등은 제목 자체부터가 내용을 이해함에 도움이 된다.

**로맨틱한 음악을 선택한다.** 어떤 음악이 각자의 구미(口味)에 맞을 것이라고 지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다만 지극히 극적(劇的)이고 풍부히 편곡된 위대한 19세기의 작곡가들이 작곡한 걸작품들이 아마도 직감적일 것이라는 점은 말할 수 있다.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베르디, 바그너, 슈베르트, 쇼팽, 벨리오즈, 푸치니 그리고 20세기의 낭만적인 작곡가들인 리차드 스트라우스, 마홀러, 라슈마니노프 등의 작품에서 음악이 처음에는 훨씬 감상하기 좋고 계속해서 들으면 차츰차츰 모차르트, 하이든, 헨델, 바흐 또는 스칼라티 등의 작품도 즐겨 감상하게 된다.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위대한 음악이란 간단히 말해서 평론가와 청중에게 다 함께 환영을 받는 것이다. 나는 전문적인 수준에 도달한 청중에게만 이해되는 음악곡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며 음악을 들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고 믿는다. 위대하다는 작품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 그 곡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것일 수 없는 것이다. 설혹 내일은 그것이 자신에게도 위대한 작품일 수 있겠지만 현재는 위대하지 못한 것이다.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예술가를 택한다.** 음악은 예술가가 그것을 육성으로 부르거나 악기로 연주하지 않는 한 종이에 적어 놓은 점에 불과한 것이다. 평론에 구애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충실해야 한다. 그 이유는 피아니스트 스피아토스라브 리쉬티의 연주에 대한 다음의 그럴듯한 두 가지 평론을 보면 알 수 있다.

뉴욕 타임스. 연주회는 실재였다. 연주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음악적으로 우아할 것이라고 기대한 청중의 기대에 어긋라졌다. 박자의 연속적인 실험으로 인하여 음악이 단절된 듯이 들렸다.

뉴욕 헤럴드 트리뷴. 피아노의 귀신이 두 개의 낡은 피아노 협주곡을 작열(灼熱)하는 광채로 만들었으며 음악가에게 갈채(喝采)를 보내기 보다는 오히려 허풍을 멈추기에 더 많이 손을 올리는 청중을 황홀하게 하였다. 위에서 말한 연주회에 갔던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의 소신(所信)을 가졌을 것이다.

**가볍게 받아 드린다.** 사람들은 흔히 연주회에서 경음악(輕音樂)을 들으면서도 엄숙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한 엄숙한 태도가 결코 음악을 보다 더 잘 이해하도록 돕지는 않는다. 꾸밈없는

노릇이며 따라서 그 소장(消長)이 작품상에 가장 크게 나타난 사람이 '로베레 장군'을 감독한 로셀리니였기 때문에 '로베레 장군'에 대한 세계 영화계의 관심도 그만큼 큰 바가 있다.

☆**로베레 장군'은 어떠한 영화인가?**

첫째로 지적해야 할 점이 이 작품은 이태리(伊太利)의 네오 리얼리즘 작가의 2대지주(二大支柱)인 로셀리니가 감독하고 데.시카가 주연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데.시카는 이미 배우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로셀리니가 잉그리드 버그만(Ingrid Bergman)과의 스캔들로 한동안 메카폰을 잡지 않다가 비로소 만들어 낸 것이 이 '로베레 장군'이었으니만큼 네오 리얼리즘의 거장으로서의 그의 저간(詰問)의 작가적 변모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 작품의 내용에 있다.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작품은 '죽음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여 영원한 생을 얻고 있다. 그것은 곧 레지스탕스 정신의 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의 암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개의 사기한(漢)이 뜻하지 않았던 계기에서 민족적 각성으로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태연히 죽어 간다. 이와 같은 과정이 다큐멘터리 수법에 의해서 감명 깊게 표현된다.

☆**스토리그와 배경**

이태리(伊太利)에 있어서 종전(終戰)이 가까워질 무렵, 1944년 겨울에서부터 1945년에 걸치는 수개월 동안 연합군은 북위 44선에서 진격이 중지되고 나치 독일군과 대치상태에 빠졌다. 이 얘기는 이 기간 북부 이태리(伊太利) 독일군의 점령하에 있는 항구 지아노가 무대가 된다. 지아노시(市)에는 많은 자유 이태리(伊太利) 빨치산이 독일군의 후방 교란(攪亂) 전선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되었다. 당시 이 빨치산은 독일에 반항하여 연합국과 손을 잡고있는 바도리오(종전 후 초대 수상)의 측근자 데라.로베레 장군이 지휘하고 있었다. 이 로베레 장군이 지아노시 근처에 있는 빨치산 게릴라부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어느 날 밤 지아노 근해 해안에 변장하여 상륙한다. 그러나 독군(獨軍) 사령관 뮤우라 대령은 이 정보를 미리 접수하고 로베레 장군을 사로잡아 인질로 삼아서 독군(獨軍)을 괴롭히는 게릴라부대의 지휘자를 캐내자는 계획을 세우고 로베레 장군의 생포를 명령했던 것이다. 그러나 로베레 장군의 얼굴을 전연 모르는 독군(獨軍)은 비상선에 걸린 로베레 장군을 사살하고 만다.

한편 이날 이른 아침 지아노시에는 베루우또네라는 도박과 여자로서 세월을 즐기는 사리한(漢)이 간밤에 도박으로 몽땅 주머니를 털리고 맥없는 발길로 정부(情婦) 바시아의 아파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육체미를 미끼로 남자의 돈을 노리는 바시아는 베루우또네가 요즘 도박으로 돈이 떨어지자 어느새 행방을 감추어 버리고 만다.

베루우또네는 다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간다. 그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리마루디라는 대령을 사칭하고 독일군 사령부의 하사와 공모하여 반(反)나치 수용소로 압송되는 이태리인(伊太利人)을 빼내어 주고는 그들의 가족들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여자와

태도로서 음악을 듣는 것이 좋다.  
“음악이 듣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듣는 사람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라고 음악 평론가이며 작곡가인 딘즈 테일러는 말하고 있다.  
음악에는 언어나 연령의 한계가 없다. 음악은 70세 된 노인이나 17세 된 젊은이에게 똑같이 즐거운 것이다. 처음에는 음악을 감상함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지만 영구적인 보상을 반드시 얻는다. 베토벤 교향악을 듣고 나서 빈센트 밀레이처럼 “이 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음악 애호가(愛護家)가 된 것이다.

도박에 탕진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구멍이 갑자기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생각 끝에 베루우또네는 바시아가 두고 간 가짜 보석 반지를 팔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뒷골목에서 과거에 그가 버린 정부(情婦)를 만난다. 정부(情婦)는 현재 고등매춘부가 되어있지만은 아직도 베루우또네를 잊지 못하여 그에게 몸과 돈을 바치며 다시 사랑해 줄 것을 눈물 흘려 애원한다. 그러나 베루우또네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떠난다. 그는 비록 사기한(漢)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돈에 마음을 흔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자랐은 자존심은 이 영화의 후반에서 관객을 놀라게 하는 베루우또네의 이태리인(伊太利人)으로서의 조국에 대한 의무와 자유를 사수하게 되는 중요한 심리적 복선이 되는 것이다.

돈에 궁한 그는 이미 총살된 이태리군(伊太利軍)의 한 중위의 부인을 찾아가서 그를 구출해 준다는 약속으로 거금을 받아 쓴다. 그러나 중위의 부인은 곧 베루우또네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사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사령부에 말하여 베루우또네는 체포되고 만다.

독군(獨軍) 사령관 뮤우라 대령은 잡혀온 베루우또네를 보자 그를 로베레 장군으로 이용할 착상이 떠올랐다. 뮤우라 대령은 베루우또네에게 성공하면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으로 그로 하여금 로베레 장군이 되어 게릴라 포로수용소에 들어가서 빨치산 게릴라부장을 찾아 내라는 것이다. 베루우또네는 그의 천분(天分)을 살려 멋있게 로베레 장군으로 화(化)한다.

☆**공감 넘치는 주제**

로베레 장군으로 가장한 베루우또네는 밀라노시(市)의 이태리(伊太利) 빨치산 게릴라대원 형무소 특별 독방에 들어간다.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생명을 내건 이들 대원들은 수감된 로베레 장군을 끊임없이 존경한다. 그들의 숭고한 조국애와 그들의 지도자 로베레 장군을 존경하는 무언의 분위기는 베루우또네로 하여금 점차로 정신적 변화를 가지게 한다. 그것은 베루우또네로 하여금 민족적 각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베루우또네의 민족적 각성과 조국애는 마침내 그의 행동 면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어느 날 그는 수감된 게릴라대원으로부터 한 장의 비밀 쪽지를 받았다. 그 쪽지에는 2, 3일 전에 많은 대원이 또다시 독군(獨軍)에 잡히어 이 형무소에 수감되었는데 로베레 장군이 찾고 있는 게릴라대원이 이들 대원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들어왔다는 것이다. 독군(獨軍) 사령관 뮤우라 대령이 것처럼 혈안이 되어 찾으려 하는 자가 바로 이 대장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아 낼 수가 없었고 베루우또네를 로베레 장군으로 이용한 것도 바로 이 대장을 찾아내자는 데 있는 것이다. 지금 베루우또네는 그 대장을 찾아내기란 극히 쉽다. 그러나 베루우또네는 이 쪽지를 뮤우라 대령에게 전하지 않는다.

베루우또네는 어느새 자신이 이미 죽어버린 로베레 장군이 되고 만다.  
어느 날 로베레 장군의 부인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로베레 장군의 부인은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짜 로베레 장군을 진짜의 자기 남편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베루우또네는 답장을 쓴다. 조국과 이태리(伊太利)의 자유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다 죽을 것이라는 사연이다. 독군(獨軍) 사령부로 보아서 이 회답은 베루우또네를 로베레 장군으로 가장하는 데 더욱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베루우또네로서는 그것이 진심이요, 또 부인에 대하여 그의 남편인 로베레 장군의 명예와 자랑을 끝까지 보지(保持)해주겠다는 생각에서이다. 뮤우라 대령은 베루우또네가 독군(獨軍)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총살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형장(刑場)에 나선다. 로베레 장군의 부인에게 '이태리(伊太利) 만세!'라는 유서를 써놓고 -



백설이 쌓인 형장에는 10명의 게릴라대원의 시체 속에 베루우또네의 시체도 보인다. 아까부터 이쪽에서 들려오던 사제(司祭)의 노래 소리가 차츰차츰 멀어져 간다.  
이 영화는 59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고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서는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그리고 각본상을 획득한 것으로 보아서도 영화로서의 전체 구성과 요소가 빈틈없이 짜여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화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연출이나 연기 또는 수법적 영화기술 면에보다 그 내용을 이룩하는 주제에 있다고 하겠다. (유기영)

## 건망증

김성진(金晟鎭)

“원장님은 어느 중학(中學)을 나오셨지요?”  
 내 병원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치료가 끝난 다음 그 아버지인 듯한 중년 신사가 불쑥 이렇게 묻기에  
 “그건 왜 물우? 난 경기중학(京畿中學)이요.”  
 라고 좀 통명스럽게 대답해 주었는데도 그 신사는 잘 생각을 아니하고 한걸음 더 가까이 오면서  
 “네. 그 전 경성고등보통학교(京城高等普通學校) 말씀이지요. 실례입니다마는 몇 회 졸업이신가요?”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리 꼬치꼬치 캐 물을까? 남 바쁜데 …… 나 18회요!”  
 나는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었으나 그 신사는 더욱 흥미를 느낀다는 표정으로 이번에는 내 앞에 놓인 진료 의자에 털떡 앉으면서  
 “18회시면 혹 이응수(李應秀)라는 사람 기억하시겠어요?”  
 “이응수(李應秀) 군이야 알다 뿐이요. 줄곧 한 반인데다가 나하곤 단짝이었는데.”  
 “이놈아, 내가 이응수(李應秀)인데 무엇이 어찌구 어찌? 친구도 못 알아 보구. 너 돈 벌더니 환장했구나!”  
 나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무어라 변명할 수도 없고 욕은 욕으로 막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이 자식. 그래 나는 못 알아봐서 미안하게 됐다면은 …… 너는 난 줄 알고 왔을 텐데 시치미를 딱 떼고 나를 테스트하다니. 네가 더 악질이다!”  
 “아니야. 말 말게. 문패는 분명히 너로 보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네가 아닌걸 어떻게니 …… 혹 또 동명이인이나 아닌가 해서 물어볼 수밖에 ……”  
 참 변했다. 우리가 30년 만이지. 10년만 지나도 산천이 변한다는데 왜 안 그렇겠나. 옳다. 이제 차차 네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음성도 닮아 가구!”  
 이렇게 손목을 마구 잡고 서로 웃어댔다.  
 30년을 경과한 건망증은 동정할 만도 한데 직업상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얼굴 각각, 이름 각각 별개로 기억하고 있어 서로 혼동이 되는 까닭에 왕왕 실수하는 일이 있다.  
 모처럼 찾아 온 친구에게  
 “그 후 좀 차도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다가  
 “이 사람 개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고. 친구도 환자로 봐는가 보군!”  
 이라고 무안을 당하는 일도 있다.  
 노상(路上)에서나 회합에서 아름아름한 사람을 만나 미처 생각이 안나서 안타까울 때  
 “나 모르세요?”라고 추궁을 당하면 딱 질색이다.  
 이런 때라도 이왕이면  
 “나 ×××인데 못 알아보시는군!”

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며 그 우정과 휴머니티에 감동되어 그 사람만은 다시는 안 잊어버리게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초면이거니 하고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인사를 하는 걸요.”  
 라고 역습(逆襲)해 오는 악취미도 있다.  
 잠시나마 작년에 국무위원으로 봉직(奉職) 중 매일 평균 450명씩 면회한 후로는 아는 사람의 분량이 격증(激增)하여져서 나의 수난과 피해도 더욱 많아졌다.  
 건망증은 이뿐만이 아니다. 영화감상을 하다가 귀에 익은 멜로디가 나왔을 때 일른 곡목 이름이 생각 안 나면 마음이 초조해서 화면도 볼 생각이 아니 나고 숫제 눈을 딱 감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그러다가도 끝끝내 생각이 아니 날 적에는 구경도 귀찮고 몹시 불안, 불쾌하다.

시(詩)

### 독수리

양명문(楊明文)

조용히  
 긴 회랑(廻廊)을 돌아  
 방에 호젓이 들어 앉으면  
 나 뿐.

텅 빈 절간 안 같은  
 적적한 인과(因果)의 이 방안은  
 내 추억의 절벽을 회상하는 곳.

집에 돌아와서 악보를 찾아보고 전축(電蓄)을 틀어서라도 기어코 알아내야만 속 시원한 신경질인 까닭에 건망증의 고통도 남달리 더한가 보다.

또 이런 일도 있다.

친구에게 불일이 있어 전화를 걸어 놓고는 상대방 이름을 깜박 잊어 말문이 막혀가지고 “여보세요. 자- 있지 않아요?”

“왜- 그 사람 앓다 이름이 무어더라 ……”

“이거 안 되겠는걸. 이따가 또다시 걸지요?”라고 당황해하니 얼마나 실없는 사람으로 여기겠는가?

나이를 먹을수록 뇌세포가 위축(萎縮)되고 퇴화하여 건망증은 날로 심각해 가건만 막을 도리가 없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혁명정부에서 정년제(停年制)를 실시한 데는 실로 이 건망증도 원인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 이국(異國)의 한국 소녀

이인석(李仁石)



우리는 애국심이라든가 동포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사실 그 이상 간절하고 거룩한 마음이 또 어디 있오라.

그러나 것처럼 소중하게 아껴 쓰는 말이지만, 역시 외국에 나갔을 때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조국에 대한 사랑, 동포에 대한 반가움을 모국을 떠났을 때 비로소 뼈아프게 느껴진다면, 평상시의 애국심이나 동포애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꾸중을 받을 것인가 …….

그렇더라도 내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이나 동료 중에 아무리 사이가 나쁘고 미운 자가 있더라도 함께 외국을 나가면 친해질 수 있을 거라는 점이다. 귀국해서 다시 싸우게 될는지, 그것은 보장할 수 없지만 …….

연전(年前)에 이웃나라를 다녀온 일이 있다.

교포가 발행하는 신문에 ‘국제 타임스’가 있다. 일어(日語) 신문이지만 교포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문이며 독자는 교포를 상대로 하고 있지만, 일인(日人)들도 많이 구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사 주최로 신주쿠(新宿)에 있는 부용회관(芙蓉會館)에서 좌담회를 열었다. 언어는 물론 한국말로 하고 그것을 속기(速記)했다가 나중에 일어(日語)로 번역하여 게재하기로 했다.

좌담회가 시작되자 이어 요리상이 벌어지고 일본 기생(게이샤=예자(藝者)) 10여 명이 들어와 술을 따르고 안주를 집어주고 하는데, 그녀들이 아무리 애교를 부려보았자, 우리가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 데는 기가 질리는 모양이었다. 좌담회가 끝나고 본격적인 술자리가 벌어졌는데도 그녀들은 황송한 듯이 꿀어 앉자 시중만 들고 있었다.

그런데 한 여인이 한국에서 오셨느냐고 하며 대단히 반갑다고 한다. 나는 기특하다 생각 하면서도

“내가 한국 사람이기로서니, 네가 것처럼 반가워 하는 이유가 나변(那邊)에 있느냐?”

물었더니 그녀 왈(曰), “서울서 여학교에 재학 중이다가 종전(終戰)(일인들은 8·15해방이라 하지 않고 종전(終戰)이라고 한다.)이 되어 돌아왔노라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랫동안 본정통(本町通)[충무로]에서 과자점을 경영했으며 그녀는 서울에서 출생했다는 것이었다. 그뿐더러 그녀가 사랑하던 한국 남자가 황금정(黃金町)[을지로] ○○번지에 있는 철물상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름은 우(禹) 아무개인데 혹시 아시느냐고 묻는다. 물론 내 알 리가 없지만 그녀에게 친근감이 드는 것은 이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는 것일까 …….

그건 그렇고, 좌담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내 옆에 붙어 앉아 술을 따르고 안주를 집어주며 각별한 서비스를 해주는 묘령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신문사 여기자인데 잠시도 내 옆을 떠나지 않고 기생 찜찜하게 접대를 한다.

비가 내리건  
 눈이 흠날리건  
 내겐 모두 요욕의 계절.

몸을 가누어  
 다시 푸른 기류 속을  
 날카로이 비상(飛翔)할  
 그 날을 기다릴 뿐.

서서이  
 사색의 날간을 씹으며  
 인고의 자세로  
 웅크리고 앉은

나는  
 한 마리의 우울한  
 독수리.

이윽고 주연(酒宴)도 끝나 나오는데, 트랙을 지나 대문 앞까지 일본 기생 10여 명이 따라 나와서 일렬로 서더니 무슨 구렁에라도 맞추듯 일제히 절을 하며 배웅한다.

나는 차에 올라 막 떠나려는 데 어느 틈에 여기자가 달려오더니 어디로 가시느냐고 한다. 긴자(銀座)나 산책하다가 갈 참이라고 했더니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하며,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냉큼 차 안으로 기어들어 온다. 그러자 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세계 1위의 인구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환락 도시라고 하는 도쿄(東京)…… 도쿄(東京)하고도 긴자(銀座)…… 불야성(不夜城)이란 말이 있지만 그것은 옛말이다. 지금은 자전(自轉)하는 불야성이다. 각가지 각색 네온사인 이 서로 연결되어 빙빙 돌고 있기 때문에 시가(市街) 자체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 같다.

거닐다 보니 어느새 여기자가 내 팔을 끼고 거닐고 있다. 이곳에서는 여자가 남자와 길을 거닐 때는 팔을 끼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의 에티켓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쩐지 어색하다. 그렇다고 여자의 팔을 뿌리칠 수도 없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영낙 없이 다정한 애인끼리다.

나는 담배를 사겠다고 하며 그녀를 풀어 놓았다. 그러나 담배를 사 넣고 거닐기 시작하자 어느새 벌써 그녀는 내 팔을 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단념을 하고 팔자에 없는 임시 애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녀는 도쿄(東京)의 물정(物情)과 현대 풍조에 밝을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전적인 문화 전통과 고고학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었다.

더욱이 뜻밖이었던 것은 그녀가 한국 여자라는 것이었다. 나는 발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들여 다 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유창한 일본말이라든가 얼굴 모습이라든가 일본 냄새가 풍긴다.

의아해하는 나의 표정을 재빨리 살폈는지 그녀는 핸드백에서 조그만 명함을 하나 꺼내어 준다. 분명 ‘○○○’이란 한국 이름이다. 부모가 일찍이 일본으로 건너왔으며 자기는 도쿄(東京)에서 나서 일본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말을 모른다고 했다. 금년 봄에 교토(京都) 대학교 사학과를 나와 신문에 취직했노라 했다. 늘 조국을 그리워 하면서도 아직 한국에 가보는 꿈을 이루지 못했노라 했다.

이국(異國)에서 만난 한국 소녀…… 그러나 그녀는 조국을 모르고 자기 나라 언어를 모른다. 그리고 생활 풍습과 생활 감정마저 일본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교포가 어찌 그 소녀 하나뿐이라……. 제일(在日) 거류민단(居留民團) 간부에게서 들은 얘기지만 그와 같은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을 모르고 한국말을 모르는 동포가 많다는 것이었다. 제일교포의 수는 공칭(公稱) 60만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100만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였다.

대부분의 교포들이 빈민이요, 빈민굴에 모여 살며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관헌(官憲)의 골치를 아프게 하기도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이국(異國)에서 고아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비애와 고생은 오죽하랴…….

더욱이 청년들은 취직할 수가 없어 고민하고 있었다. 일본의 각 대학에는 상당수의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공과(工科) 계통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인데 졸업해 보았자 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 관청에는 물론 안 되고 일반 기업체에서도 외국인이라고 받아주질 않는다는 것이다. 교포가 경영하는 기업체도 더러 있지만 그 많은 졸업생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수적(數的)으로 제한이 되어있다. 그렇다고 고국으로 돌아와 본댈자 취직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들의 고민은 심상치 않은 바가 있다 한다.

**교포**…… 그것은 고아와 다름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국을 그리워하고 한국의 사정을 알고 싶어 하며 뜨거운 조국애를 지니고 있다.

외국에서 서로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그 기쁨과 긍지…… 동포와 한국말의 고마움을 교포들은 뼈저리도록 느끼게 하여 주었다. <필자·시인>

시(詩)

### 간주곡

김상화(金相華)

사뿐히 그 위에  
앉아 보고 싶은,  
팔의 힘을 뺏고  
맥없이 만져 보고 싶은

아, 가을의 나뭇잎

눈물을 먹은 듯  
웃음을 지닌 듯  
내 머릿속에 떨어진

가을의 나뭇잎

그로 인하여,  
꾸겨진 마음도

### 뒷길 풍경

오애영

청과동(靑坡洞)에 시내버스 노선이 트인 것은 불과 몇 해 전 일이었다. 처음엔 그 좁은 길에 어떻게 덩치 큰 버스가 다닐까 하고 적이 노파심이 있었으나 막상 다니기 시작하니 여간 편리한 게 아니다.

사람 마음이란 간사스러운 것이어서 지금은 오히려 ‘예전엔 얼마나 불편했을까?’라고 공연한 근심까지도 가져 본다.

3분마다 지나는 그 많은 버스가 낮 한때를 빼놓고는 노상 만원이니 허구 많은 사람들을 예전엔 어떻게 운반했던 것인지 궁금한 것이다.

이 편리한 버스가 다니는 서울역 뒷길 - 개천과 나란히 있는 이 길을 나는 매일 아침저녁 지나 다닌다. 물론 만원 버스에 시달리면서 -

청과동 노선 중엔 가장 악코스인 만리동(萬里洞)과 숙대입구(淑大入口) 사이의 이 길을 달릴 때마다 난 버스 운전수에게 동정하곤 한다. 겨우 복판만 아스팔트를 깔아서, 비 오는 날이 아니면 이 길은 언제나 먼지투성이다. 그나마 번두리처럼 신작로라도 넓었으면 좋겠는데 이진 양쪽에서 버스가 마주칠 때면 피차 속력을 죽여서 바람의 마찰을 피해야 할 지경이다. 비단 이 길뿐만은 아니겠지만, 인도가 따로 없으니 행인이나 노점들을 피해 다니느라고 차체를 비비 껴면서 줄곧 뽕뽕거리야 한다.

교통량도 꽤 붐비는데 서울역과 가깝고 세관, ○○운송회사, ××시장 등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인지 특히 짐차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거의 없는 것이 없다. 트럭, 세발 트럭, 우마차, 리어카, 자전거, 손수레, 심지어는 지계에 이르기까지 다른 길보다 눈에 띄게 많다. 개천 건너로는 서울역에 들어오는 화물차까지 손에 잡히니 여러모로 짐차와 인연이 있는 길인가보다.

‘부처님 뒤!’라고 하더니 서울역의 얼굴 쪽 행길과 뒤통수 쪽의 이 길은 영 분위기가 다르다. 서울역을 그 자리에 둔 채 슬쩍 방향만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하고 부질없는 생각을 해보는 때도 있다. 이 뒷거리를 한층 더 뒷거리답게 해주는 것으로 서울 마차조합이 있다.

서울에 오래 살지 않은 나는 이 조합이 언제부터 만리동 길가에 자리잡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제법 많은 역사가 있는 것으로 혼자서 어렵하고 있다.

서울역과 그 주변의 교통수단이 메커니즘의 발달과 더불어 자꾸만 새로워지고 있는 것과는 꺾 대조적으로 이 뒷길의 마차군(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그 모습 그대로 건재하고 있다.

홍수를 이룬 갖가지 고성능 바퀴의 분류(奔流)에도 떨려 나지 않고, 또그닥 또그닥 원시적 발굽을 엔진 삼아 유유히(?) 운송계의 한 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낭만같은 것을 풍겨주기에는 마부들의 표정이 너무 각박하다. 그날의 끼니만이 관심인 그들에게선 낭만 이전의 처량만이 느껴져 자못 측은한 마음까지 이는 것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꿈이 아니라 생활의 무기이다.

유리한 생존 경쟁을 위해 그들은 좀더 성능이 좋은 무기가 아쉽겠지만 맡겨진 것은 자동차의 푸대접을 받으며 제한된 읍성(邑城)에서 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허약한 것이니 우울한 싸움일 수밖에 없다.

대개는 새벽에 나가는지 출근 시간엔 가끔 한쪽 길가에 무덤을 이룬 마분(馬糞) 더미와 속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는 어두운 마구간이 남아 있을 뿐이다. 어찌다 퇴근 시간이면 하루 일을 마치고 모여든 마부들과 버스 창 너머로 마주칠 때가 있다.

매양 탐탁하지 않은 하루 별이가 끝난 그들은 아쉬움밖에 없는 집으로 곧장 들어가기보다는 말똥 부스러기가 깔린 땅바닥에 둘러앉아 도박으로 피로를 풀거나 바로 부근에 있는 판자집에 들러 선술로서 그날의 애환을 살라 버리기를 더 좋아한다. 귀퉁한 수채 냄새가 풍기는 개천에 연(沿)하여 마차조합 건너편 길가를 차지한 10여 개의 하꼬방 선술집들은 이 마부촌의 유일한 위안처인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메커니즘의 횡포에 대한 울분을 50환자리 대포로 달래는 것인지도 모른다.

좁은 길인 데다 마차의 왕래가 제한되지 않고 있는 이 길에선 가끔 앞서가던 마차가 뒤에서 오는 버스의 성화에 쫓겨 황급히 길 한쪽으로 비껴 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럴 때면 시간이 바쁜 차장(車掌)들은 죄 없는 마부에게 한마디씩 욕지거리로 던지기 일수이고 버스 손님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버린다.

편리한 버스이지만 마부들에겐 이 뒷길까지 침범한 버스가 원망스럽게 여겨지는지도 모를 일이다.

자꾸만 영토가 좁아지는 마부의 세계가 무언지 서글퍼진다. (필자·경향신문 기자)

에태운 심정도  
주홍빛 낙엽 속에 조용히 잠들어  
이제는 푸욱 쉬어야 할 시간  
잠들자  
낙엽 속에 잠들자  
내일의 밝음이 그 위에서  
빛나는 시간까지



<소설>

후조(候鳥\_철새)

손소희(孫素熙)

구름 밑으로 바다 속 같이 파아란 하늘이 보인다.

시에는 다리미질을 끝내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한다. 우선 찬칸에서 입을 옷을 따로 한켠에 밀어 놓고 여관에서 입을 옷부터 뺄(가방) 속에 디민다. 다음은 명준을 찾아 갈 때에 한해서만 입을 옷이다. 어두운 황갈색 포오라에 짙은 자색으로 보일 듯 말 듯이 목둘레와 호주머니 끝에 손을 두른, 올 가을의 유행 옷이다. 시골 띠기 냄새와 여학교 선생티를 내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거나 병석에 있는 그의 쇠잔한 신경을 자극하는 따위 화려한 옷도 삼가야 한다고 시어로선 여러모로 마음을 쓴 맞춤옷이다. 이 맞춤옷이 꾸겨 안 지게 하려면 아무래도 뺄의 댄 위가 나올 것 같다.

시에는 뺄에 넣었던 맞춤옷을 도로 꺾집어내 놓는다. 잠옷과 속옷 등속이 대신 뺄 안에 디밀어 진다.

다음은 명준에게 가져갈 선물이다. 전복 말린 것하고 고동과 조개기둥 말린 것이다. 옥양목으로 속을 싸고 위는 고무 형질로 싸다. 이것들은 푸른 하늘 빛 같이 맑은 남해의 명산물이다. 서울 태생인 그의 기호에 맞을지 어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말리는데 바친 정성만은 몰라줄 그가 아니다.

‘몇 번이나 뒤적였는지 아시겠어요?’

시에는 명준을 만나서 선물을 건네며 이런 말도 해야겠다고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뺄 속에 디민다. 뺄이 꼭 차 버린다.

시에는 살살 도리질을 하며, 그의 선물을 도로 꺾집어낸다.

짐은 아무래도 두 개로 만들 수 밖에 없다. 짐을 두 개로 만들려면

이모네 집에도 선물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시에는 조그만 옷장 서랍에서 낡은 목도리를 꺼낸다. 명준에게서 받은 그의 최초의 선물이다. 따뜻한 미소가 입가에 새겨져 간다.

‘선물은 여기다 싸 가야지!’

시에는 마루에 나와 목도리를 던다. 문득 파아란 하늘이 눈에 스민다.

“어쩌면” 이번에는,

소리를 내어 버까려 본다. 명준이도 지금쯤 말라든 노란 잔디밭에 드러누워 먼 남쪽 하늘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간절한 그리움을 가슴 가득히 부풀리며 먼 윗녘 하늘을 시에가 바라보고 있듯이 이렇게 막 그녀가 중얼거리고 났을 때다. 덜거덩 덜거덩 대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린다. 무심결이라 그런지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 “우편이요.”

우체부의 소리다. 시에는 바빠 신은 켜어 신고 대문개로 나간다. 푸르스름한 항공용 봉투가, 대문 안에 떨어져 있다. 팔을 뻗어 천천히 봉투를 집어 올린다. 이번에는 자기의 이름이 써어져 있다. 뒤집어 볼 것도 없이 명준에게 낸 자기의 편지다. 그런데로 표면 쪽을 살피니 수취인 부재라는 흰 쪽지가 나달나달 달려 있다.

먼저 편지도 이렇게 되돌아 왔다. 명준이 절교 편지를 낸 뒤의 두 번째의 횡포다. 그러나 그러한 명준의 횡포는 시에의 가슴에, 보다 사무치는 불길을 지펴놓곤 한다.

이학기가 시작되는 구월 초순의 어느 날이다. 시에는 명준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다. 주소는 우이동 방가로 9호로 되어 있었다. 이상한 예감으로 편지를 들고 있는 시에의 손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시에의 예감대로 불길한 것이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곤과 신열과 기침이 일곤 하므로 рент겐(Roentgen: X-ray)을 찍었다니 한쪽 폐는 거의 절망상태가 되어 있다는 병세 이야기를 전제로, 절교를 선언해 온 요지의 편지다.

명준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에의 장래를 생각해서 부득이 절교를 선언한다고 그의 마지막 편지는 끝을 맺어 있었다.

시에는 그의 마지막 편지라는 것을 읽고 눈이 붓도록 울었다. 그의 편지는 일찍이 사랑을 고백한 그의 그 어느 편지보다도 진실한 내용으로서 시에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새겨 놓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폐에서 쳐진 후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에는 흐느끼며 격정에 사로잡힌 시인(詩人)의 사랑의 편지에 못지않은 불같이 뜨거운 말들로 변함없는 맹서를 거듭거듭 다짐해 둔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뵙고 싶은 심경입니다만, 여학교 졸업반 담임선생인 저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배편과 차편을 이용하는 불편한 길이 아니라면 일요일을 이용해서 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그만 남쪽 포구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왕복에 꼬박 나흘이나 걸리는 여행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에는 편지의 끝을 맺은 뒤, 다시 이러한 사연을 첨부해서 그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녀의 이 편지는 뜻밖에 수취인 미상이라는 쪽지를 달고 되돌아 왔던 것이다.

그의 절교 편지 뒤에 보낸 시에의 제 일신이다.

시에는 그의 절교를 선언한 편지를 받았을 때같이 이번에도 충격과 감명을 받았다.

편지 이상한 것이어서 평소에 서로 중요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보내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받고보면 읽고 싶어지는 게 누구나의 상정이다.

‘그렇게 할 하물며 명준씨는 외롭기 그지없는 우이동 산간에서 요양 생활을 하고 있는 처지에 있다. 그러한 처지에서 그이가 시에의 편지를 되돌리다니’

시에는 두 번째 편에다 이러한 자기의 감회를 되풀이해서 써 넣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시월 중순께 포구의 T 여중 졸업반이 서울로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되었는데 감독 선생의 한 사람으로 시에가 가게 된 일이라고 부연을 달았다.

절교 편지를 그로부터 받고 난 뒤의 제 이신이다 그 이신이 지금 회송되어 그녀의 손 안에 쥐어져 있다.

‘그이는 의지의 사람이야. 그의 의지는 상대자를 구원하려는 데만 쓰여지고 있거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선 전연 답을 쌓고 있는 형편이니’

그녀는 글썽하게 고여있는 눈물을 짜 버리고, 회송되어 온 자기의 제 일신과 제 이신을 그의 선물 보통이 속에 곱게 질러 넣는다. 찾아가서 자기의 목소리로 읽어 줘야겠다고 생각이 미친 때문이다.

시에는 대충 꾸러진 짐을 한 곳에 밀어놓고 또 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편지라도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다. 그가 편지를 읽어보지 읽어보지 아니하건 이제는 의심할 바가 못 된다.

편지는 틀림없이 배달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단 그의 손이 자기의 편지를 받아서 뒤적여 보고는 수취인 부재니 수취인 미상이니 하는 따위 쪽지를 달아 회송해 버릴 게 아닌가. 그러자니 그의 마음은 오죽 아플까.

그러나 나의 편지를 비록 그가 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다리기에 지쳐 버릴 정도로 안타까이 고대하고 있는지도 몰라! 아무튼 시에가 자기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정성쯤은 그는 적어도 기쁘게 사 줄거야. 시에는 눈시울을 적셔가며 정성스레 쓴 그이의 제 삼신을 우체통에 던진다. 아직 해가 기울기 전이다. 아침 배로 운송만 되어지면 자기가 우이동으로 그를 방문하는 같은 날에 배달될 수도 있다. 그보다도 자기가 그의 방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배달이 된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시에가 그에게 편지를 읽어 드리고! 그이는 감격으로 눈을 감고 있을테지!’

여중 졸업반 학생 일등은 서울역에 내렸다.

시에는 행여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역 밖에 나오자 슬금슬금 주위를 살펴본다. 없다. 여학생들이 자주 시애를 쳐다보곤 하는 품이 서울에서 공부한 선생이니, 누가 마중이라도

나와 있는지도 모른다고 땀엔 살펴보는 눈치다.

‘그럴줄 알았다면 이모한테 전보를 칠걸. 그랬다면 누구라도 나왔을텐데. 동생들은 아침이 일러서 곤란하겠지만’ 생각하다가 그녀는 가만히 웃음을 삼킨다. 이모의 뚱뚱한 몸집이 뒤통거리며 ‘시애야, 여기서.’

하고 흔들어 댄 뚱뚱한 손을 연상한 것이다.

「J 여중 상경 환영’ 남대문 호텔’이라는 플랜카드가 눈에 띄인 때문이었으리라. 시간은 아침 일곱 시 이십 분이었다.

일행은 남대문 호텔에 여장을 풀고 조반을 치룬 뒤, 열 시까지는 한숨 쉬기로 한다. 그 시간에 함께 온 남녀 선생은, 공연히 눈과 코와 입을 별름별름 찢어가며, 시애를 감시하려 든다. 시애의 그이가 서울에 있다는 정도는 J 여중의 대부분 직원들이 눈치를 채고 있는 때문이다.

열 시가 되자 일행은 신문사 견학을 비롯해서 도서관과 박물관과 경복궁 구경을 떠났다. 시애는 노상 그들의 선두에 서서 졸업반 담임으로서의 그리고 감독 선생으로서의 직책을 다 하기에 펍 분명한 하루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명준의 생각으로 가끔 얼굴이 화끈거리곤 했다. 그런대로 첫날 견학은 다섯 시까지로 끝내고 남은 곳은 다음날 하기로 스케줄이 짜 있다. 따라서 다섯 시 이후는, 자유시간이다. 물론 인솔자인 선생들에 한해서지만. 그것도 네 분 선생이 돌씩 교대해서 외출이 허락된다.

시애는 예의 황갈색 원피스로 바꿔 입고 그의 선물을 들고 거리에 나선다. 시애에게 외출할 수 있는 첫날의 우선권이 차례지었던 것이다.

그녀는 택시에 앉았다. 차는 우이동을 향해 달린다. 시계는 여섯 시 반을 가고 있었다. 늦어질 것만 같다.

“저, 차를 저쪽 로타리로 좀 돌려주세요. 잠깐 이모댁에 들렀다 가야겠어요.”

밤이 늦어지면 돌아올 때가 곤란하다. 누구라도 우이동까지 같이 가야 한다.

‘요행히 경희라도 집에 있어 주었으면. 경희의 동생이라도 상관없겠지. 만약 그들이 싫다면 어쩔까. 집에 있더라도 말이지. 그러면 정지애라도 끌고 가야지.’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 과일을 한 상자 사들었다. 애초부터 이모집에 들릴 예정이었으면 대구포라도 가지고 왔을걸!

그녀는 이모네 집 앞에 서서 숨을 고른다. 너무 급히 서둘러서 옷도 뒤틀리고 숨이 차다. 이마에 땀기까지 축축히 배어 있다. 그리고 보니 향수를 사서 치지 못한 게 유감이다.

‘병자라 신경이 날카로울텐데.’

그녀는 대문에 달린 낫익은 벨을 누른다. 언젠가 그이도 자기를 만나러 와서 누르던 벨이다. 벨은 그때의 그 벨이다. 그새 집과 대문이 새로 칠해져 있다. 여름에 왔을 때보다 아주 산뜻하다. 붉은 기와에 초록빛 채양도 흰 집 색과 여간 잘 어울리지 않는다.

“누구세요?”

들창문 같은 대문 한쪽이 삐끗이 열린다.

“나야. 나 시애야. 잘 있었니?”

“어머나, 언니 오셨어요?”

정지애가 호들갑을 떨며 대문을 열고 뒤를 돌아다 본다. 시애는 허리를 구부리고 대문 안에 들어선다.

“언니 짐 인주세요. 제가 들게요.”

정지애의 말소리가 그녀의 귓속을 흘러드는 같은 순간이다. 시애의 손에 들려져 있던 짐들이 소루루 땅 위에 떨어뜨려 진다.

시애는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그러나 눈앞에 비치는 광경에는 변함이 없었다. 순간 이상하게 다리가 뒤틀리며 현기증이 일었다. 마치 체내에 있는 피가 모조리 어디론가 새여버리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들을 바라다 본다.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걸까. 눈앞에 어른거리는 두 개의 얼굴, 그중 하나는 명준의 그것이요, 다른 하나는 경희의 얼굴이 아닌가. 그들은 팔짱을 끼을 때 모양 어깨를 맞대고 걸어 나오고 있었지 않는가. 입가에, 눈에 온통 즐겁고도 스위트한 웃음이 풍겨져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것까지도 책 잡을 이유는 못 된다. 그보다는 명준씨의 심각해진 표정이 무엇인가를 시애에게 설 명하고 있다. 경희는 왜 돌처럼 서 있는 것일까. 시애를, 이모 사촌 언니를, 그 언니의 얼굴을 잊어버렸단 말인가. 앓아 누워 있노라고 하던, 결단이 나버렸다고 하던 명준씨의 한쪽 폐는 경희가 갇아 먹고 있는 이것은 그 현장이란 말인가?

“아이구, 이게 누구야. 시애가 아니냐? 어떻게 기별도 없어. 어서 올라 오너라.”

이모가 안방문을 열어 제치고 마루에 나와 선다.

그러자 경희가 조용히 그녀에게로 다가선다.

“언니, 잘 오셨어요. 들어가요. 얘기할 게 있어요.”

명준은 얼굴을 떨어뜨리고 자기의 발뿌리를 지켜보고 있다.

시애는 힘껏 머리를 털었다.

그리고 뒹방이 같이 짹싸게 이모의 집을 뛰쳐 나왔다.

하늘 한 가에는 검붉은 노을이 타고 있었다. 그 검붉은 노을 아래 까맣게 그어진 여러 줄의 포물선이 이동하고 있었다. 포물선보다 훨씬 뒤떨어져서 떠 있는 한 개의 움직이는 점도 그녀는 놓치지 않고 바라다보며 걸었다. 그것은 떼에서 뒤떨어진 기러긴지, 지휘관 기러기인지는 알 수 없었다.

‘기력, 기력, 기력’

그녀의 가슴에서도 무수한 기러기 떼가 죽지를 파득이며 날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들 역시 포물선을 그리며 그녀의 시야를 어지럽게 하였다.

‘눈물보다 잔인한 것은 잔인 것은’

그녀는 눈을 말끔히 뜬 채 돌같이 단단한 기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서 팔매를 치고 있었다. 어투거리 는 포물선을 그으며. (끝)

<부록>

##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國際聯合) 제3회 총회서 채택)

**전문(前文)**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尊嚴性)과 평등하며 양도(讓渡)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인 고(故)로,

인권의 무시와 경모(輕侮)는 인류의 양심을 침파(侵破)한 야만(野蠻) 행위를 야기시켰으며 또한 인간이 언론 및 신앙의 자유와 공포 및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할 세계의 출현은 일반 인민의 최고의 원망(願望)으로서 선언되었던 고로,

인간이 전제(專制)와 압박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반역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라면 인권은 법의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긴급(緊要)한 것인 고로,

각 국가 간의 우호(友好) 관계의 발전을 촉진함은 긴급한 것인 고로,

국제연합의 제(諸) 국민은 기본적인 인권 인신(人身)의 존엄성 및 가치, 남녀동권(男女同權)에 관한 신념을 헌장(憲章)에 있어서 재확인하며,

또한 가일층(加一層) 큰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함을 결의한 고로,

가맹국(加盟國)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세계적인 존중 및 준수의 촉진을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달성할 것을 서약한 고로,

이와 같은 권리와 자유에 관한 공통의 이해는 이 서약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고로, 따라서 이에 총회는 사회의 각 개인 및 각 기관이 각 가맹국 자신의 국민 간 및 가맹국의 관할 하에 있는 지역의 국민 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권리와 자유와의 존중을 교육 및 교화에 의하여 촉진할 것, 또한 그 세계적이고 유효한 승인과 준수를 국내 및 국제의 점진적 조치에 의하여 확보하는 데 이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노력하게끔, 모든 국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할 공동의 기준으로서 이 선언을 포고(佈告)한다.

제1조 자유평등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존엄과 권리에 대하여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며 동포의 정신으로써 상호 간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권리와 자유의 향유에 관한 무차별 대우

① 누구든지 인종, 피부의 색, 성, 언어, 종교, 정치상 혹은 그 밖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본 선언에 계시되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또한 개인의 소속국 또는 지역이 독립 지역이든가, 신탁통치(信託統治) 지역이든가, 그 외 어떠한 것의 주권 제한 하에 있음은 불문(不問)하고 그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상, 관할상 또는 국제상의 지위에 따르는 어떠한 차별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생존, 자유, 신체의 안전

누구든지 생존, 자유 및 신체의 안전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노예의 금지

누구든지 노예 또는 고역(苦役) 하에 억제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형식의 노예 및 노예매매도 금지한다.

제5조 비인도적인 대우 또는 형벌의 금지

누구든지 고문(拷問) 또는 잔학한 비인도적인 혹은 불명예스러운 대우 혹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6조 법 앞에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승인

누구든지 법 앞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7조 법 앞에 있어서의 평등

모든 인간은 법 앞에 있어서 평등하며 또한 여하(如何)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모든 인간은 본 선언에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서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어떠한 교사(教唆)에 대하여서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8조 기본적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누구든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재판소에 의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9조 체포, 구금(拘禁) 또는 추방의 제한

누구든지 전단적(專斷的)으로 체포되며 구금되며 또는 추방되지 않는다.

제10조 재판소의 공정한 심리(審理)

누구든지 그 권리, 의무 및 자기에 대한 형사상의 고소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독립적인 공평한 재판소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公開審理)를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11조 무죄의 추정(推定),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① 누구든지 형사범죄의 고소를 받은 자는 자기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부여된 공개의 재판에 있어서 법률에 의하여 유죄라고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② 누구든지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의해서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말미암아 형사범죄에 관해서 유죄 판결되지 않는다. 또한 당해(當該) 형사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형벌보다 중한 형벌을 과(科)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사생활, 명예, 신용의 보호

누구든지 사사(私事), 가족, 가정 혹은 통신에 대한 전단적(專斷的)인 간섭 또는 명예 및 신용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않는다. 누구든지 이러한 간섭 또는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13조 이전(移轉)과 거주(居住)

① 누구든지 각국의 경계 내에 있어서 이전 및 거주 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자국(自國)을 포함한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퇴거(退去)하며 또는 자국에 귀향할 권리를 향유한다.

제14조 박해(迫害)

① 누구든지 박해로부터의 보호를 타국에 있어서 구하며 또한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이 권리는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부터 진실히 야기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채용할 수 없다.

제15조 국적(國籍)

- ① 누구든지 국적을 보유할 권리를 향유한다.
- ② 누구든지 전단적(專斷的)으로 국적이 박탈되며 또는 그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16조 혼인과 가정

- ① 성년의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떠한 제한도 받음이 없이 혼인하며 또한 가정을 이룰 권리를 향유한다. 성년의 남녀는 혼인 중 및 그 해소 시 혼인에 관한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 ② 혼인은 배우자로 될 의사를 갖는 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만으로써 성립된다.
- ③ 가정은 사회의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집단단위이며 사회 및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17조 재산

- ①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향유한다.
- ② 누구든지 그 재산을 전단적(專斷的)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

제18조 사상, 양심, 종교

누구든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 및 단독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공사(公私)로 교육, 행사, 예배 및 의식 집행에 의하여 그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의견 발표

누구든지 의견 및 발표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 의견을 가질 자유 및 모든 수단에 의하여 또한 국경을 불구하고 정보 및 사상을 구하며, 받고 또한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집회(集會), 결사(結社)

- ① 누구든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누구든지 결사에 속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참정권(參政權)

- ① 누구든지 직접적으로 또는 자유로이 선출되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한다.
- ② 누구든지 자국에 있어서 평등하게 공무에 취임 권리를 향유한다.
- ③ 국민의 의사는 통치권력의 기초로 되어야 한다. 이 의사는 정기(定期)의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명되어야 한다. 이 선거는 평등한 보통선거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제22조 사회보장(社會保障)

누구든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향유하며 또한 국가적 노력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또한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응하여 자기의 존엄성과 자기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不可缺)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향유한다.

제23조 노동의 권리

- ① 누구든지 노동하며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며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얻으며 또한 실업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 ② 누구든지 아무런 차별없이 동등의 노동에 대하여 동등의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 ③ 노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에 적합한 생활을 자기 및 가족에 대하여 보장하며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사회적 보호 수단에 의하여 보충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 ④ 누구든지 그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며 또한 여기에 가입할 권리를 향유한다.

제24조 휴식, 여가

누구든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 및 여가를 얻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25조 생활의 보장

- ① 누구든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시설을 포함한 자기 및 가족의 건강 및 복리(福利)를 위하여 충분한 생활 수준을 향유할 권리 또한 실업, 질병, 능력 상실, 배우자의 상실, 노령 또는 불가항력(不可抗力)에 의한 그 밖의 생활 불능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 ② 어머니와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 및 원조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모든 아동은 적출(嫡出)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교육

- ①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또는 기초적 단계에 있어서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된다. 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은 일반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또한 고등교육은 능력 본위(本位)로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 ②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야 된다. 교육은 모든 국가 및 인종적 또는 종교적 단체 간에 있어서의 이해, 관용 및 우호 관계를 증진하며 또한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③ 부모는 아들에게 부여할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문화

- ① 누구든지 자유로이 사회의 문화생활에 참가하며 예술을 향락(享樂)하며 또한 과학의 진보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
- ② 누구든지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미술적인 제작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무형 및 유형적 이익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제28조 사회적, 국제적 질서

누구든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 및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사회에 대한 의무

- ① 누구든지 인격의 자유 및 완전한 발달이 가능한 사회에 대하여서만 의무를 부담한다.
- ② 누구든지 권리 및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타당한 승인 및 존중을 보장할 것과 민주적 사회에 있어서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의 복지의 타당한 요구를 충족할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에만 복종하여야 한다.
- ③ 이 권리 및 자유는 여하(如何)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권리와 자유에 대한 파괴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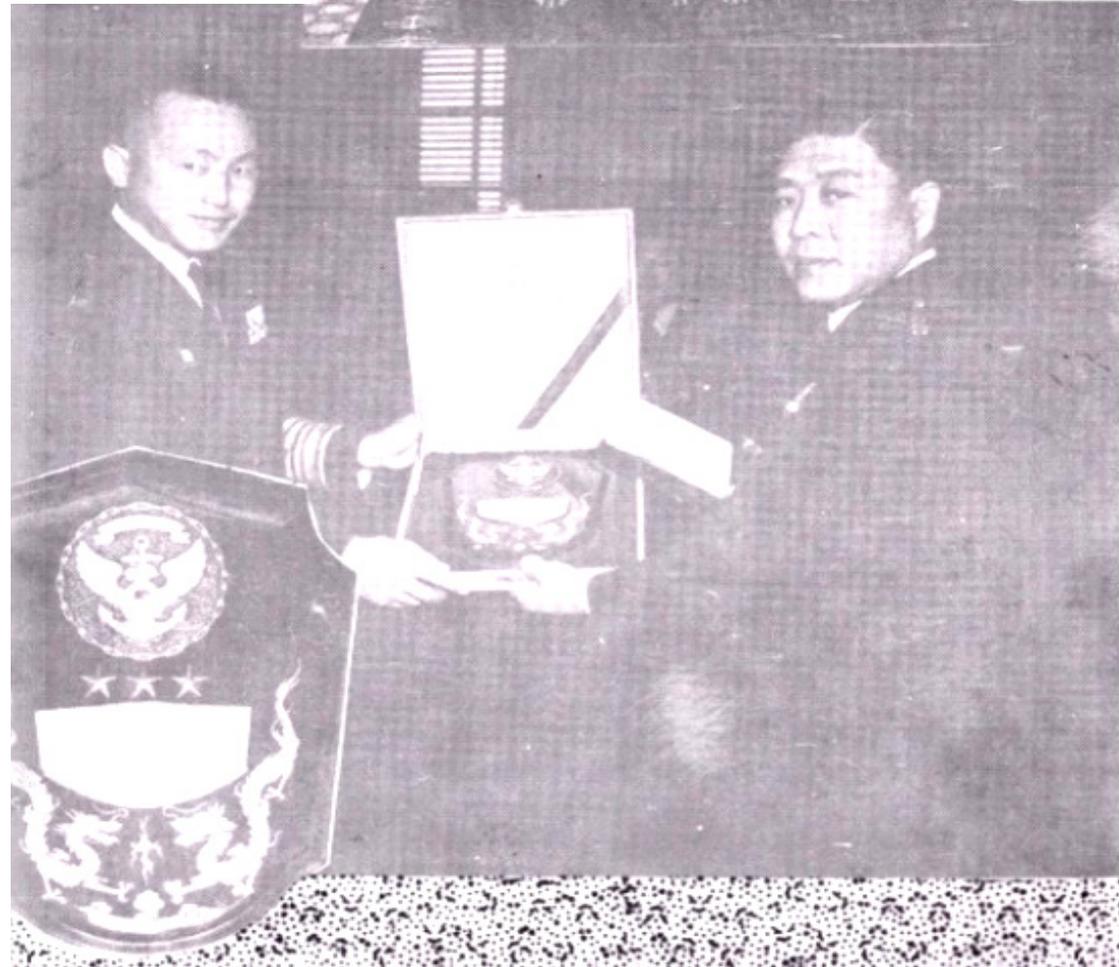
여하(如何)한 국가, 단체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제시되어 있는 권리 및 자유의 어떠한 부분을 파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는 행위를 수행할 어떠한 권리도 이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 28일 유(劉) 주한(駐韓) 중국대사를 통하여 장성한 참모차장 및 윤일군 정보국장에게 각각 운휘훈장(雲麾勳章)을 전달, 수여하였다.



↓ 10월 13일부터 실시된 「악어」 작전에 참가하여 지원 및 협동 업무를 수행, 성과를 거둔바 있는 공군 전대장(戰隊長) 백정현 대령은 해군참모총장 이성호 중장으로부터 및 상패를 수여받았다.



##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 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우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한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미사일  
제 8

發 行 處 · 空  
發 行 兼 編 輯 人 · 空  
印 刷 處 · 空  
印 別 人 · 空

공군본부

# 미사일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